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박사학위논문

한국어 병렬구성 연구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주 지 연

한국어 병렬구성 연구

지도교수 김 창 섭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주 지 연

주지연의 문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1월



위 원 장 전 영 철 ㊞



부위원장 이 익 섭 ㊞



위 원 임 동 훈 ㊞



위 원 박 진 호 ㊞



위 원 김 창 섭 ㊞

초 록

한국어 병렬구성 연구

주지연

본고의 목적은 한국어 병렬구성의 통사, 의미, 화용적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한국어 병렬구성이 다른 통사 구성과 구별되는 점을 명확히 하여 그 구조를 밝히고 둘째, 병렬구성의 의미 기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셋째,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다양한 종류의 병렬구성을 관찰하는 것이다.

병렬(coordination)은 복수의 언어 단위가 같은 자격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병렬에 의해 만들어진 병렬구성(coordination construction)은 어느 한쪽이 다른 것에 의존적이지 않은 대등한 관계를 이루며 이 결합에 의해 만들어진 전체 구성은 그 구성 요소들과 같은 유형에 속하는 통사적 구성이다. 전통적으로 병렬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다루어져 온 것이 내포인데 이는 결합하는 두 언어 단위가 대등하지 않고 하나가 다른 하나에 의존적이라는 점에서 병렬과 구별된다. 이전까지는 다양한 의미 관계 양상을 보이는 의존적 구성에 한국어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경향이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병렬구성은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하였다. 이로 인해 병렬구성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 연구는 드물고 병렬구성과 관련된 개별 어미나 조사에 대한 연구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면이 있었다. 이에 본고는 병렬구성의 통사, 의미, 화용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설명하는 데 힘썼다.

본고의 1장에서는 연구 대상과 방법, 선행 연구의 흐름을 다루었다.

본고의 2장에서는 병렬구성의 범위와 구성 요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병렬은 통사, 의미적으로 등위적인 항목들이 나열되고, 이들에 대한 다항 연결이 가능하며 무핵 구성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독자적이고 차별적인 언어 단위의 연결 원리이다. 병렬구성은 병렬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 형태적 병렬(병렬어), 통사적 병렬(병렬구성), 담화적 병렬(병렬적 텍스트) 중, 통사적 구성인 통사적 병렬

에 해당하며, 병렬항과 병렬표지로 구성된다. 이때 병렬항은 병렬되는 언어 단위로 통사원자 이상, 절 이하의 단위에 해당한다. 병렬표지는 병렬구성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어 복수의 병렬항을 매개하는 문법적 표지이다. 병렬구성의 의미 범위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역접을 병렬로 인정하지 않았다.

본고의 3장에서는 병렬구성의 통사적 성격을 다루면서 병렬조사와 병렬어미의 판별 기준을 제시하였다. 한국어 병렬구성에는 병렬표지로써 병렬조사, 병렬어미, 무표지가 병렬항의 문법범주에 따라 구별되어 사용된다.

본고의 4장에서는 병렬구성의 의미 기술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네 가지 의미자질(망라성, 적시성, 배타성, 선택지향성)을 제시하였다. 망라성은 문맥이나 상황상 주어진 가능한 집합의 개체들을 모두 포괄하여 언급하는 성질이다. 적시성은 바로 그것인가 아니면 그것과 유사한 종류의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된 성질이다. 배타성은 병렬항 간의 배타적 선택과 관련된 성질이다. 선택지향성은 청자에게 병렬항들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 선택 해석의 자유를 부여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와 관련된 자질이다. 망라성, 적시성, 배타성, 선택지향성의 높고 낮은 정도는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수단에 의해 병렬구성에 반영된다. 표지 위주의 접근 방식에 의해 예외적인 현상으로 처리되던 많은 사례들이 이러한 의미자질을 사용한 기술에서는 설명이 가능한 대상이 된다.

본고의 5장에서는 병렬구성 중 의미, 구조적으로 특수한 성격을 보이는 구성들을 다루었다. 교체 병렬구성, 되풀이 병렬구성, 아우름 병렬구성, 유사 병렬구성이 그것이다. 이들 중 일부 눈에 잘 띄는 구성은 선행 연구에서 개별적으로 다루어진 바 있으나, 문법 체계 내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임시적인 지위가 부여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구성들의 특수한 성격을 포착하되, 병렬구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고의 6장은 결론으로 논의를 요약하고 남은 문제를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이루어진 논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 논의와 차별되는 의의를 지닌다. 첫째, 현재까지 병렬구성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희소한 가운데 병렬구성의 성격을 다양한 층위에 걸쳐 구명하는 종합적 논의라는 점이다. 둘째, 최근의 유형론 논의에서 다루어진 세계 언어의 병렬구성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국어의 병렬

구성의 구조와 의미를 기술하였다. 셋째, 병렬구성의 사용과 관련한 언어 전략이 어떻게 언어 구조에 반영되는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병렬, 병렬구성, 병렬표지, 유사 병렬구성, 아우름 병렬구성, 되풀이 병렬구성, 교체 병렬구성, 망라성, 적시성, 배타성, 선택지향성

학번: 2008-30746

목 차

1. 서론 ········· 1
1.1. 연구의 목적 ········· 1
1.2. 연구 대상 및 방법 ········· 2
1.3. 연구사적 의의 ········· 6
1.4. 논의의 구성 ········· 8

2. 병렬구성에 대한 기본적 논의 ········· 10
2.1. 병렬이란 무엇인가 ········· 10
2.2. 병렬구성의 범위와 구조 ········· 24
2.2.1. 병렬구성의 범위와 구성 요소 ········· 24
2.2.1.1. 병렬구성의 범위 ········· 24
2.2.1.2. 병렬구성의 구성 요소 ········· 25
2.2.2. 병렬구성의 구조와 분류 ········· 30
2.3. 병렬구성의 의미 체계와 의미 범위 ········· 38
2.3.1. 병렬구성의 의미 체계 ········· 38
2.3.1.1. 논리적 의미 체계 ········· 39
2.3.1.2. 기술적 의미 체계 ········· 44
2.3.2. 병렬구성의 의미 범위 ········· 48
2.4. 용어의 정리 ········· 52
2.5. 요약 ········· 53

3. 병렬구성의 통사 ······ 55
3.1. 병렬항의 통사적 특성 ······ 55
3.2. 병렬표지의 통사적 특성 ······ 61
3.2.1. 병렬조사의 통사적 특성 ······ 61
3.2.1.1. 병렬조사의 연결 범주 ······ 61
3.2.1.2. 병렬조사의 범위 ······ 63
3.2.1.3. 병렬조사의 분포와 분류 ······ 76
3.2.2. 병렬어미의 통사적 특성 ······ 82
3.2.2.1. 병렬어미의 연결 단위 ······ 82
3.2.2.2. 병렬어미의 범위 ······ 85
3.2.3. 무표지 병렬구성 ······ 96
3.3. 요약 ······ 98

4. 병렬구성의 의미 ······ 100
4.1. 병렬구성 의미 기술의 방향 ······ 100
4.2. 병렬구성의 의미와 병렬표지 ······ 106
4.3. 병렬구성의 의미자질 ······ 116
4.3.1. 망라성과 적시성: 병렬항과 담화역의 관계 ······ 117
4.3.1.1. 망라성 ······ 117
4.3.1.2. 적시성 ······ 125
4.3.2. 배타성과 선택지향성: 병렬항 간의 선택 관계 ······ 131
4.3.2.1. 배타성 ······ 131
4.3.2.2. 선택지향성 ······ 134
4.4. 요약 ······ 140

5. 특수 병렬구성 ···· 142
5.1. 교체 병렬구성 ···· 144
5.2. 되풀이 병렬구성 ···· 147
5.3. 아우름 병렬구성 ···· 152
5.4. 유사 병렬구성 ···· 156
5.5. 요약 ···· 160

6. 결 론 ···· 162
6.1. 요약 ···· 162
6.2. 남은 문제 ···· 165

참 고 문 헌 ···· 166
<부 록> ···· 178
ABSTRACT ···· 193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본고의 목적은 한국어 병렬구성의 통사와 의미를 구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한국어 병렬구성이 다른 통사 구성과 구별되는 점을 명확히 하여 그 구조를 밝히고 둘째, 병렬구성의 의미 기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셋째,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다양한 종류의 병렬구성을 관찰하는 것이다.

병렬(coordination)은 복수의 언어 단위가 같은 자격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병렬에 의해 만들어진 병렬구성(coordination construction)은 어느 한쪽이 다른 것에 의존적이지 않은 관계를 이루며 이 결합에 의해 만들어진 전체 구성은 그 구성 요소들과 같은 유형에 속하는 통사적 구성이다. 전통적으로 병렬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다루어져 온 것이 내포(subordination)[1]이다. 결합하는 두 언어 단위가 대등하지 않고 하나가 다른 하나에 의존적인 것을 가리킨다. 복수의 언어 단위가 결합할 때 그 사이에 의존적인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사 구조이며 이는 우리가 핵(head)을 상정하고 통사 구조를 분석하는 근거이다. 그러나 병렬(coordination)은 그러한 의존적인 구성들과는 다른 성격을 보인다.[2] 이전까지는 다양한 의미 관계 양상을 보이는 의존적 구성에 한국어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경향이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병렬구성은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하였다. 이로 인해 병렬구성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 연구는 드물고 병렬구성과 관련된 개별 어미나 조사에 대한 연구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면이 있었다.

이에 본고는 한국어 병렬구성과 관련된 논의를 폭넓게 진행하면서 최근의 언어학

---

1) 기존에 종속을 'subordination'으로, 내포를 'embedding'으로 번역하기도 하였으나 이익섭(2003: 83)에서는 이를 두고 동일한 개념에 대해 다른 이름을 써온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2) 일찍이 Jackendoff(1977), 박진호(1994) 등 여러 논저에서 병렬구성이 일반적인 통사 구조의 핵을 상정하기 어려운 구성이라는 지적이 이루어져 온 바 있다.

적 연구 흐름과 새롭게 다루어지고 있는 병렬표지와 관련된 연구를 포괄·발전시켜 한국어 병렬구성의 위상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구명하고자 한다.

1.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고는 다음과 같은 예들을 중심으로 한국어 병렬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1) ㄱ. 사과와 배와 감을 먹었다.
ㄴ. 영희는 키가 크며 날씬하다.
ㄷ. 철수는 오늘 집에 갔고 영희는 내일 학교에 갈 것이다.
ㄹ. 추석에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를 뵙고 왔다.

(2) ㄱ. 녹차나 홍차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다.
ㄴ.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철수나 영수나 수영이가 1등이다.
ㄷ. 공부를 하든지 공장엘 나가든지 마음대로 해.
ㄹ. 승호는 엘지트윈스나 두산베어스의 팬이다.

(3) ㄱ. 몸이 으슬으슬 춥다가 후끈후끈 덥다가 한다.
ㄴ. 착하디 착한 영희
ㄷ. 아이들이 발을 구르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웠다.
ㄹ. 호암교수회관인지 어딘지는 왜 이리 찾기가 어렵냐?
ㅁ. 영희가 사과며 배며 감 등을 사들고 왔다.
ㅂ. 영희는 햄버거, 치킨, 피자 류를 좋아한다.

(1ㄱ)은 조사 '-와'에 의해 명사가 병렬된 구성이고 (1ㄴ)은 어미 '-며'에 의해 형용사가 병렬된 구성이다. (1ㄷ)은 어미 '-고'에 의해 절이 병렬되었다. (1ㄱ, 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병렬구성이라 할 수 있다. 한편, (1ㄹ)의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는 문법적인 표지 없이 병렬되는 항목만이 나열되어 있는데, 표지

는 없지만 이들 역시 병렬구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3)]

(2ㄱ)에서는 우리가 이접의 표지로 알고 있는 '-이나'가 사용되었지만, 연접의 의미로 해석되어 결국 '녹차'와 '홍차' 모두 '카페인'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2ㄴ)에서 '1등'은 '철수', '수영이', '영수' 중에 한 명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배타적인 의미는 같은 '-이나'가 사용된 (2ㄱ)의 연접적 의미와 대조된다. 한편 (2ㄷ)은 어미 '-든지'의 의미로 인해 선택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일 이 문장을 중학생 아들을 둔 엄마가 발화하였다고 할 때는 '공부를 하는 것'과 '공장에 나가는 것'이 세계에 대한 지식에 의해 동등한 선택지로 주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2ㄹ)에서 제시된 두 가지 선택지인 '엘지트윈스'나 '두산베어스'는 같은 잠실구장을 사용하는 팀으로 라이벌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두 팀을 모두 응원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러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2ㄹ)에 대해 반드시 배타적인 해석을 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병렬구성의 의미에 대한 접근은 다분히 병렬표지, 즉 조사나 어미의 의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2)의 예문들은 병렬표지의 의미만으로 병렬구성의 의미가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4)]

(3ㄱ)은 한 순간만을 놓고 볼 때는 추웠든지 더웠든지 둘 중 하나이지만, 일정한 시구간을 놓고 보았을 때는 으슬으슬 추웠던 것도 참이고 후끈후끈 더웠던 것도 참이 된다. 이러한 유형의 병렬구성은 시간적으로 입체적으로 해석된다. (3ㄴ)은 같은 용언을 되풀이하여 병렬시킨 유형의 병렬구성으로 한국어에서는 '-고', '-나', '-디' 등 여러 병렬표지가 관여하는데 특히 '-디'는 이 유형만을 위한 표지로 볼 수 있다. (3ㄷ)은 '발을 구르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결국 '난리를 피운' 것이 되므로, 맨 뒤에 있는 '난리를 피우다'의 의미가 앞의 병렬된 내용들을 아우르게 된다. 이러한 구성은 일상생활에서 꽤 자주 사용되는데, 이러한 구성 역시 병렬구성의 특수한 유형에 해당한다. (3ㄹ)은 마지막 병렬항에 부정(不定)표현이나 비하 표현과 같은 특정한 요소가 사용되는 병렬구성이다. 이처럼 그동안 주변적인 현상으로 외면 받았거나, 일정한 소속이 없이 산발적으로 다루어져 온 특수한 유형의 병렬구성들 역시 본

3) 병렬표지 및 병렬구성의 구조와 관련된 사항은 본고 2, 3장에 걸쳐 자세히 다룬다.
4)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본고 4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고의 관심 대상이다.[5]

(3ㅁ)의 문장을 "영희가 사과와 배와 감을 사들고 왔다"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영희'가 '사과, 배, 감' 외에도 '귤'을 더 들고 왔다면 (3ㅁ)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한편 (3ㅂ)의 문장이 참이라면, '영희'는 아마 다른 '패스트푸드'도 좋아할 것이다. 본고는 병렬구성과 관련된 이러한 표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다.[6]

본고의 연구 대상은 한국어 병렬구성의 의미, 구조, 사용으로, 그 관심을 조사나 어미 등 병렬표지에 한정시키지 않는다. 물론 한국어 병렬표지가 어떻게 분류되며, 각 부류의 특성이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지를 밝히는 데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더해 병렬구성이 전체 문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항목들을 '병렬' 시켜 발화할 때 발생하는 정보 전달의 망라성이나 적시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어떤 언어 전략에 의해 해결되는지 등을 포함한 병렬구성과 관련된 문제를 전반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병렬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 언어 단위는 단어부터 담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형태론의 단위인 단어, 담화 화용론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 역시 결합하는 언어 단위 사이에 병렬적인 관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병렬은 언어 체계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언어 단위의 확장 기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태적 병렬에 의한 병렬어/병렬어근, 통사적 병렬에 의한 병렬구성, 담화적 병렬에 의한 병렬적 텍스트가 모두 존재할 수 있다.

(4) 병렬어(형태적 병렬)

ㄱ. 한자어/어근: 춘하추동, 동서남북, 냉온, 강약, 주야

ㄴ. 고유어/어근: 밤낮, 논밭, 이래저래, 자나깨나, 들락날락, 울며불며

(5) 병렬구성(통사적 병렬)

ㄱ. 단어 병렬: 사과랑 배랑 감

ㄴ. 구 병렬: 영희의 사과와 철수의 배, 부부가 항상 사랑하고 서로를 아꼈었다.

---

5)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본고 5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6)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본고 4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ㄷ. 절 병렬: 영희는 어제 출발했고 철수는 내일 출발할 것이다.

(6) 병렬적 텍스트(담화적 병렬)

ㄱ. 철수는 부지런하다. 그리고 영수는 머리가 아주 좋다.

ㄴ. 사과는 가을에 수확한다. 또한 귤은 겨울에 수확한다.

위에 제시된 것들 중, 본고에서 관심을 가지는 ‘병렬구성’은 병렬적인 통사 구성에 해당한다. 형태적 병렬과 통사적 병렬, 담화적 병렬 사이에는 상이한 병렬표지와 전략을 사용하는 등의 상당한 이질성이 확인되는 바, 본고에서는 통사적 구성으로서의 병렬구성의 본질을 밝히는 데 집중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본고는 병렬구성의 성격에 대해 여러 층위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

첫째, 표면 구조를 중시하여 분석한다. 예를 들어 연구 대상이 되는 언어 단위가 단어와 단어의 조합이라면 이를 심층적으로는 절과 절의 조합으로부터 변형이나 삭제를 겪은 것으로 분석하기보다는 표면에 나타난 구조를 우선적으로 중시하여 분석하는 태도를 취할 것이다.

둘째, 화용론적인 사항을 통사·의미와 연관시켜 논의한다. 언어가 화자에 의해 발화되고 청자에 의해 수용되는 전 과정과 이와 관련된 상황을 모두 고려 대상으로 하는 화용론적 연구는 종종 통사·의미 연구와 분리되는 것처럼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통사 및 의미 구조, 발화 및 수용의 과정, 발화 맥락 이 세 가지는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병렬구성의 의미 기술과 관련하여 화자가 자신이 발화한 병렬구성에서 병렬된 항목들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가, 실세계의 관련된 모든 항목을 병렬구성에서 망라하여 제시하였는가와 관련된 것들은, 언어 구조에 반영되어 드러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셋째, 언어 현상의 정도성과 과도기성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되, 구분과 분류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즉 연구 대상에 해당하는 개체들이 일정한 기준에 대하여 정도성을 가지고 분포한다면 그러한 연속적 분포를 충분히 관찰하여 기술하되, 그렇

다고 이를 분절하고 분류할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한 범주의 전형성을 보이지 않는 주변적 개체들도 그것들이 가장 근접한 범주에 소속시키기로 한다.

1.3. 연구사적 의의

본고에서 이루어진 '병렬'과 '병렬구성'에 대한 통찰의 실마리는 이익섭(2003)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익섭(2003)에서는 그동안 접속의 하위 유형으로 제시되어 온 종속접속과 대등접속 중 종속접속을 부사절 내포문 쪽으로 옮겨 부사절의 위상을 재정립하였다. 그 결과 접속문으로는 대등접속만이 남게 되고, 그 이름도 '병렬문'으로 바뀌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유일한 절 접속에는 '병렬'만이 존재하게 된다. 이로써 이익섭(2003)에 의해 합성문(multiple sentence)의 형성 원리가, '병렬'과 '내포'로 간명화되었다. 그런데 이는 합성문뿐 아니라, 단어, 구 등 다양한 단위로 확대·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언어 단위의 결합 양상은 ① 중심이 되는 것과 주변이 되는 것이 만나 위계적 2분지 구조를 이루는 구성과 ② 같은 자격의 것들이 만나서 대등한 다분지 구조(최소 2분지, 상한 없음)를 이루는 것이 가능한 구성으로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는 지금까지 언어 구조에 핵을 상정하는 주류의 통사 이론에 의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데 비해 후자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병렬구성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임동훈(2009)이 있다. 임동훈(2009)에서는 병렬문이 한국어 연구에서 그동안 통사적으로 구별되는 구성으로서의 독자성을 인정받지 못해왔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병렬구성의 차별적 특성을 구명함으로써 병렬구성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병렬구성의 위상과 관련한 본고의 문제의식은 상당부분 임동훈(2009)에서 비롯된 것이다.

병렬구성과 관련된 통시적 연구로는 이현희(1994)와 서형국(2005)를 들 수 있다. 이현희(1994)는 병렬구성에 집중된 논의는 아니나, 중세국어 명사구의 성격과 관련하여 병렬적 성격을 지니는 나열 명사구와 접속 명사구를 다룬 부분을 주목할 만하다. 특히 명사구 뒤에 'ᄃᆞᇙ, 등(等), ᄯᆞ름, ᄲᅮᆫ'이 오는 현상과 관련된 이현희

(1994)의 기술은 본고에서 제시하는 병렬구성의 의미자질 중 '망라성' 관련 논의의 실마리가 되었으며, '아우름 명사구' 개념은 본고에서 제시한 특수병렬 중 '아우름 병렬'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다. 한편 서형국(2005)은 병렬구성을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병렬구성의 구조적 변화 양상을 기술하였다.

이 밖에도 그동안 한국어 병렬구성과 관련하여 절 접속을 중심으로 한 대등 접속 연구나 어미 '-고'나 조사 '와/과'와 같은 병렬표지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접속조사[7]와 접속어미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형태와 기능을 세밀하게 다룬 김진수(1987)와 대등 구성소에 대하여 기능적으로 접근한 이관규(1992) 등이 그것이다.

이 밖에 접속어미에 대한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일부 병렬어미를 다룬 논의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논의는 '-고'의 의미와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로는 한국어 접속어미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보여주는 윤평현(1989), 접속문의 시제와 관련하여 병렬적인 접속문의 특수한 양상을 지적한 최동주(1994), 문숙영(2009) 등이 있다.

접속어미에 대한 큰 관심에 비하여 조사나 부사와 관련된 연구나 병렬구성의 의미와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이규호(2006)에서는 계사 활용형에서 유래한 접속조사들을 새롭게 추가하여 접속조사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으며, 김선영(2003)에서는 접속부사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의미와 분포를 자세히 제시하고 있어 본고의 논의에 큰 보탬이 되었다.

병렬구성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연접보다는 이접과 관련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졌는데 최근 류병률(2009), 최윤지(2011)에서 각각 '이나'와 '인가'를 중심으로 하여 이접의 의미를 탐구하였다.

병렬구성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심도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들은 추가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다른 언어 현상이

7) 본고에서는 '병렬', '병렬표지'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만 연구사적 기술에서는 원저자의 용어를 존중하기로 한다. 용어의 문제와 관련된 본고의 입장은 본고 2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나 통사 구성과 비교할 때 양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연구 결과물이 적다. 또 병렬구성과 관련된 연구라고 해도 병렬표지로 사용되는 조사나 어미에 대한 연구에 그 역량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어 한국어 자료를 폭넓게 다룬 최근의 종합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현대국어 병렬구성과 관련하여 개별 조사나 어미에 대한 논의는 최근까지도 이루어진 바 있으나 종합적인 연구로는 김진수(1987), 이관규(1992) 이후의 논의를 찾기 어렵다. 이 밖에도 병렬구성이 실제로 전체 문장이나 발화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역시 병렬구성의 총체적인 특성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병렬구성과 관련된 해외의 논저는 크게 영어학 전통문법적 관점에서의 논의와 최근에 이루어진 유형론적 논의로 대별된다. 전자의 대표적 예로는 Huddleston & Pullum(2002, 2006), Quirk, Greenbaum & Leech(1985) 등이 있으며, 후자로는 Haspelmath(2004, 2007)가 대표적이라 할 만하다.

본고는 위에서 언급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최근의 언어학적 연구 흐름과 유형론적 성과를 반영하여 다양한 층위에 걸쳐 한국어 병렬구성의 위상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구명하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사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까지 병렬구성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희소한 가운데 병렬구성의 성격을 다양한 층위에 걸쳐 구명하는 종합적 논의라는 점이다. 둘째, 최근의 유형론 논의에서 이루어진 세계 언어의 병렬구성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국어의 병렬구성의 구조와 분류 체계에 대한 다각도의 기술을 꾀한다. 셋째 병렬구성의 사용과 관련한 언어 전략이 어떻게 언어 구조에 반영되는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다.

1.4. 논의의 구성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병렬', '병렬구성'이 무엇인가, 병렬구성의 범위와 구조는 어떠한가, 병렬구성의 의미 체계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중 병렬구성의 통사적, 구조적 문제와 관련된 진전된 논의는 3장으로, 의미적, 화용적 문제와 관련된 논의는 4장으로 연결된다. 3장에

서는 병렬구성의 구성 요소인 병렬항과 병렬표지의 분포와 통사적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병렬구성의 의미 기술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5장에서는 특수한 병렬구성의 유형들을 제시하고 살펴본다. 이어서 6장 결론에서는 논의를 마무리짓고 핵심을 요약하는 한편, 미처 해결하지 못한 쟁점들을 언급한다.

2. 병렬구성에 대한 기본적 논의

2.1. 병렬이란 무엇인가

언어 단위들을 결합하는 수많은 조합의 규칙과 그렇게 구성된 단위의 의미는 언어학의 주요한 연구대상이며 관점에 따라 그 양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제안되어 왔다. 복수의 언어 단위 사이의 관계를 대등한 관계와 의존적인 관계로 나누어 파악하려는 시도 역시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 단위의 병렬적 연결과 의존적[1)]연결에 가장 일찍부터 관심을 가진 것은 절 접속/내포를 연구한 학자들이었다. 그에 의하면 복문의 형성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병렬(coordination)’이고 또 하나는 ‘내포(subordination)’이다. 그러나 이 두 개념과 용어가 통사론에서 대칭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은 아니다. 병렬의 개념은 절 이하 단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내포는 일반적으로 절 단위의 결합만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어 온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예쁜 소녀’, ‘책상다리’에 대하여 ‘예쁜’이나 ‘책상’이 각각 ‘소녀’와 ‘다리’에 대해 의존적이라거나 이러한 구성에 대해 의존 명사(구)라고 부르거나 하지는 않는다. 반면 ‘부모’나 ‘손발’과 같은 단어에 대해서는 병렬적, 혹은 대등적이라거나 병렬(대등)합성어로 부르는 데 별 문제가 없다. 이러한 비대칭적 현상은 한국어 언어학계만의 특성은 아니다. Huddleton & Pullum(2006:198)와 Haspelmath(2007)에서도 내포(subordination)와는 달리 병렬(coordination)은 절뿐 아니라 그보다 작은 단위도 연결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2)]

1) 본고에서는 ‘병렬’과 대립되는 개념에 대한 용어로 ‘의존’을 사용한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의존’은 결합하는 복수의 언어 단위 사이의 관계가 대등하지 않고, 하나가 다른 하나에 대하여 통사·의미적으로 차별적인 자격을 가지는 것이다. 이는 ‘내포’나 ‘종속’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용어를 택하여 쓸 경우, 그 범위에 대한 오해가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내포’, ‘종속’ 논쟁과 관련하여 이익섭(2003)의 논의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익섭(2003) 논의 내에서는 ‘내포’ 용어가 ‘절’ 단위에 대해서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포괄적인 용어인 ‘의존’을 ‘병렬’의 대립 개념에 대한 용어로 택하여 쓰기로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의 내용을 다룰 때는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한 용어(종속, 내포 등)를 존중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념적 비대칭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병렬(대등), 의존(내포)의 개념을 언어 단위 전반의 결합을 설명하는 대칭적 원리로 받아들이려는 시도도 있었다. Matthews(1997: 360)에서는 'subordination'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다양한 단위의 의존적 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예를 들어 'long hair'와 같은 구성 역시 'subordination'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는 한국어 논의에서도 제기되었다. 권재일(1994: 27-39)에서 대등과 종속을 통사론적 기술 전반에 걸쳐 언어 단위의 연결을 설명하는 기제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론적 일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통사론에서 접속문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한 '종속'과 '대등'의 개념을 단어 접속이나 명사복합어 내부에서 명사 간 결합방식 등에도 확대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는 한 가지의 분류 기준으로 접속어미, 접속조사, 복합어와 관련한 접속현상을 일관되게 설명함으로써 문법기술의 타당성을 높이자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병렬적 연결과 의존적 연결의 개념을 절 차원이 아닌 것에 적용한 또 다른 한국어 연구로는 명사구 연결에 대한 김인균(2002)이 있다. 김인균(2002: 58-60)은 명사구 연결을 관형구성과 병렬구성으로 나눈다. 다만 김인균(2002)의 병렬구성의 범위는 본고에 비해 상당히 넓다. 관형 구성에는 첫 번째 접속항의 자리에 명사 대신 지시관형사나 용언의 관형사형이 나타나는 경우도 포함된다(그 소식, 하얀 손수건). 또 병렬구성에서는 접속조사에 의한 연결뿐만 아니라 부사, 의존명사, 동사 활용형에 의한 연결도 포함하고 있다(열 내지 스물, 국장 겸 과장, 사과 말고 배).

서형국(2005)에서는 한국어의 '복합 구성'을 그 구성 요소 간의 관계에 따라 '대등 구성'과 '의존 구성'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의존 구성은 복합 구성의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가 전체 구성의 문법적 성격을 결정해 주고 다른 구성 요소는 이 구성 요소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구성이다. 이와 달리 대등 구성은 문법적으로 대등한 지위를 갖는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복합 구성 전체의 문법적 속성은 그

---

2) 병렬에 의해 만들어진 구성이 종속에 의해 만들어진 구성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에, 병렬에 의해 만들어진 구성은 유표적으로 파악하고, 종속에 의해 만들어진 구성은 무표적인 것으로 파악한 것이, 일부 언어 단위의 연결 양상을 비대칭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구성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본 논의에서 다루는 병렬구성은 이처럼 병렬과 의존을 대칭적으로 파악한 위와 같은 인식의 연속선상에 있다. 그렇다면 병렬과 의존은 어떻게 구별되는 개념인가? 이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일관된 기준이 나와 있지는 않은 실정이며 그 정의에 따라 기준이 적용되고 병렬과 의존이 포괄할 수 있는 범위 역시 유동적인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경향이 충분히 반영된 논의는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병렬구성과 의존구성을 규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준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가장 먼저 제안된 기준은 연결되는 복수의 단위 사이의 형식/범주적 등위성 유무이다. 일반적으로 병렬은 같은 통사 범주에 속하는 구성 성분이 결합하고, 병렬에 의해 형성된 전체 구성은 그 구성 요소의 통사 범주와 동일한 범주에 속한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사적 동일성에 의거한 정의가 널리 알려진 만큼, 이에 대한 반례도 여러 차례 지적되어 온 바 있다. 다음의 예들은 통사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1) ㄱ. He is healthy and of sound mind. (AP, PP)
ㄴ. Jane said slowly and with great care. (Adv, PP)
ㄷ. They asked the time and where the bathroom was. (NP, S)

다만 위와 같은 문제는 한국어보다는 영어에서 더 현저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비문에 가깝다.

(2) ?지금 우리는 열정과 성실하게가 중요하다.

그렇다고 한국어에서 병렬항들의 품사가 같아야만 병렬구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들에서는 병렬표지로 연결된 병렬항들이 동일 범주의 통사적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없이 받아들여진다. 명사와 절, 형용사구와 동사구의 병렬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범주의 병렬이 제약 없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3) ㄱ. 영희는 참여 비용과 그 비용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를 질문했다.
ㄴ. 영희는 예쁘고 밥을 잘 먹는다.[3)]

병렬된 항목들 간의 형식적 등위성 문제를 기존의 품사 범주만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장 때문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문장은 어느 한 품사가 병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존의 문법에서 하나의 성분으로 파악해 온 단위도 아니다.

(4) ㄱ. [집에서 6시]나 [학교에서 4시]에 보자.
ㄴ. [철수가 떡을], [영수가 술을] 가져왔다.

이와 관련하여 통사적인 병렬 가능성을 기존의 품사 범주의 동일성에만 연관시키지 않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논저도 있다. Sag et. al.(1985)에서는 be동사 뒤에서는 명사구, 형용사구, 전치사구, 분사구가 올 수 있으며 이들을 하나의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이들은 명사가 아니지만 'be 동사 뒤'라는 환경에서 명사와 같이 행동하는 부류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외부적으로 동일한 분포를 보이는 부류의 차별성을 존중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국어의 병렬구성에 있어서, 병렬조사에 의한 병렬 가능 통사 범주는 명사(구)와 명사(구)상당어[4)]이다. 병렬어미에 의한 병렬 가능 통사 범주는 동사(구), 형용사(구), 절이다. 이 두 부류는 교차될 수 없다는 제약을 지닌다. 이렇게 규정할 경우, 한국어 병렬구성은 형식적 등위성을 갖추게 된다. 병렬조사에 의한 병렬구성은 병렬항이 명사(구)와 명사(구)상당어라는 조건을 충족했다는 점에서 등위적이어야 하며, 병렬어미에 의한 병렬구성은 그 병렬항이 동사(구)와 형용사(구), 절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했다는 점에서 등위적이어야 한다.

---

3) 이 문장의 경우에는 의미적 등위성이 병렬구성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뒤에서 의미적 기준과 관련하여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4) 병렬항의 범주 및 명사(구) 상당어와 관련된 더 자세한 논의는 본고의 3.2.1.1. 참조.

두 번째 기준은 의미적 등위성이다. 의미적 등위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병렬된 항목 간의 화용적 동질성이고, 나머지 하나는 서술어의 상적 등위성이다.

화용적 비동질성으로 인하여 성립하기 어려운 예는 다음과 같다.

(5) ㄱ. ?밥이 다 되었거나 휴대폰이 부서졌다.
ㄴ. ?국가 경제가 어렵고 곰인형이 예쁘다.

다음의 두 문장의 자연스러움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의미적인 등위성 중 서술어의 상적 등위성과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다.

(6) ㄱ. ?영희는 예쁘고 밥을 먹는다.
ㄴ. 영희는 예쁘고 밥을 잘 먹는다.

예쁜 것과 밥을 먹는 것은 전자는 속성이고 후자는 행위라는 점에서 의미적으로 대등하지 않지만, 예쁜 것과 '밥'을 '잘' 먹는 것은 모두 속성에 해당하므로 의미적인 등위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병렬항 간의 의미적 등위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논저에서 큰 이견이 없다. 오히려 문제는 병렬이 의미적으로만 구별되는 원리인가 하는 것이다. Yuasa & Sadock(2002)은 일본어 'te' 구성을 보이면서 의미적으로 등위적인데 통사적으로는 종속적이라고 하였다. 이는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관규(1992: 97-102)에서는 "대등문 구성의 필수적인 조건은 의미론적 인식에 따른 공통 의미 차원이며 통사론적 범주에 따른 동일 통사구조는 수의적인 조건이 된다"며 대등문 구성의 자연성 정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공통 의미 차원의 인식이 있을 경우, 동일 통사구조가 아니더라도 대등문 구성의 자연성 정도가 높은 데 비해(2순위), 동일 통사구조이더라도 공통 의미차원이 아닐 경우에는 대등문 구성의 자연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3순위).

[표 2-1] 대등문 구성의 자연성 정도(이관규 1992: 102)

순위	공통의미차원	동일통사구조
1	+	+
2	+	-
3	-	+
4	-	-

이 밖에도 기능적, 인지적 동일성을 병렬구성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다룬 논의들도 있으나[5] 대체로 병렬이 통사적으로 구별되는 구성을 만들어 내는가, 의미적으로만 규정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심적인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명사(구)접속에 대해서는 통사적 병렬의 존재에 큰 이견이 없는 듯하지만, 절 접속과 관련하여서는 그렇지 않다. 절 단위의 병렬을 포함하여 통사·의미적으로 구별되는 병렬구조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 논의로는 이익섭(2003), 임동훈(2009)이 있다. 한편 모든 절 접속이 통사적으로는 부가구조이나 의미론적으로는 대등과 종속으로 나뉜다는 주장으로는 고광주(1999), 유현경(2002), 이정훈(2008), 허철구(2005)가 대표적이다.

먼저 병렬이 통사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것이며 순수하게 의미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의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고광주(1999)에서는 의미적 대등접속문의 존재와는 별개로 통사적 대등접속문이 설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통사부와 의미부가 독립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 근거로는 교호성, 대칭성, 선행절의

5) 기능적 동일성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통사적 동일성이 범주적인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 있다는 논리가 등장하였다. Quirk et al(1985:945)에서는 병렬의 중요한 특성으로 병렬된 구성은 그 구성 요소들과 기능적으로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즉 명사구가 주어로 기능하고 있었다면 그 명사구를 구성 요소로 하여 구성된 병렬구성 역시 주어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인지적으로 병렬을 구별하는 논의도 있다. Croft(2001)에서는 병렬과 부사적 종속이 인지적으로 대등한 복합적 형상(complex figure)을 이루는가 형상-배경(Figure-Ground)을 이루는가에 따라 구별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항상 종속절과 주절이 형상-배경(Figure-Ground)인 것은 아니다. 그 반대인 경우도 있는데 박진호(2009)에서는 한국어 어미 '-면서'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적인 시간적 동시관계의 의미에서 종속절과 주절이 배경-형상(Ground-Figure)인 경우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철수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면도를 한다"와 같은 문장에서 형상(figure)이 종속절에, 배경(ground)이 주절에 표현되어 있다.

이동 가능성, 부정 및 시제의 영향권 등 기존에 대등 접속의 통사적 특성으로 언급되어온 기준들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하였다. 유현경(2002)에서도 선행절은 후행절에 필연적으로 의존적임을 들어 통사적으로 구별되는 대등접속구문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익섭(2003)과 임동훈(2009: 118-120)에서는 한국어에서 통사적으로 구별되는 동사구/절 병렬이 확실히 존재한다며 이를 병렬문으로 파악하였다. 두 논의의 근거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음과 같이 선·후행절의 시제가 독립적이거나 언표수반력이 상이한 문장이 존재한다.

(7) ㄱ. 딸들은 어제 갔고 우리는 내일 가
ㄴ. 여기야 늘 춥지만 거기는 어떻니?

둘째 동일한 술어를 반복하는 구성, 나열을 나타내는 '-도 -도' 와 같은 구성 등이 있다.

(8) ㄱ. 떫으나 떫은 감, 길고 긴 세월, 쌓이고 쌓여
ㄴ. 떡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다.

셋째 병렬어미가 선행항과 후행항에 모두 결합한 구성이 가능하다.

(9) ㄱ. 영희가 오거나 숙희가 오거나 했다.
ㄴ. 써보지도 않고 좋고 나쁘고를 어떻게 알아?

넷째 명사구 간의 병렬이 존재한다면 동사구나 절 사이의 병렬도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 이는 '병렬'이라는 언어 단위 결합 원리의 일반성을 중시한 기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이익섭(2003)과 임동훈(2009)의 이러한 입장에 동감하며[6] 'coordination'

에 해당하는 구성을 '병렬'로 '의존'과 구별하여 독립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구별은 명사구, 동사구, 절 등 특정 범주에 한정되어 적용되지 않으며 언어 단위 결합의 전반에 적용되는 원리이다. 따라서 '병렬'에 대응되는 것은 '의존(내포)'이며 복수의 언어 단위가 결합한 구성은 '병렬구성'과 '의존(내포)구성'으로 분류될 수 있다.7)

본고는 특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병렬은 통사적으로 구별되는 구성을 만들어 내는 원리라고 판단한다.

첫째, 병렬은 형식적·의미적으로 모두 등위적인 복수의 항목이 나열된 구조를 만들어 내는 언어 단위 연결의 원리이다. 형식적 등위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품사 범주

---

6) 다만 본고에서는 병렬적이지 않은 모든 구성을 내포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기로 한다. 이는 의존성(±dependancy)과 내포성(±embeded)을 분리하여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익섭(2003)에서는 한국어의 절과 절이 연결될 때는 그 관계가 병렬과 내포로 구별된다고 한 바 있다. 본고는 기본적으로 이에 기반하여 논의를 진행하되, 용어 면에서는 의존/내포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맥락에 따라 '병렬'에 상대되는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7) 의존과 내포를 구별하여 3분 체계를 세우려는 시도로는 Foley and van Valin(1984), Hopper & Traugott(1993) 등이 있다. Foley and van Valin(1984)에서는 절 연결을 다음과 같이 삼등분하였다.

ㄱ. coordination/ parataxis [−의존][−내포]
ㄴ. co−subordination/ hypotaxis [+의존][−내포]
ㄷ. subordination [+의존][+내포]

그러나 임동훈(2009)에서는 이것이 한국어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였다.

첫째, Foley and van Valin(1984)에서는 선·후행절이 구조적으로 대등하더라도 동일 주어나 시제 등이 생략되면 이를 의존병렬로 보고 병렬에서 제외하는데 동일 성분의 생략이 빈번한 한국어에서는 지나친 기준이다.
둘째, 병렬문의 핵심적 속성으로 선·후행절 간의 상이한 언표수반력을 들었는데 부동사형 언어인 한국어에는 잘 맞지 않는다.
셋째, 3분 체계는 문장 층위에 연결되는 부사절의 처리에서 혼란을 초래한다. 전형적인 병렬과 종속 사이에 중간적인 구성이 있을 수 있다면 문장 층위에 연결되는 부사절은 종속이기는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종속의 정도가 약하다고 할 터인데 이를 정도상의 차이로 보지 않고 새로운 연결방식으로 간주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
넷째, 한국어에서는 의존병렬에 해당하는 구성이 잘 찾아지지 않는다.

에 입각한 등위성이 아니라고 해서 형식적 등위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의미적 등위성과 관련하여 병렬된 항목 간의 화용적 동질성과 병렬항에 사용된 서술어의 상적 등위성이 요구된다.

둘째, 병렬에 의해 형성된 언어 구조는 위계적 2항 구조가 아니라 대등한 다항구조이다. 병렬항이 다항 구조를 만들어 낸다는 점은 김진수(1987), 이관규(1992), 임동훈(2009) 등 국내 논저뿐 아니라 Quirk et al(1985), Haspelmath(2004, 2007) 등 해외 논저에서도 수없이 지적되어 온 바 있다. Huddleston and Pullum(2006: 200-204)에서는 병렬항의 숫자에는 "통사적인 한계가 없다"고 하였다.

셋째, 병렬에 의해 형성된 언어 구조에는 핵을 상정할 수 없다. 이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병렬에 의해 형성된 언어 구조에 대하여 핵을 상정하는 논의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병렬구성에 대하여 핵을 상정하는 주요 논의들의 핵심 근거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병렬표지가 핵이라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격조사나 어미가 핵으로 처리되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병렬표지가 핵일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임동훈(2009)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병렬표지는 상위 구조의 통사 단위의 성격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핵이 상위 구조의 통사 단위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소라는 것은 핵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장은 핵의 정의를 재정립해야만 성립이 가능하다.

또 다른 주장은 병렬항 중 하나가 핵이라는 주장이다. 핵이 뒤에 오는 경향이 강한 한국어의 특성상 일반적으로는 후행항이 핵이라고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살펴본 병렬항 사이의 동일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핵을 설정하는 데는 두 구성 요소 사이의 위계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병렬구성의 경우 '하늘과 사람과 별과 땅'과 같은 다항 구성이 가능하고 이를 쉽게 2항으로 분절하거나 치환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일반적인 한국어 구조에서 뒤의 요소가 핵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 모든 구성에서 후행 요소를 핵으로 처리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한편 병렬에 대하여 핵을 상정하지 않는 논의로는 박진호(1994)와 임동훈(2009)

이 있다.

박진호(1994: 34)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0) '철수와 영희와 영수'처럼 셋 이상의 명사가 접속된 경우는 어떠한가? .... (중 략)... 화자가 어느 둘을 묶을 의도가 없었다면 그냥 3분지 구조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 즉, 대등접속 구조는 2분지 가설이 유보될 수 있는 유표적인 구문인 것이다.

박진호(1994)에서 2분지 가설에 대해 언급한 바에 의하면 통사단위들은 둘씩 결합하여 상위의 통사 단위를 형성하는데 이 때 두 단위가 위계적 관계를 맺게 되고, 이 중 분포의 결정 및 함수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중심적 요소가 핵이 된다. 병렬구성은 언제든지 대등한 자격의 2, 3, 4항 혹은 그 이상이 결합하여 위계 없이 확장될 수 있으며 위계적 2항 구성으로 치환될 수 없다. 이는 아무리 복잡한 구성일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분석하고 또 분석하여 결국에는 2항 구조로 치환될 수 있는 의존 구성과 다른 점이다.

위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1) 복수의 언어 단위가 연결된 구성의 내부 구조는 병렬과 의존의 관계로 파악될 수 있다. 병렬은 통사·의미적으로 등위적인 항목들이 나열되고, 이들에 대한 다항 연결이 가능하며 무핵 구성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독자적이고 차별적인 언어 단위의 연결 원리이다.

한편 병렬과 의존(내포)는 일정한 정도성의 개념으로 더 독립적인 구성과 더 의존적인 구성이 있을 뿐 이 둘을 구분짓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Haiman & Thompson 2011, Lehmann 1988). 이와 관련하여 절 연결을 대등절과 내포절로 2분하지 않고 그 이상의 분류를 시도하는 연구도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Foley & Van Valin(1984)에서는 병렬과 대립되는 개념은 '내포'가 아니라 '의존'이라고 하면서 이 의존관계를 내포 여부에 따라 더 세분하고 그 중 내포의 의존 관계

만을 종속으로 구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병렬과 의존의 정도가 모든 층위에서 같은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구성들이 동일한 기준에 의해 파악될 수 있는 대상인가 하는 의심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어에서 어미에 의한 병렬의 경우 그 구분이 그리 뚜렷하지 않아 보이기도 한다. 종속절이 문장 층위에 결합하면 독립된 문장인 것처럼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그 종속성의 정도가 약하게 느껴지고, 병렬된 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의 종결어미를 공유하는 이상 서법적인 제약을 공유하게 되어 서로 완전히 독립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일부 언어에서 절이 연결된 구성을 병렬로 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Van Valin and Lapolla(1987) 등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연결된 절은 필연적으로 후행절에 일정부분 의존적이게 된다. 예를 들어 일본어의 te절은 시제 표지가 붙지 않는다. 또 이익섭(2003: 157)에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며 이와 관련된 고민을 드러내고 있다.

(12) [의존] 이라는 자질의 성격을 엄격히 적용하면 언제나 문중형으로 끝나는 국어의 선행절은 운명적으로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국어의 문중형은 선어말어미에 의해 독자적인 시제나 서법을 가질 수는 있어도 독자적인 문장형을 가지기는 어렵다. 문중형이 의문문이 되거나 명령문의 형식을 취할 수는 없는 것이다....그렇다면 국어와 같은 언어는 아예 coordination의 범주가 없다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이익섭(2003)에서는 그렇지는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 절과 절이 결합한 의존적 구성과 비교할 때 절과 절이 결합한 병렬구성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지라도 병렬구성이 가지는 차별적 특성이 훨씬 더 크므로 이를 고려하여 병렬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한 처리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익섭(2003)에서는 위와 같은 경계적인 현상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문장들은 결국에는 병렬로 처리되어야 할 문장이라고 밝히며 병렬을 독립적인 영역으로 남겨놓았다.

(13) 이익섭(2003: 149)

ㄱ. 딸들은 어제 갔고 우리는 내일 가

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ㄷ. 우주의 끝은 어디이며, 삶의 끝은 어디인가?

ㄹ. 여기야 늘 춥지만, 거기는 어떻니?

ㅁ. 명호는 남아도 좋겠으나, 당신은 한시 바삐 떠나세요.

이익섭(2003)에서 천착한 위와 같은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한국어에서는 "언제나 문중형으로 끝나는 국어의 선행절은 운명적으로 의존적이기 때문"에 병렬과 의존의 개념적 구별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 때 특히 주목할 만한 유형론적 논의로 Longacre(1985, 2007)의 절 접속 유형론이 있다. Longacre(2007: 374-376, 398-420)에 의하면 (복합적인) 문장은 '동위 구조(co-ranking structure)'와 '연쇄 구조(chaning structure)'로 나눌 수 있다. 동위 구조는 주로 영어를 비롯한 현대 유럽어 계통에서 발견되는데 복수의 독립적인 동사들이 같은 수준에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독립적인 절의 병렬로 이루어진 문장을 쉽게 상정할 수 있다. 반면 연쇄 구조의 경우에는 동위 구조와 같이 복수의 동사가 한 문장에서 같은 지위로 연결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연쇄 구조의 경우 전체 문장에서 하나의 동사만이 상대적으로 더 지배적이고 완전한 구조(시제, 상 등의 표지와 관련하여)를 가지며 이에 선행하거나 후행하는 나머지 동사들은 제한적 구조를 보인다. 이 때 더 완전한 구조를 가지는 동사가 나머지 동사에 대해 선행하느냐 후행하느냐에 따라 '선행형 연쇄 구조(initial consecutive chaining structure)'와 '후행형 연쇄 구조(medial final chaining structure)'가 구별될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14) ㄱ. 동위 구조(co-ranking structure): 한 문장을 이루는 복수의 절에 나타나는 동사들이 접속사에 의해 독립적이고 동등한 구조를 유지한 채 연결될 수 있다. 대표적 예로 영어가 있다.

ㄴ. 연쇄 구조(chaining structure): 한 문장을 이루는 복수의 절에 나타나는 동사들이 독립적이고 동등한 구조를 유지한 채 연결될 수 없다. 대표적 예로 한국어, 일본어 등이 있다.

ㄴ-1. 문중 문말형 연쇄 구조(medial final chaining structure): 더 완전한 구조를 가지는 지배적 동사를 가진 절이 나머지 절에 대하여 후행한다.(주로 핵이 뒤에 오는 언어, SOV 형 언어에서 발견됨)

ㄴ-2. 문두 연속형 연쇄 구조(initial consecutive chaining strucure): 더 완전한 구조를 가지는 지배적 동사를 가진 절이 나머지 절에 대하여 선행한다.(주로 핵이 앞에 오는 언어, SVO 또는 VSO형 언어에서 발견됨)

위의 도식에 의하면 한국어는 후행형 연쇄 구조(medial final chaining structure)에 속한다. 한국어와 같은 유형에 속하는 언어들로는 파푸아뉴기니어, 콜롬비아어, 에콰도르어, 페루어, 이디오피아어, 터키어, 일본어 등이 있는데 이 언어들은 모두 동사로 끝나는 절 구조(verb final clause structures)를 가진다(Longacre 2007: 399).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어떤 언어에서 복수의 절이 대등하게 연결되느냐 내포적으로 연결되느냐를 구별하는 데 있어 한 절이 문법 요소가 제한적으로 표시되는 것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Longacre(2007: 376)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여 연쇄 구조를 가지는 언어의 경우 동위 구조를 가지는 인구어의 종속절-주절의 관계와 평행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의 지적은 임동훈(2009: 115)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Yuasa & Sadock(2002)에서 일본어 te-접속 구성이 통사적으로 종속적이라고 주장한 근거는 시제나 경어법 표지가 후행절에만 나타난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나 부동사형 언어에서 선행절 동사의 굴절이 후행절 동사의 굴절과 같지 않다는 점은 문제의 구성이 통사적으로 종속적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대목이다. 본고는 연쇄 구조를 가진 한국어의 경우, 동위 구조를 가지는 언어와 단순 비교하여 선행절이 후행절에 대하여 선어말어미나 어말어미를 빚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병렬과 내포의 개념적 구별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본다.

한편, Stassen(1985: 76-84)에서도, 두 사건이 언어로 표상될 때 사용되는 두 전략에 대해 언급하면서, 복수의 서술어가 독립적인 문말형으로 사용되는가의 여부와 두 절이 병렬되는가, 내포되는가는 별개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였다.

사실 이것은 한국어의 동사와 형용사를 단어로 볼 것인가 보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전통적으로 인구어 논의에서 단어를 최소의 자립 형식으로 규정해 왔는데, 이에 의하면 한국어의 동사와 형용사는 그 어간만으로는 단어가 될 수 없고, 반드시 어미가 붙어야만 자립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어미가 결합하는 형식을 단어가 아닌 것으로 볼 경우, 한국어 문법의 체계에 심각한 불균형이 생기게 되므로 우리는 당연하게도 동사와 형용사도 단어로 처리해왔을 뿐 아니라 심지어 조사마저도 단어로 처리해왔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단어의 기준 자체를 재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한국어의 문법 체계에 대한 타당한 기술을 꾀하는 방향이 모색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구어적 기준, 즉 복수의 절이 문법형태소를 공유하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한국어의 경우 절 병렬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게 될 경우, 한국어에는 다른 모든 언어 단위에는 병렬이 있지만 하필 절 병렬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한국어 병렬과 의존을 구별할 때 인구어의 기준에 의해 판별하고, 한국어 병렬 체계에 불균형이 발생하도록 둘 것인가, 아니면 한국어 병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별할 것인가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선택에 있어서는, 앞서 Longacre(1985) 등의 논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언어들은 다른 유형의 절 접속 방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절들 사이의 관계가 동일한 기준에 의해 파악될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병렬(coordination)'이란 무엇인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병렬은 복수의 언어 단위가 같은 자격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병렬에 의해 만들어진 '병렬구성(coordinate construction)'은 어느 한쪽이 다른 것에 의존적이지 않은 관계를 이루며 이 결합에 의해 만들어진 전체 구성은 그 구성 요소들과 같은 유형[8]에 속하는 통사적 구성이다. '병렬'은 통사·의미적으로 구별되는

8) 전체 구성과 그 구성 요소들이 동일한 유형에 속한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추후 보다 세밀한 논의가 이루어지 필요가 있다. Corbett(2000: 195-198)에서는 복수의 명사가 연결된 구성에서 일치의 문제에 대한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ㄱ. 가장 가까운 항목에 일치
ㄴ. 가장 먼, 처음의 항목에 일치
ㄷ. 연결된 모든 항목에 일치(resolution)

구성을 형성하는 원리로 '의존'과 함께 언어 단위 연결의 양대 원리에 해당한다.

2.2. 병렬구성의 범위와 구조

2.2.1. 병렬구성의 범위와 구성 요소

2.2.1.1. 병렬구성의 범위

병렬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 언어 단위는 단어부터 담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형태론의 단위인 단어나 담화·화용론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도 역시 결합하는 언어 단위 사이에 병렬적인 관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병렬은 언어 체계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언어 단위의 확장 기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태적 병렬에 의한 병렬어/병렬어근, 통사적 병렬에 의한 병렬구성, 담화적 병렬에 의한 병렬적 텍스트가 모두 존재할 수 있다.

(15) 병렬어(형태적 병렬)
ㄱ. 한자어/어근: 춘하추동, 동서남북, 냉온, 강약, 주야
ㄴ. 고유어/어근: 밤낮, 논밭, 이래저래, 자나깨나, 들락날락, 울며불며, 걷거니틀거니, 오다가다, 오면가면

(16) 병렬구성(통사적 병렬)
ㄱ. 단어 병렬: 사과랑 배랑 감
ㄴ. 구 병렬: 영희의 사과와 철수의 배; 부부가 항상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었다.
ㄷ. 절 병렬: 영희는 어제 출발했고 철수는 내일 출발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병렬에 의해 만들어진 전체 구성이 그 구성 요소의 유형과 완전히 같을 수 없다는 점과 관계되는 것이다. 병렬구성과 그 구성 요소인 병렬항의 관계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할 경우 '동일한 유형'과 관련된 정의가 수정될 여지가 있다.

(17) 병렬적 텍스트(담화적 병렬)

ㄱ. 철수는 부지런하다. 그리고 영수는 머리가 아주 좋다.

ㄴ. 사과는 가을에 수확한다. 또한 귤은 겨울에 수확한다.

위에 제시된 것들 중, 본고에서 관심을 가지는 '병렬구성'은 병렬적인 통사 구성에 해당한다. 최근의 일부 논의들은 형태론과 통사론, 담화·화용론의 영역이 지금까지 알려져 온 것만큼 완전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예를 들어 형태론의 단어 형성 기제와 통사론의 통사 원리가 일부 통하는 예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층위의 구별을 무효화할 수 있을 만큼의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병렬의 경우에는 상이한 병렬표지와 전략을[9] 사용하는 등의 상당한 이질성이 확인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통사론적 구성으로서의 병렬구성의 본질을 밝히는 데 집중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2.1.2. 병렬구성의 구성 요소

병렬구성의 구성 요소에는 병렬항과 병렬표지가 해당된다. 통사적 구성으로서의 병렬구성에서 병렬항은 통사원자 이상, 절 이하의 단위에 해당한다. 병렬항이 통사원자보다 작은 단위일 때는 병렬구성이 아니라 형태적 병렬(혹은 병렬어)에 해당하며 절[10]보다 큰 단위인 경우에는 담화적 병렬(혹은 병렬적 텍스트)에 해당한다.

한편 병렬구성의 또 다른 구성 요소인 병렬표지는 병렬의 '문법적 표지'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와/과'와 같은 조사류, '-고, -며' 와 같은 어미류가 해당된다. 병렬표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소 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구성들에 사용된 부사류이다.

9) 형태론적 병렬표지로 형태적 표지를, 통사론적 병렬표지로는 통사적 표지인 조사와 어미를, 담화적 병렬표지로는 부사 등 어휘 요소를 주로 사용한다.

10) 이은경(2000)에서는 종결어미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절', 종결어미가 실현된 것을 '문장'으로 구별하였는데 본고에서도 이를 따르기로 한다.

(18) ㄱ. 사과 또는 감 또는 배 또는 귤
ㄴ. 한식 그리고 일식 그리고 양식

본고에서는 이들이 '병렬어미'와 '병렬조사'와는 구별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병렬표지'에서는 제외하여 다루기로 한다.11)

첫째, 이들은 다음과 같이 병렬조사나 병렬어미와 동시에 출현할 수 있다.

(19) ㄱ. 사과하고 그리고 또 감하고 그리고 또 배
ㄴ. 사과나 또는 감이나 또는 배
(20) ㄱ. 철수는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 성격이 좋다.
ㄴ. 철수가 오거나 혹은 영수가 온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병렬구성에는 복수의 병렬표지가 동시에 출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를 심화하면 병렬항 사이에 출현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표지로 인정하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더 이상 우리는 '표지'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둘째, '그리고, 더구나' 등 일부 부사는 병렬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들을 병렬표지로 인정할 경우 병렬표지가 병렬항 안으로 들어가는 현상을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21) ㄱ. 철수가 술을 가져왔고 영수도 그리고 떡을 가져왔다.
ㄴ. 철수가 키가 크고 얼굴이 더구나 잘생겼다.

셋째, 병렬구성의 구조상, 병렬표지의 범위를 문법적 요소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사들 중 일부는 다른 어휘 요소들에 비해 병렬의 의미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병렬조사'나 '병렬어미'가 가지는 문법 표지로서의 성격과는 먼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중시하여 이 부사류를 병렬표지 범주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러나 일부 한정된 목록의 부사들의 경우 문법적 요소와 어휘적 요소의 경계적인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들이 '문법적 요소'인가 '어휘적 요소'인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사들에 대한 세밀한 논의가 필요한데, 본고에서는 이를 미처 다루지 못하고 과제로 남겨 놓았다.

사실, 병렬구성에서 병렬항들 사이에 출현할 수 있는 요소들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우리가 '병렬표지'의 범위를 정한다면 대체로 (22)에 제시된 유형의 위에서부터 그 범위에 포함시키게 될 것이다.

(22) ㄱ. 문법적 요소: (예) 사과랑 감이랑, 잘 자고 잘 먹고
ㄴ. 음운적 요소: (예) 사과, 배, 감
ㄷ. 어휘적 요소: (예) 사과 또는 감, 잘 자고 그리고 잘 먹고
ㄹ. 우언적 요소: (예) 사과에 더하여 감, 사과뿐 아니라 감
ㅁ. ∅ : (예) 바보멍청이

문법적 요소에 해당하는 병렬조사와 병렬어미는 다음의 두 구성을 이룬다.

(23) ㄱ. [[Aco] [Bco]][12)]
ㄴ. [[Aco] [B]]

반면 나머지 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조적인 차이를 보인다.

첫째, 모든 병렬항에 병렬표지가 표시된, 즉, 병렬항 간의 대칭성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Aco] [Bco]]구성에 전혀 참여하지 못한다. '사과 또는 감 또는'이나, '사과에 더하여 감에 더하여'를 적절한 병렬구성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음운적 요소에 해당하는 '휴지(pause)'도 예외가 아니다. '사과(휴지) 배(휴지) 감을 먹었다' 라고는 하지만 '사과(휴지) 배(휴지) 감(휴지) 을 먹었다'라고는 하지 않는다.

둘째로, 조사상당어에 해당하는 우언적 요소를 제외하면 이들은 [[Aco] [B]] 구성에도 참여하지 못한다. 병렬항 사이에 분포 가능한 음운, 어휘요소 모두 [[A] [x] [B]]와 같은 구조를 이루는 것이다.

위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병렬항 사이에 분포 가능한 여러 요소 중, 문법적 요소에 해당하는 조사와 어미가 이루는 구조와, 다른 요소들이 이루는 구조에는 차이가 있다. 우리가 결정해야 할 문제가 병렬항 사이에 분포 가능한 요소들 중 어디까

12) 'co'는 병렬표지를 가리킨다.

지를 병렬표지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라면, 구조적 차이를 보이는 지점에서 그 분류 경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병렬표지는 병렬구성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어 복수의 병렬항을 매개하는 문법적 표지이다. 그런데 '또는', '그리고', '더구나' 등과 같은 어휘 항목들은 분명히 병렬 의미를 보충하여 더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그것의 어휘적 의미에 이끌린 것으로 병렬구성의 표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들의 분포를 고려할 때 병렬표지로 인정하기 더욱 어렵다. 통사적 구성으로서의 한국어 양태 구성을 다룬 박재연(2006)에서도[13] 한국어에서 어휘적 요소로 나타나는 양태 요소를 통사적 구성으로서의 양태 구성과 구별하여 다루고 있다. 본고는 통사적 구성으로서의 병렬구성에 대한 논의 역시 병렬구성의 의미에 관여하는 어휘적 요소의 경우, 병렬구성의 의미 기술과 관련하여서는 관심을 기울이되 병렬구성의 구조 분석과 관련하여서는 문법적 병렬표지와 구별하여 다룬다는 입장이다.

한편, 다음과 같은 반복 구성들도 모두 병렬표지가 사용된 구성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병렬표지가 사용된 구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4) ㄱ. [사과도, 배도, 감도, 귤도] 다 맛있다.
ㄴ. [먹고 싶어도, 자고 싶어도, 앓아 눕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위의 예문들에 나타나는 '-도'와 같은 요소를 쉽게 모두 병렬표지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위의 '-도'[14]는 복수의 병렬항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

13) 박재연(2006: 14-15)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나타나는 '아마도'나 '기어이', '틀림없다', '명령하다'와 같은 어휘 요소들의 의미가 양태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문법 요소의 양태 의미와 어휘 요소의 양태 의미는 그것이 양태와 연관을 맺는다 하더라도 따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ㄱ. 아마도 그는 죽었을 것이다.
ㄴ. 그는 기어이 떠나려 한다.
ㄷ. 그는 죽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ㄹ. 나는 너에게 당장 떠나라고 명령한다.

다. 대표적인 병렬표지에 해당하는 '-와'와 비교할 때 '-와'는 반드시 복수의 병렬항을 요구하고 그 병렬항들을 매개하여 병렬구성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지만 위의 '-도'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26ㄱ)은 '사과, 배, 감, 귤'이 병렬될 때 각각의 항에 붙어서 병렬항의 일부가 된 요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의 '-도'와 같은 요소는 병렬표지가 아니라 병렬항의 일부분이며, 위와 같은 구성들은 무표지 병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5)

따라서 본고에서는 병렬표지를 병렬구성에 사용되어 복수의 병렬항을 매개하는 문법적 표지에 한정하기로 한다. 본고에서 다룰 병렬표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16) 목록 선정의 기준과 선정 과정은 3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25) ㄱ. 병렬조사: -와/과, -이랑, -하고, -에, -에다, -에다가, -이네, -이니, -이다, -이라든가, -이라든지, -이야, -이요, -이자, -하며, -이고, -이나, -이며, -이건, -이든가, -이든지, -인지, -인가
ㄴ. 병렬어미: -고, -며, -면서, -든, -든지, -건, -거나, -거니, -다가, -ㄹ락, -느니, -니, -나

다만 '및', '겸' 과 같이 문법화의 가능성이 있는 접속부사나 의존명사의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들은 선행하는 요소와 하나의 음운론적 단위처럼 발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이끌린 일부 언어 사용자들이 띄어쓰기에서 앞 단위에 붙여 쓰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는 점에서(반대로 후행 요소에 붙여 쓴다거나 후행 요소에 붙여 발음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조사와 유사하게 인식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병렬표지와의 중복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병렬표지로 볼 여지가 있는 경계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

14) 보조사 '-도'와 구별되는 병렬조사 '-도'가 존재하는가와 관련된 논의는 본고 3.2 참조.
15)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3.2.1.2.의 '병렬조사와 보조사' 부분 참조.
16) 제시한 목록에 해당하는 문법 표지들 각각이 가진 모든 용법이 병렬과 관계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문법 형태는 1형태 1기능이 아니라 1형태 다기능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고'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어미와 관련된 논의들에서 자세히 언급된 바 있다. 박형진(2008) 참조.

위의 논의를 정리하면 통사적 병렬구성에서 병렬항과 병렬표지의 정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26) ㄱ. 병렬항: 병렬되는 언어 단위. 통사 원자 이상, 절 이하의 단위에 해당한다.
ㄴ. 병렬표지: 병렬구성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어 복수의 병렬항을 매개하는 문법적 표지

2.2.2. 병렬구성의 구조와 분류

병렬구성은 범언어적으로 존재하는 구성으로 출현하는 구조들 역시 매우 다양하다. Haspelmath(2004: 4-5), Huddleton & Pullum(2006: 200-204)에서는 범언어적으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병렬구성의 구조에 대해 기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언어 유형론적으로 병렬구성의 구조적 성격을 구명하는 데 사용되는 분류 기준들을 검토하고 이들이 한국어 병렬구성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판별해보기로 한다. 우선 병렬구성과 관련된 유형론적 연구에서 제시된 병렬구성의 구조적 분류 기준들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7) ㄱ. 병렬표지의 유무에 따라
· 병렬표지가 나타나는 구성(syndetic)
· 병렬표지가 나타나지 않는 구성(asyndetic)
ㄴ. 최종 병렬항의 병렬표지의 유무에 따라
· 병렬항의 개수보다 병렬표지가 하나 적은 구성: 대체로 맨 마지막 항에 병렬표지가 붙지 않는다(monosyndetic)
· 모든 병렬항에 병렬표지가 붙는 구성(bisyndetic)
ㄷ. 병렬표지의 위치에 따라
· 병렬표지가 병렬항에 대하여 전치되는 구성(prepositive)
· 병렬표지가 병렬항에 대해 후치되는 구성(postpositive)
ㄹ. 병렬표지의 개수에 따라

· 병렬표지가 한 번만 나타나는 구성(simple syndetic)
  예) A, B, C and D
· 병렬표지가 여러 번 나타나는 구성(poly syndetic)
  예) A and B and C and D

병렬표지의 유무 기준은 한국어 병렬구성의 유표지 구성, 무표지 구성을 구별하는 데 유용하다. 유표지 구성과 무표지 구성은 실세계에서 병렬항 간의 관계가 긴밀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과 관련이 될 때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Wälchli(2005)에서는 '자연적 병렬(natural coordination)'과 '우연적 병렬(accidental coordination)'을 구분하고 긴밀한 접속의 경우 명시적인 형식적 수단을 사용하기보다는(즉 병렬표지를 넣기보다는) 단순한 병치(juxtaposition)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종종 병렬합성어(coordinate compounds)로 다루어진다고 하였다. 한국어의 경우에도, '엄마아빠', 혹은 '아빠엄마', '할아버지할머니/할머니할아버지'는 잘 되는 데 반해 '엄마삼촌'이나 '휴대폰독서대'와 같이 실세계에서 병렬항 간의 긴밀성이 다소 떨어질 경우에는 무표지 병렬구성이 잘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법적 병렬표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휴지가 개입되거나, 다른 어휘적 요소가 병렬항 사이에 개재될 경우에는 반드시 위와 같은 양상을 띠는 것은 아니다. '엄마, 삼촌', '휴대폰, 독서대'와 같이 휴지가 개입되거나 '엄마, 그리고 삼촌', '휴대폰 및 독서대'와 같이 문법적 병렬표지가 없더라도 휴지나 어휘 요소에 의해 병렬항이 분리된 구성과 그렇지 않고 연속적으로 병치되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구성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무표지 병렬구성을 분리구성과 비분리구성으로 구별하여 다루게 될 것이다.

한편 마지막 병렬항에 대한 병렬표지 유무와 관계된 기준은 중세국어 연구에서 병렬과 집단곡용 현상과 관련하여 주목받은 바 있다. 다음은 병렬표지 '-과'가 사용된 중세 국어의 문장이다. 중세국어에서는 '-와/과'가 최종 병렬항에 결합된 용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8) ㄱ. 人 非人은 사ᄅᆞᆷ과 사ᄅᆞᆷ 아닌 것과 ᄒᆞᄂᆞᆫ 마리니 (월인석보9, 5b)

ㄴ. 입시울와 혀와 입과 니왜 다 됴ᄒᆞ며 (석보상절19, 7a)
ㄷ. 부텨와 즁과ᄅᆞᆯ 請ᄒᆞᅀᆞᄫᆞ려 ᄒᆞᄫᆞᆼ다 (석보상절6, 16b)

그런데 현대국어에서의 '-와/과'는 중세국어와는 달리 마지막 병렬항에 붙는 것에 강한 제약이 있다. 사람에 따라 이를 부분적으로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의견이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아주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29) ㄱ. ?/*철수가 책과 공책과를 가져왔다.
ㄴ. ?/*밥과 반찬과가 맛있다.
ㄷ. ?/*산과 들과 강과 바다와로 놀러 다녔다.

위와 같은 특성이 주목받으면서 병렬구성에 관심을 가진 선행 논의들 중 다수가 최종 병렬항에 병렬표지가 붙을 수 있는지 여부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이 기준에 따라 병렬표지나 접속 부사류 등을 분류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관규(1992: 73-79)에서 최종 병렬항에 붙을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접속조사와 부사를 Ⅰ형과 Ⅱ형으로 나눈 것이다.

(30) 이관규(1992)의 접속조사와 접속부사 유형
ㄱ. Ⅰ형 - 후접 가능한 유형: 와, 하고 이랑, 이고, 이며, 이니, 고 , 으며 으니, 이거나, 이든지, 이나, 거나, 든지, 으나
ㄴ. Ⅱ형 - 후접이 불가능한 유형: 또 그리고, 또는, 혹은

한편 김진수(1987: 36)에서는 접속조사가 최종 병렬항에 붙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과 관련하여 이른바 '반복적 접속'의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와'의 경우에는 최종 병렬항에 붙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와, 와>와 <와, NIL[17]>을 모두 목록에 넣었다. 한편 <이다, 이다>의 경우에는 <이다, NIL>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반복적 접속조사의 목록에 넣지 않은 것으

17) NIL은 접속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로 보인다. 이는 이관규(1992)보다 더욱 치밀한 자료 분석에 기반한 목록 제시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기술하거나 분류 체계를 세우지는 않고 있다.

(31) 김진수(1987)의 반복적 접속조사

<와, 와>, <하고, 하고>, <이나, 이나>, <이니, 이니>, <에(다가), NIL>, <이며, 이며>, <이다, 이다>, <이건, 이건>, <이고, 이고>, <이랑, 이랑>, <와, NIL>, <하고, NIL>, <이며, NIL>, <이니, NIL>, <이나, NIL>, <?이건, NIL>, <?이고, NIL>, <?이랑, NIL>

위의 논의들을 참조할 때 병렬표지의 최종항 표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추가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최종 병렬항에 병렬표지가 표시되는 것이 필수적인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구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아래의 (32ㄱ)의 경우에는 최종 병렬항에 대한 병렬표지의 부착이 필수적이지 않지만 (32ㄴ, ㄷ)의 경우에는 필수적이다.

(32) ㄱ. 밥이랑 떡이랑 국이랑 배부르게 먹었다/ 밥이랑 국이랑 떡을 배부르게 먹었다.

ㄴ. 밥이건 떡이건 배부르게 먹었다/ *밥이건 떡을 배부르게 먹었다.

ㄷ. 밥이다 떡이다 배부르게 먹었다/ *밥이다 떡을 배부르게 먹었다.

둘째로는 최종 병렬항에 병렬표지가 표시된 표지 구성과 최종 병렬항에 병렬표지가 표시되지 않은 최종항 무표지 구성을 모두 허용하는 병렬표지의 경우 그 의미가 똑같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즉 같은 병렬표지를 사용하더라도 병렬구성의 구조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고'의 경우에는 최종항에 대한 표시여부가 그 구성의 의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이나'의 경우 최종항 무표지 구성인 '사장이나 직원'의 경우 대체로 배타적 이접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반면, '사장이나 직원이나'의 경우에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33) ㄱ. 밥하고 떡하고 국하고 먹었다. / 밥하고 떡하고 국을 먹었다.

ㄴ. 사장이나 직원/ 사장이나 직원이나

셋째, '-에', '-에다가', '-에'와 같은 표지들의 문제이다. '-에, -에다, -에다가'는 다음과 같이 최종 병렬항에 반드시 병렬표지가 붙을 필요는 없지만, 최종 병렬항에 표지가 없을 경우 '-까지'와 같은 요소를 필요로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다소 어색한 느낌을 준다.

(34) ㄱ. 철수가 사과에 배에 감에 바리바리 싸들고 왔다.

ㄴ. 철수가 사과에 배에 감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왔다.

ㄷ. ?철수가 사과에 배에 감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다.

위를 고려할 때 병렬표지는 단순히 최종항 표지가 가능한 표지와 그렇지 않은 표지로 2분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체계로 세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35ㄱ)에는 현대국어의 '-와'가, (35ㄴ-1)에는 '-하고', (35ㄴ-2)에는 '-이나', (35ㄷ)에는 '-이건'이, (35ㄹ)에는 '-에' 가 대표적 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목록과 관련된 세부적 논의는 병렬표지와 관련된 3장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35) ㄱ. 최종항 무표지 구성에만 참여하는 병렬표지

ㄴ. 최종항 무표지 구성과 전항 표지 구성 모두에 참여하는 병렬표지

ㄴ-1: 두 구성의 의미가 동일한 병렬표지

ㄴ-2 : 두 구성의 의미가 다른 병렬표지

ㄷ. 전항 표지 구성에만 참여하는 병렬표지

ㄹ. 상관적 표지 구성에 참여하는 병렬표지

한편 병렬표지가 병렬항에 대하여 전치하는가 후치하는가와 관련된 기준을 활용한 Haspelmath(2004: 6-10)의 유형론적 분류에 의하면 한국어는 '[A co] [B]' 의 병렬표지 후치 유형에 속한다. Haspelmath(2004: 6-10)에 의하면 그 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다. 빈도는 위에서 아래 순으로 낮아진다고 한다.

(36) 병렬표지의 위치에 따른 구조 분석

ㄱ. [A] [co B]

예) 영어

ㄴ. [A co] [B]

예) 한국어

ㄷ. [A] [B co]

예) 라틴어

ㄹ. [co A] [B]

예) 아직 밝혀진 바 없음

Stassen(2000)에서는 병렬표지의 배열이 그 언어의 다른 어순 패턴과 관계가 있다면서 문말동사 언어(Verb Final Language)의 경우에는 병렬표지가 병렬항에 후치하고 문두동사 언어(Verb initial Language)의 경우에는 병렬표지가 병렬항에 전치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병렬표지의 개수와 관련된 유형론적 분류와 관련된 한국어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영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종류의 병렬구성을 만들 수 있으며 그 의미에도 큰 차이가 없다. 아래의 (37ㄱ)은 병렬표지가 한 번만 나타나는 구성(simple syndetic), (39ㄴ)은 병렬표지가 여러 번 나타나는 구성(poly syndetic)으로 분류될 수 있다.

(37) ㄱ. Tom, Jane, Suji and Janet

ㄴ. Tom and Jane and Suji and Janet

그런데 한국어의 경우에는 병렬표지가 한 번만 나타나는 구성과 여러 번 나타나는 구성의 양상이 영어와는 다르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38) ㄱ. 할머니와 아버지, 삼촌은 다른 집에 살고 계신다.

ㄴ. 감, 귤, 사과하고 배를 상자에 나눠 담아 오세요.
ㄷ. 소설, 시, 시나리오나 기행문

위의 문장들은 중의적이다. (38ㄱ)의 경우에는 할머니, 아버지, 삼촌의 거주지가 묶이는 양상이 다음과 같을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

(39) ㄱ. 할머니/ 아버지/ 삼촌
ㄴ. 할머니, 아버지/ 삼촌
ㄷ. 할머니/ 아버지, 삼촌

(38ㄴ)의 경우 상자마다 담기게 될 과일의 종류의 가능한 양상은 다음과 같다.

(40) ㄱ. 감, 귤, 사과/ 배
ㄴ. 감/귤/사과/배
ㄷ. 감/귤/사과, 배

(38ㄷ)의 경우에는 가리키는 대상이 다음 중 어느 것인지 확정하기 어렵다.

(41) ㄱ. {소설, 시, 시나리오, 기행문} 중 한 가지
ㄴ. {소설, 시, 시나리오}와 기행문 중 한 가지
ㄷ. {소설, 시}와 {{시나리오, 기행문} 중 한 가지}
ㄹ. {소설, 시, 시나리오, 기행문}

한국어에서는 병렬표지가 병렬항마다 표시되지 않을 경우(최종 병렬항은 예외), 병렬표지의 의미적 영향권이 확정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 경우 폭넓은 중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고, 그 해석에 어떠한 통사·의미적 규칙성을 규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위와 같은 표현이 화, 청자 사이의 언어 외적 정보에 의해 상황에 맞게 해석되어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는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사용되기도 하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한국어 병렬구성의 구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병렬항과 병렬표지의 출현 및 조합 양상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병렬구성은 다음과 같다.

(42) 병렬구성의 구조

ㄱ. [X1 co X2 co... Xn co]

예) 먹고 놀고 자고/ 떡이며 술이며 과일이며

ㄴ. [X1 co X2 (co... Xn)]

예) 착하며 예쁘다/ 책과 공책과 연필

ㄷ. [X1, X2, X3, ...Xn]

예) 사과, 배, 감, 딸기/ 사과 또는 배 또는 감 또는 딸기/ 빠르게 빠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ㄹ. [X1X2...Xn]

예) 시어머니 시아버지, 형제 자매, 바보 멍청이 똥개, 눈 코 입

위의 (42ㄱ)은 모든 병렬항에 병렬표지가 붙은 구성이다. 반면(42ㄴ)은 마지막 병렬항에는 병렬표지가 붙어 있지 않다. (42ㄷ)과 (42ㄹ)은 병렬표지가 아예 나타나지 않은 채로 병렬항만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 방식은 다소 다르다. (42ㄷ)의 경우에는 병렬항이 휴지, 또는 다른 어휘 요소에 의해 분리되어 제시된 반면, (42ㄹ)은 비분리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마치 병렬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나 단어로 보기는 어렵다. 병렬어와 병렬구성의 경계적 구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한국어 병렬구성의 구조를 분류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3) ㄱ. 통사론적 유표지 구성

① 전항 표지 구성: [X1 co X2 co... Xn co]

예) 먹고 놀고 자고/ 떡이며 술이며 과일이며

② 최종항 무표지 구성: [X1 co X2 (co... Xn)]

예) 착하며 예쁘다/ 책과 공책과 연필

ㄴ. 통사론적 무표지 구성

① 분리 구성: [X1, X2...Xn] – 병렬표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병렬표지의

자리에 휴지나 부사 등 다른 요소가 개재됨.

예) 사과, 배, 감, 딸기/ 사과 또는 배 또는 감 또는 딸기

② 비분리 구성: [X1X2...Xn] - 형태적 구성과 경계적인 영역에 있음.

예)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바보 멍청이

2.3. 병렬구성의 의미 체계와 의미 범위

2.3.1. 병렬구성의 의미 체계

병렬구성의 의미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 것은 병렬구성의 범위와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기존에 병렬구성의 의미 체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것은 아니나 그 연구 경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논리학에서 이루어진 연접/이접의 대분류 체계를 차용하여 병렬구성의 의미 관계 체계를 세우는 방식(이하 '논리적 의미 체계')이다. 지금까지 병렬구성에도 관심을 보여 온 대부분의 논저가 이에 속한다. 이는 하향적, 연역적 방식에 해당한다. 둘째는 논리학적 분류 체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병렬표지의 의미기능에 따라 세분화하여 기술하는 방식(이하 '기술적 의미 체계')이다. 최근 언어 형식 하나하나에 대한 세밀한 기술을 목표로 하는 문법(fine grained grammar)에 대한 관심으로 병렬표지들을 세밀하게 분류하고 각각의 의미를 기술하는 이규호(2006)과 같은 논저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상향적, 귀납적 방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4) 병렬구성의 의미 체계

ㄱ. 논리적 의미 체계: 논리학에서 이루어진 연접/이접의 대분류 체계를 차용한 병렬구성의 의미 체계

ㄴ. 기술적 의미 체계: 개개의 병렬표지의 의미 기능에 따라 세분화한 병렬구성의 의미 체계

2.3.1.1. 논리적 의미 체계

선행 연구들에서 병렬구성의 의미는 논리학적 기반에서 파악된 경향이 강하다. '사과와 배'와 '사과나 배'의 의미를 구별하거나, '먹고 놀다'와 '먹거나 놀다'의 의미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논리학에서 복합 명제의 의미 체계[18]를 정립하기 위해 설정한 '연접(conjunction, ∧)'[19]과 '이접(disjunction, ∨)'[20]의 개념이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복합 명제의 연산 등, 논리학적 성과가 자연언어 표현에서도 일정 부분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했다. 다음은 이접 복합 명제의 부정과 관련된 연산식과, 해당 연산식과 평행하게 분석되는 자연언어 문장의 예이다.

---

18) 논리학에서는 복합 명제의 병렬에 대하여 연접(conjunction)과 이접(disjunction)을 구분하고 그것의 참과 거짓의 진위값은 해당 복합 명제를 구성하는 단순 명제의 진위값에 의해 결정된다는 함수이론을 발달시켜왔다. 일반적으로 명제는 단순 명제와 복합 명제로 나뉘는데 복합 명제는 두 개 이상의 단순 명제로 나누어질 수 있는 명제다. 이에 의하면 단순 명제 p, q가 구성하는 복합 명제 'p∧q'와 'p∨q'는 p, q의 진위값의 조합에 의해 결정된다.

19) 논리언어에서 연접(∧)의 진위값

p	q	p ∧ q
T	T	T
T	F	F
F	T	F
F	F	F

20) 논리언어에서 이접(∨)의 진위값

p	q	p ∨ q
T	T	T
T	F	T
F	T	T
F	F	F

(45) ㄱ. ~(A∨B)= ~A ∧~B : A와 B의 합집합의 부정은 A의 부정과 B의 부정의 교집합이다.

ㄴ. 철수가 좋아하는 것은 커피나 녹차가 아니다 = 철수가 좋아하는 것은 커피도 아니고 녹차도 아니다.

그러나 자연언어에서 나타나는 병렬구성과 논리 언어의 연접, 이접이 완전히 대응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는 논리학적 체계인 연접/이접만으로는 병렬구성의 의미 양상을 제대로 보여주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언어에서는 오로지 병렬표지에 의해 병렬구성의 연접, 이접 해석이 결정되지 않는다. 논리 언어의 복합 명제의 경우 단순 명제들을 연결하는 논리 기호 '∨, ∧'가 복합 명제의 성격을 결정짓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병렬구성의 의미에 관심을 가진 많은 선행 연구에서는 병렬구성의 의미를 병렬표지와 관련하여 기술해 왔다. 김진수(1987), 이관규(1992), 이규호(2006), 이정화(1998) 등 한국어 대등문 구성이나 접속조사/어미 등을 다루어온 많은 선행 논의들에서는 이접과 연접의 의미 표상 양상보다는 병렬표지를 '연접 표지'와 '이접 표지'로 나누어 기술하는 데 집중하였다. 따라서 병렬표지의 의미를 제외한 연접이나 이접의 의미가 병렬구성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는가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찾기 어렵다. 자연언어의 병렬구성에서도 대체로 연접 표지, 이접 표지가 사용된 경우 각각 연접, 이접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모든 자연언어의 병렬구성에 연접 표지가 들어간다고 연접으로 해석되고, 이접 표지가 들어간다고 이접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46) 이접 표지가 있어도 연접으로 해석되는 예

ㄱ. 국이든 반찬이든 너무 짜다.

ㄱ′. 국과 반찬이 너무 짜다.

ㄴ. 카페인은 커피뿐 아니라 녹차나 홍차에도 들어 있다.

ㄴ′. 카페인은 커피뿐 아니라 녹차와 홍차에도 들어 있다.

(47) 연접 표지가 있어도 이접으로 해석했을 때 문제가 없는 예

ㄱ.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다.

ㄱ'. 크거나 작은 문제가 발생했다.

ㄴ. 노트북과 카메라 같은 전자기기

ㄴ'. 노트북이나 카메라 같은 전자기기

위의 예문들은 이접 표지가 사용되어도 연접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거나, 연접 표지가 사용되어도 이접으로 해석하였을 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병렬표지 자체가 병렬구성의 연접, 이접 의미를 온전히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표지 위주의 접근 방식만으로는 병렬구성의 의미, 화용적 양상을 밝혀내는 데 장애를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이접 체계에서 자연언어에서 사용되는 이접의 기호들이 때로 아래의 예문과 같이 논리적 이접(∨)의 의미와는 구별되는 배타적 이접[21]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이들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48) 배타적 이접의 예문들

ㄱ.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ㄴ. 2시에 떠나거나 여기서 5시까지 기다려야 한다.

ㄷ. 철수를 만난 것이 어제인지 그제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논리학의 복합 명제 체계와 자연언어의 병렬구성을 연관시켜 다룬 많은 논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이접 체계를 기존의 이접 의미인 포괄적 이접과 배타

21) 논리학에서 배타적 이접($(p \vee q) \wedge \sim(p \wedge q)$)의 진위값

p	q	$(p \vee q) \wedge \sim(p \wedge q)$
T	T	F
T	F	T
F	T	T
F	F	F

적 이접으로 세분한 체계를 정립·정착시켰다.

셋째, 자연언어의 병렬구성에서의 병렬항들은 일정한 의미적 배경을 공유할 것이 요구된다. 이를 가리켜 이관규(1992)에서는 '공통의 의미 차원'이라고 규정하고 대등문 구성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Ernst Tugendhat & Ursula Wolf(1983)/하병학 옮김(1999: 110)에서도 "누군가 "베를린은 큰 도시이고 그리고 3+4=7이다"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즉 부분 문장이 참이라는 사실 외에도 그 부분 문장 사이에 어떤 분명한 내용적인 관계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하여 논리언어적 병렬과 자연언어적 병렬에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즉 논리 언어에서 복합 명제를 구성하는 p와 q는 실 세계에서의 어떤 공통된 인식의 배경을 가지고 존재할 것이 요구되지 않지만 자연언어에서의 병렬구성의 경우에는 반드시 요구된다. 이는 자연언어의 병렬구성이 성립하는 조건으로 구조와 의미의 문제를 뛰어넘는 사용의 문제, 화자와 청자가 속해 있는 실세계의 발화 상황과 관련된 문제가 개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시간적으로 평면적인 논리적 연접과 이접 구성과는 달리 자연언어의 병렬구성은 시간적으로 입체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49) ㄱ. 은정이는 어젯밤에 땀을 뻘뻘 흘릴만큼 더웠다가 몸에 한기가 들 정도로 추웠다가 하더니 결국 감기에 걸렸다.
ㄴ. 철수는 오늘 엄마를 기다리는 1 시간 동안 휴대폰 게임에 열중하거나 운동장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지루함을 달랬다.

위의 예문들은 어느 한 시점에서 평면적으로 보면 병렬항들 중 하나만 실현되는 것으로 보인다. (49ㄱ)에서 어젯밤의 한 시점만 놓고 보면 은정이는 더웠거나 추웠거나 둘 중 하나다. 그러나 어젯밤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은정이는 덥고 추운 것을 모두 느낀 것이다. (49ㄴ)도 마찬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철수가 오늘 엄마를 기다리는 1 시간 중 한 시점을 잘라서 볼 때 휴대폰 게임에 열중함과 동시에 운동장을 멍하니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철수가 엄마를 기다린 1시간 동안을 범위로 하여 볼 때는 철수가 두 가지 행동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다. Haspelmath(2007)에

서는 러시아어에 시간적으로 교체되는 병렬항에 대하여 'to-to'등 특수한 병렬표지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임동훈(2009)에서는 한국어에서 이와 같은 '교체이접'이 '-다가-다가'구성에 의해 실현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의 예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른바 '교체이접'은 '-다가-다가' 와 같은 특정한 병렬표지가 출현하였을 때만 나타나는 한정된 구조가 아니다. 이는 자연언어 병렬구성이 논리적 복합 명제와는 달리 시간적으로 입체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본질적인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복합 명제의 내부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논리학적 연접, 이접과는 달리 자연언어의 병렬구성은 순서에 영향을 받는다. 논리 언어의 복합 명제 '$p \wedge q$'의 진리값은 p와 q의 순서와는 상관이 없다. 반면 자연언어의 경우에는 언어적 도상성 등 다양한 다른 요소의 영향 하에 병렬항의 순서가 그 병렬구성의 성립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50) 순서를 바꾸었을 때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
ㄱ. 영희는 작년에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였다.
ㄱ'. 영희는 작년에 출산을 하고 결혼을 하였다.
ㄴ. 1년 동안 뜨거운 사랑과 가슴아픈 이별을 경험하였다.
ㄴ' 1년 동안 가슴아픈 이별과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였다.

(51) 순서를 바꾸었을 때 심리적·관습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ㄱ.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식 간에는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ㄱ'. 제자와 스승, 자식과 부모 간에는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ㄴ. 길고 짧음.
ㄴ'. 짧고 김.

위의 예문들은 자연언어의 병렬구성에서 병렬항의 순서를 바꾸었을 때 통사적으로는 비문법적이지 않다고 해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거나, 심리적으로 혹은 관습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준다.

위의 차이점들은 병렬구성의 내적 특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병렬구성이 사용

되는 전체 문장의 맥락, 화자와 청자가 자연언어를 사용하고 해석하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배타적 이접의 경우에는 배타적 이접에 해당하는 논리 언어적 기호를 만들면 해결되는 것이지만[22] 본고에서 제시한 논리 언어의 복합 명제와 자연언어 병렬구성 사이의 다양한 차이점은 그런 방식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논리적 복합 명제에서 나타나는 연접, 이접과 자연언어의 병렬구성에서 나타나는 연접, 이접의 가장 큰 차이는 구조와 의미의 문제를 뛰어넘는 사용의 문제, 화자와 청자가 속해 있는 실세계의 발화 상황과 관련된 문제가 개입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지금까지 자연언어의 병렬구성의 의미를 다루면서 집중해온 지점이 자연언어의 연접과 이접의 양상을 기술하는 데 적절하거나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기존의 논의가 주로 논리학적 논의에 기댄 연접과 이접의 구별 문제, 이접 중에서 특히 배타적/포괄적 이접 구성의 구별 문제에 집중해왔는데, 이로 인해 논리학적 논의와 구별되는 자연언어의 연접, 이접 양상에 대한 논의가 상당부분 결여되어 온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자연언어의 병렬구성의 사용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양한 요소가 병렬구성의 연접/이접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연접이나 이접의 구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다양한 양상의 병렬구성이 출현한다.

결론적으로 논리적 의미 체계는 병렬구성의 의미를 기술하는 데 대단히 유용하며 병렬항 간의 관계에 대한 본질적 통찰을 제공하나 자연언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병렬구성의 의미 양상을 포착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2.3.1.2. 기술적 의미 체계

병렬구성의 기술적 의미 체계는 병렬표지의 의미기능에 따라 병렬구성을 세분화하여 기술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이규호(2006: 11)에서는 대등구성의 접속조사를 다음과 같이 세부 분류하여 제시하였는데 병렬구성의 의미를 기술적 방식으로 정리하여 체계화한 기술적 의미 체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22) 실제로 명제 논리학의 기호로 ‘▽’를 배타적 이접을 표상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표2-2] 이규호(2006: 18-19)의 대등 구성 접속조사의 분류 및 목록

접속 관계	의미 관계	목록
나열	함께	와/과, 하고, 이랑
	예시	에 에, 에다 에다, 에다가 에다가, 이네 이네, 이니 이니, 이다 이다, 이라든가 (이라든가), 이라든지 (이라든지), 이며 이며, 이야 이야, 이요 이요, 이랴 이랴, 하며 하며
	마찬가지	커녕, 은커녕, 도 도, 이고 이고, 이나 이나
	동시	이며, 이면서, 이요, 이자
	첨가	에, 에다, 에다가, 하고도
	강조	이란, 이면, 에
선택	상관없음	이거나 이거나, 이건 이건, 이나, 이든 이든, 이든가 이든가, 이든지 이든지
	불확실	인지 인지, 인가 인가
대조	-	커녕/은커녕, 이냐 이냐

이규호(2006)에서는 병렬표지 중 조사에 해당하는 것들의 목록을 제시하고 이를 그 의미 관계에 따라 위와 같이 세분하고 있다. 의미 관계 체계에 해당하는 '함께, 예시, 마찬가지, 동시, 첨가, 강조, 상관없음, 불확실'은 논리적, 하향적인 체계가 아니라 각각의 병렬표지의 의미 특성에서 추출된 특성으로 귀납적, 상향적인 체계에 해당한다. 위 체계는 병렬표지 중 조사들의 의미 특성을 잘 보여줄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직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의 체계 역시 몇 가지 한계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목록의 분류에 자의성이 크게 개입된다. 이는 분류 항목들이 필연적으로 반드시 해당 범주에 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범주들 간의 관계가 배타적이지 않다는 점과 관련이 된다. 예를 들어 조사 '-에'는 '예시', '첨가', '강조'에 모두 속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 중 '예시'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첩된 '-에 -에'가 속하는 것으로 차이를 보이지만 '첨가'와 '강조'에는 모두 '-에'의 형식으로 사용되는 것으

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은 다음의 예문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

(52) ㄱ. 학비에 용돈까지 지원해 주는 장학금.
ㄴ. 과일에 떡에 술에 진수성찬이네.

위의 예문들 중 '-에'가 단수로 등장하는 (52ㄱ)을 '예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으나 (52ㄱ)과 (52ㄴ) 모두 '첨가' 의미와 '강조' 의미로는 모두 해석이 가능하다. 또 (52ㄴ)은 '예시', '첨가', '강조' 의미로 모두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하다면 '예시', '첨가', '강조'가 명확히 구별되는 분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예시'의 과정에서 '강조'의 의미가 파생된 것일 수도 있고, '첨가'에서 '예시'나 '강조'의 의미가 파생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반대의 방향으로 분석해볼 여지도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경향이 심화될 경우 자칫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분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기술적 의미 체계의 가장 큰 단점이라 할 것이다.

둘째, 일관된 원리에 의한 체계를 세우기 어렵다. 이는 위의 첫번째 한계와도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 '예시'가 '첨가'와 구별되는 원리는 무엇인가? 사실상 개체를 나열하여 제시하는 병렬구성의 특성상 '첨가'나 '예시'의 의미는 광범하게 겹쳐져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미가 겹치지 않고 구별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어떤 원리에 의한 것인지 체계적으로 드러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함께'로 분류되어 있는 '하고'와 '예시'로 분류되어 있는 '이며'는 그 의미에 분명한 차이가 있으나 그것이 어떤 원리에 의한 것인지는 '함께'와 '예시'라는 분류 범주만으로는 추측하기 어렵다. 아래 두 예문의 의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53ㄱ)의 경우에는 아들이 가져온 것이 '사과, 배, 수박'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53ㄴ)의 경우 아들이 '사과, 배, 수박' 외에 다른 과일도 가져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 면에서 볼 때 (53ㄴ)의 병렬구성이 아들이 가져온 과일들 중 일부의 '예'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를 '예시'로 명명하여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게 느껴진다.

(53) ㄱ. 아들이 사과하고 배하고 수박하고 가져왔다.
ㄴ. 아들이 사과며 배며 수박이며 가져왔다.

그런데 실세계의 목록을 모두 나열하지 않고 그 중 일부만 병렬구성으로 제시한 구성은 위 이규호(2006)의 체계에서 '예시'로 분류한 '에 에, 에다 에다, 에다가 에다가, 이네 이네, 이니 이니, 이다 이다, 이라든가 (이라든가), 이라든지 (이라든지), 이며 이며, 이야 이야, 이요 이요, 이랴 이랴, 하며 하며'의 13항목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54) ㄱ. 그 집 음식은 술이든지 밥이든지 떡이든지 맛이 있다.
ㄴ. 철수는 책이고 그릇이고 옷이고 버리고 떠났다.

위의 예문들에 사용된 '-든지'와 '-이고'는 위의 분류에서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지만, '예시'로 분류된 것들처럼 실세계에 대응되는 모든 목록을 제시하지 않고 일부의 대표적 예만을 부분적으로 제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점이 유사하다. 즉 이러한 의미는 특정 병렬표지에만 배타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23] 따라서 이러한 의미 특성을 특정 병렬표지의 분류 항목으로 배정하는 것은 일관된 원리에 의한 기술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비경제적이다. 가장 경제적인 분류 체계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항목들 간의 배타적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분류 체계는 사실상 분류 대상이 되는 항목의 개수만큼 체계의 범주가 존재할 수 있다는

23) 병렬구성에서 병렬항으로 표상된 개체의 개수와 실세계의 실제 개체의 개수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많은 경우 문맥이나 상황상 주어진 가능한 집합의 개체들을 모두 빠짐없이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개념이 '망라성'이다. 망라성(exhaustiveness)은 문맥이나 상황상 주어진 가능한 집합의 개체들을 모두 포괄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청자에게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그라이스의 격률에 따르면 화자는 최대한 망라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표현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만약 망라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망라성을 확보하지 않았음(불확실성)을 명시하는 전략이 사용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의미 특성을 병렬구성이 보이는 특수성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특성이 병렬구성의 구조와 의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본고 5장).

점에서 언어 기술의 경제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병렬구성의 의미를 기술하기 위한 두 가지 방식을 살펴본 결과 논리적 의미 체계와 기술적 의미 체계가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자연언어에서 나타나는 병렬구성의 다양한 의미, 화용적 양상을 설명하기 위한 제안은 본고의 4장과 5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2.3.2. 병렬구성의 의미 범위

여기서는 병렬구성이 표상하는 논리적 의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순접, 이접, 역접을 모두 병렬로 파악하는 입장으로 Quirk(1985), Huddleston & Pullum(2006), 임동훈(2009) 등이 이에 해당한다. Huddleston & Pullum(2006)에서는 'but' 은 'and', 'or'가 공유하는 특성을 가지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but' 역시 병렬표지로 인정하고 있다.

둘째, 순접과 이접만을 병렬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관규(1992)에서는 역접을 제외하고 순접과 이접만을 병렬로 파악하고 있으며 학교 문법에서도 문장의 대등한 연결의 의미 관계를 이접과 연접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서형국(2009)에서도 병렬구성을 순접과 이접으로 양분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역접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김영희(1987ㄱ)에서는 '으나'와 '지만'을 사실 양보를 나타내는 종속접속어미로 파악하여 등위접속의 의미 관계에서는 역접을 사실상 제외하고 있다. 서정수(1985)에서도 대등접속어미를 다루면서 역접을 포함시키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처리와 관련하여 "의심쩍은 면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셋째, 순접만을 병렬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으로는 이계병(1989)이 있다. 이계병(1989)에서는 병렬구성이 병렬표지에 의해 하나의 구성이 되는 데 중점을 두고 이접의 경우 이러한 용법이 없다고 보아 제외하였다.

병렬구성의 의미를 다룬 대다수의 논저에서는 대체로 순접이나 이접이 일반적인 병렬구성의 특성을 공유하는 것과는 달리 역접은 상당한 이질성을 지닌다는 점에 대하여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접을 병렬구

성의 의미 관계로 인정할 것인가, '그러므로' 역접을 제외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사실 병렬구성의 의미 관계는 병렬구성과 의존(내포)구성의 연속성과 관련이 있다. Quirk et al(1985:920-927)에서는 'and' 와 'or'은 중심적/전형적(central) 병렬표지이지만 'but'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병렬과 의존(내포)표지는 연속선상에서 구별된다고 보았다. 이를 보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정립하고, 그 성립 여부에 따라 병렬/내포 표지의 정도성을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55) 병렬구성-의존(내포)구성의 구별 기준

a) 병렬표지가 절의 처음 위치에만 올 수 있다.

b) 병렬된 절은 앞 절과 고정된 관계로, 그 절 앞으로 이동할 수 없다.

c) 다른 접속사가 병렬표지에 선행할 수 없다.

d) 절뿐 아니라 서술어 등 다른 요소들을 연결할 수 있다.

e) 같은 주절에 속한 복수의 종속절을 연결할 수 있다.

f) 두 개 이상의 절을 연결할 수 있으며 마지막 병렬표지가 생략될 수 있다.

[표 2-3] 병렬구성-의존(내포)구성 구별 기준 적용 예(Quirk et al 1985: 927-928)

	a	b	c	d	e	f
and, or	+	+	+	+	+	+
but	+	+	+	+	±	−
yet, so, nor	+	+	x	+	−	−
however, therefore	−	+	−	−	−	−
for, so that	+	+	+	−	−	−
if, because	+	±	−	−	−	−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Quirk et al(1985)에서는 'yet, so, neither nor'은 'semi coordinator'로 보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병렬적인 성격과 관련된 일정한 정도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역접은 병렬에서 제외하여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즉 본고는 역접을 병렬구성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접은 다항 구성이 불가능하며 2항 구성만이 가능하다. 이는 병렬구성의

가장 기본적 특성인 2분지 가설의 설명 불가능성에 전면 위배된다. 3항 이상을 병렬시킬 경우 아예 성립하지 않거나,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일부분을 묶어 2항 구조로 해석해야 한다. 이는 병렬된 항목들 간의 관계가 연접과 이접의 경우와는 다름을 잘 보여준다.

(56) ㄱ. ?[봄은 따뜻하지만 여름은 덥지만] 겨울은 춥다.
ㄱ′. ?[봄은 따뜻하지만] 여름은 덥지만 겨울은 춥다.
ㄴ. ?[철수는 똑똑하나 영수는 키가 크나] 영희는 착하다.
ㄴ′. ?[철수는 똑똑하나] 영수는 키가 크나 영희는 착하다.

서정수(1985: 93)에서는 역접의 어미에 대하여 이들이 대체적인 의미 관계가 대칭성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들의 대칭적인 접속 기능에 대한 의심을 드러낸 바 있다.

(57) …“지만”이 두번 이상 열거되면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이 되고야 만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역접의 “나”와 “지만”이 열거성을 잘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대칭적 접속 관계를 확고히 드러내지 못하는 면이 있음을 시사한다. 사실상 선택어미와는 달리 이들 어미는 앞뒤 절을 대칭적으로 결합시키는 기능이 상당히 약하다고 할 수가 있다. 앞에서 이들이 대칭적 접속 기능을 지녔다고 본 경우에도 엄격히 따지면 의심쩍은 면이 있다.…

위와 같은 언급은 역접의 다항 연결 가능성 부재가 이들 사이에 대등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 기초한 것으로 본고의 기본적인 입장과 일치한다.

둘째, 연접과 이접과는 달리 역접의 모든 구성에서 병렬성이 형식으로 드러난 [Xco Yco] 구문이 완전히 불가능하다.

(58) ㄱ. ?/*철수가 키가 작지만 몸이 다부지지만
ㄴ. ?/*여름은 더우나 겨울은 추우나

또한 의미적으로도 역접은 연접/이접과는 달리 연결된 항목들의 위상이 같지 않다. 한국어의 경우 역접 구성은 선행항은 부정되고 후행항은 긍정되거나 선행항에 비해 후행항이 강조되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접으로 파악해온 의미가 동질적인 것들의 집합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형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Lakoff(1973)에서는 영어 접속사 'but'의 의미를 '대립'과 '기대 부정'의 의미로 나누어 다룬 바 있다. 한국어 논의에서도 윤평현(1989), 이은경(2000)을 비롯한 많은 논저에서 '대조'와 '양보'를 나누어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 Lakoff(1971)의 '대립'과 '기대부정'에 대응된다. 대체로 '-으나', '-지만'은 대조, '-아도, -ㄴ들' 등의 어미는 양보의 어미로 다루어지고 있다. 아래의 예문은 차례로 대조와 양보의 예에 해당한다.

(59) ㄱ. (대조) 철수가 키가 크지만 영희가 키가 작다.
ㄴ. (양보) 철수가 키가 크더라도 영희가 키가 작다.

양보 의미의 가장 큰 특성은 선행절에 대한 기대가 후행절에서 부정된다는 점이다. 연결된 절의 관계가 의미적으로 대등하지 않다는 점에서 양보 의미를 가진 구성을 병렬구성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은경(2000)에서도 선·후행절의 관계에 대하여 '양보'는 의존적인 것으로, '대조'는 독립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분류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조 구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유로운가? 대조 역시 병렬구성의 의미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본고의 판단이다. 대조에 해당하는 구성들은 병렬항 간의 의미 관계가 대등하지 않다는 점에서 병렬구성으로 보기 어렵다. 즉, 선행 병렬항의 의미에 의해 후행 병렬항의 의미가 제약된다. 병렬구성들의 경우 선행항의 의미가 후행항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0) ㄱ. 철수가 키가 크고 영희가 키가 {작다/크다}.
ㄴ. 철수가 키가 크며 영희가 키가 {작다/크다}.
ㄷ. 철수가 키가 크거나 영희가 키가 {작다/크다}

ㄹ. 철수가 키가 크든지 영희가 키가 {작다/크다}

반면, 대조의 경우, 선행항의 의미가 후행항의 의미에 영향을 미친다.

(61) ㄱ. ??철수가 키가 크지만 영희가 키가 크다.
ㄴ. ??철수가 키가 크나 영희가 키가 크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고는 지금까지 '역접'으로 다루어져 온 구성들은 병렬구성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4. 용어의 정리

본고에서 '병렬'이라 하는 것은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대등 접속' 혹은 '등위접속' 또는 '대등 연결' 등으로 불리던 것이다. '접속'이나 '연결', '등위', '대등' 등의 용어나 혹은 이를 포함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병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익섭(2003)과 임동훈(2009)의 논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익섭(2003)에서는 절과 절의 연결과 관련하여 체계와 함께 용어를 정비하였는데 '내포'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연결'이나 '접속' 대신 '병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24)

임동훈(2009)에서는 'coordination'의 번역어로 '병렬'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

24) 이익섭(2003: 133-134)의 관련 내용을 일부 옮기면 다음과 같다.
"이상의 여러 후보 중에서 꼭 하나만 고르라면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다 일장일단이 있어 쉽지 않아 보인다. 어느 것을 쓰든 개념 규정만 확실히 해두면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굳이 하나를 고르라면 병렬문과 내포문을 택하고자 한다. 이는 conjoining(coordination)과 embedding을 각각 '병렬'과 '내포'로 번역해 쓰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접속'과 '내포'가 가장 일반화 되어 있으나 '접속' 내지 '접속문', '접속어미'들이 그동안 너무나 오염이 되어 있어 아무리 새 의미로 쓴다고 공언하여도 제 뜻으로 읽히기 어려울 것을 염려하는 것이다. '병렬'은 어느 경우나 한 가지 뜻으로 쓰여 왔고 또 어감도 맞아떨어지는 장점이 있다."

첫째, ‘coordination’은 선행절과 후행절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방식을 가리키므로 번역어는 타동사적 용법이 가능한 술어명사여야 한다.

둘째, ‘coordination’은 단어나 구 차원의 연결방식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등위’나 ‘대등’은 이러한 용법에는 쓰일 수 없다.

셋째, ‘병렬’은 흔히 ‘병렬문’으로 쓰여 [A co B]를 가리키는 반면 ‘대등’은 흔히 ‘대등절’로 쓰여 [A co B]가 아니라 ‘A나 B’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병렬에 의해 만들어진 언어 구조에 대해서는 ‘병렬구성(coordinate construction)’이라 하며, ‘coordinator’에 해당하는 병렬의 표지에 대해서는 ‘병렬표지’, 병렬되는 언어 단위들에 대해서는 ‘병렬항’으로 칭하기로 한다. 앞선 논의를 토대로 이를 정리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62) ㄱ. 병렬구성: 병렬에 의해 형성된 통사적 구성
ㄴ. 병렬항: 병렬되는 언어 단위. 통사 원자 이상, 절 이하의 단위. 상대적으로 앞서는 항을 ‘선행항(선행 병렬항)’, 상대적으로 뒤에 오는 것을 ‘후행항(후행 병렬항)’, 맨 처음 항을 ‘최초항(최초 병렬항)’, 마지막으로 나열된 병렬항을 ‘최종항(최종 병렬항)’으로 부르기로 한다.
ㄷ. 병렬표지: 병렬구성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어 복수의 병렬항을 매개하는 문법적 표지

2.5. 요약

• 복수의 언어 단위가 연결된 구성의 내부 구조는 ‘병렬’과 ‘의존’의 관계로 파악될 수 있다. 병렬은 통사·의미적으로 등위적인 항목들이 나열되고, 이들에 대한 다항 연결이 가능하며 무핵 구성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독자적이고 차별적인 언어 단위의 연결 원리이다.

• ‘병렬구성’은 병렬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 형태적 병렬(병렬어), 통사적 병렬(병

렬구성), 담화적 병렬(병렬적 텍스트) 중, 통사적 구성인 통사적 병렬에 해당하며, ‘병렬항’과 ‘병렬표지’로 구성된다. 이때 병렬항은 병렬되는 언어 단위로 통사원자 이상, 절 이하의 단위에 해당한다. 병렬표지는 병렬구성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어 복수의 병렬항을 매개하는 문법적 표지이다.

• 선행 연구에서 병렬구성의 의미를 기술하는 경향은 크게 논리적 체계와 기술적 체계로 구별될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의 장단점을 지닌다.

• 병렬구성의 의미 범위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역접을 병렬로 인정하지 않는다.

3. 병렬구성의 통사

3.1. 병렬항의 통사적 특성

병렬구성은 크게 병렬항과 병렬표지로 구성된다. 이 절에서는 병렬항과 병렬표지의 통사적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병렬항의 통사적 성격과 병렬표지의 관계는 언어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병렬항의 통사적 성격에 따라 다른 표지를 쓰기도 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같은 표지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표지를 쓰지 않기도 한다. 다음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의 체언, 용언, 절 병렬의 예이다. 한국어는 대체로 체언(구) 병렬에 사용하는 표지가 구별되고, 용언(구) 병렬과 절의 병렬에 사용되는 표지가 일치한다. 중국어 역시 범주에 따라 다른 표지 전략을 사용한다. 반면 영어는 병렬항의 통사범주에 관계없이 같은 병렬표지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용언(구) 및 절 병렬에서 표지의 생략이 불가능한 한국어와는 달리 중국어에서는 표지의 생략이 가능하다는 차이점도 있다.

(1) 체언 병렬
ㄱ. (한국어) 수지와 민호가 집에 갔다.
ㄴ. (중국어) 秀智和民浩回家了。
ㄷ. (영어) Suji and Minho went home.

(2) 용언 병렬
ㄱ. (한국어) 수지가 예쁘고 똑똑하다.
ㄴ. (중국어) 秀智既漂亮又聪明。(秀智漂亮、聪明。)
ㄷ. (영어) Suji is pretty and smart.

(3) 절 병렬
ㄱ. (한국어) 수지가 집 청소를 하고 민호가 설거지를 했다.

ㄴ. (중국어) 秀智打扫的房间, 敏浩刷的碗。

ㄷ. (영어) Suji cleaned the house and Minho did dishes.

Haspelmath(2004, 2007) 등 병렬적인 구성을 다룬 유형론적 연구에서는 범언어적으로 병렬항의 통사적 성격과 상관없이 병렬표지가 일정한 언어와 그렇지 않은 언어가 구별된다는 점이 지적되어 온 바 있다. 영어는 대표적으로 병렬항의 통사 범주에 상관없이 일정한 병렬표지를 사용하는 유형의 언어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처럼 더 많은 언어에서 병렬항의 통사 범주에 따라 다른 병렬표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Haspelmath 2007: 20-22).

한편 병렬항의 통사 범주와 병렬표지의 관계에 관한 위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한 논의로 Payne(1985)이 있다. Payne(1985: 5)에서는 병렬표지 연결 범위의 제약이 다음과 같은 연속선상에서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4) S-VP-AP-PP-NP

이에 의하면 S와 NP를 연결하지만 VP와 AP를 연결하지 못하는 병렬표지는 존재할 수 없다. 또 S와 NP에 같은 표지를 사용한다면 VP, AP, PP에도 동일한 표지를 사용해야 한다. 한국어 병렬구성은 명사구 병렬에 사용하는 표지(병렬조사)와 형용사구, 동사구, 절의 병렬에 사용하는 표지(병렬어미)가 구별된다는 점에서 Payne(1985: 5)에서 제시한 제약의 위계에 부합한다.[1)]

그렇다면 한국어 병렬구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는 병렬조사와 병렬어미가 각각 어떤 문법 범주를 연결한다고 기술해 왔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관규(1992)에서는 체언 연결에는 병렬조사가, 용언 연결에는 병렬어미가 사용된 것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김진수(1987)에서는 접속을 크게 명사구 접속과 동사구 접속으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임동훈(2009)에서는 결합하는 단위가 무엇인가에 따라 명사구병렬, 동사구 병렬, 절 병렬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예들에 대한

1) 그러나 종결어미가 붙은 간접 의문 표현 등, 명사가 아닌 여러 부류가 병렬조사에 의해 연결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본고 3.2 참조.

설명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논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래의 (5ㄱ)은 '-ㄴ지'로 끝나는 문장이 병렬조사에 의해 병렬된 것이고, (5ㄴ)은 '-어서'가 교착된 부사구, (5ㄷ)은 부사의 병렬이다. (5ㄹ)은 병렬어미가 계사'-이'로 끝나는 구를 병렬한 예이다.

(5) ㄱ. 올해 장학금 선정은 [성적이 좋은지랑 집안형편이 어려운지]를 고려한다.
ㄴ. 올해 장학생으로 철수가 선정된 이유는 [성적이 좋아서이거나 집안형편이 어려워서]이다.
ㄷ. 올해 우리가 견지해야 할 태도는 [성실하게와 정직하게]이다.
ㄹ.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영희이]고 [싫어하는 사람은 민수이]다.

위와 같은 병렬항들이 병렬된 구성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통사 범주와 관련된 재검토가 필요하다. 병렬구성은 단어, 구, 절에 걸친 언어 단위의 병렬에 의해 이루어진다. 우선 단어 단위의 병렬 범주를 선행연구의 품사론을 바탕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고영근·구본관(2008)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국어의 품사를 구별하였다.

[표3-1] 고영근·구본관(2008)의 한국어 품사 구분

불변어	체언	명사,대명사,수사
	수식언	관형사, 부사
	독립언	감탄사
	관계언	조사
가변어	용언 (+서술격조사)	동사, 형용사

이들이 병렬구성을 형성할 때는 어떤 병렬표지를 사용하는가? 불변어 계열[2]은, 병렬조사와 ∅(무표지)에 의해 병렬구성이 성립하고, 가변어 계열은 병렬어미에 의해 병렬구성이 성립한다. 단, 불변어 중 체언은 병렬조사, 무표지가 모두 활발하게 사용되는 반면, 나머지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에서는 병렬조사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상당히 제약적이고 ∅(무표지)에 의한 병렬이 선호된다. 다음과 같은

2) 여기서 조사는 기능어에 가까운 대상으로 다른 어휘 범주와 평행하게 '병렬' 대상인 것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제외한다.

예에서는 체언 범주가 아니더라도 병렬조사가 사용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본고 3.2.에서 이어서 살펴볼 '명사구 상당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우리가 무조건 더 높게와 더 멀리를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무표지에 의한 병렬이 선호된다.

(7) ㄱ. 여자를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만들어 주는 화장품.
ㄴ. 아이구, 저런, 세상에나!

위에서 살펴본 단어의 문법 범주와 병렬표지 사용 간의 상관관계는 구 단위, 절 단위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가변어, 혹은 가변어를 만드는 문법요소가 핵인 언어 형식을 가변형식, 불변어가 핵인 언어형식을 불변형식이라고 할 때, 가변형식에는 병렬조사와 무표지가, 불변형식에는 병렬어미가 사용된다.

그런데 어미 '-ㄴ가, -는가, -ㄹ까, ㄴ지, -는지, -ㄹ지, -냐, -느냐'로 끝나는 간접의문 문장의 병렬은 어떠한가? 다음은 이들이 형성하는 병렬구성의 예이다.

(8) ㄱ.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ㄴ. 돈을 많이 줄지 짜게 줄지 알 수 없다.
ㄷ. 네가 오늘 올 수 있는지랑 몇 시에 올 수 있는지를 알려줘.
ㄹ. 열심히 했느냐와 잘 했느냐는 다른 문제이다.

이선웅(2000)에서는 이들 어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 바 있다.

(9) '-ㄴ가, -는가, -ㄹ까, ㄴ지, -는지, -ㄹ지, -냐, -느냐'가 가진 통사 범주에 관한 어휘 정보: 이들은 모문에 내포되지 않는 한 CP를 이끄는 보문소이고 모문에 내포되면 내포범주를 NP로 변경하는 보문소로 기능한다.

이들은 일종의 명사구 상당어[3]로 역시 병렬조사와 무표지에 의해 병렬구성을 형성한다.

이상 살펴본 각 단위별 문법 범주의 병렬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는 각각 언어 단위별 양상, 표지별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10) 언어 단위별 병렬 범주

ㄱ. 단어 단위의 병렬 범주: 불변어는 병렬조사와 ∅(무표지) 사용, 가변어는 병렬어미 사용.

ㄴ. 구 단위의 병렬 범주: 불변어(구)는 병렬조사와 ∅(무표지)사용, 가변어(구)는 병렬어미 사용

ㄷ. 절 단위의 병렬 범주: 불변어 범주의 어미가 교착된 절(명사절, 부사절, 관형사절)은 병렬조사와 ∅(무표지) 사용, 가변어 범주의 어간으로 끝난 절에는 병렬어미 사용.

ㄹ. 그 밖에: 어미 '-ㄴ가, -는가, -ㄹ까, ㄴ지, -는지, -ㄹ지, -냐, -느냐'로 끝나는 간접의문 문장의 병렬에는 병렬조사와 무표지 사용

(11) 표지별 병렬 범주

ㄱ. 병렬조사, 무표지: 불변형식과 어미 '-ㄴ가, -는가, -ㄹ까, ㄴ지, -는지, -ㄹ지, -냐, -느냐'로 끝나는 간접의문 문장의 병렬에 참여

ㄴ. 병렬어미: 가변형식의 병렬에 참여

이 장에서는 병렬조사에 의한 병렬과 무표지에 의한 병렬을 구별하지 않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위의 불변어 범주에 해당하는 모든 요소가 병렬조사에 의해 자유롭게 병렬구성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3.2.에서는 특히 병렬조사에 의해 병렬되는 범주의 특성을 추가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병렬항의 통사 범주에 따라 병렬표지가 구별되는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양상이 병렬구성의 의미 관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현상이 존재한다. Haspelmath(2007: 20-22)에서는 병렬항의 통사·의미 범주에

3) 명사구 상당어와 관련된 더 자세한 기술은 3.2.에서 이루어진다.

따른 병렬표지 구별 사용의 경향은 연접의 경우 특히 더 강하고 이접은 연접에 비해 훨씬 덜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병렬구성이 연접 의미일 경우에는 병렬항의 통사·의미 범주가 다를 경우 병렬표지를 구별하여 사용하지만 이접일 경우 그렇지 않은 경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오리(Maori)어는 연접의 경우 NP병렬에 'me'를, VP병렬에 'aa'를 구별하여 사용하지만 이접의 경우 이 둘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raanei'를 사용한다.

한국어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임동훈(2009: 103)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연접과 달리 이접은 NP병렬소와 VP병렬소의 기원이 동일하다"며 NP병렬소는 아래의 예와 같이 '(이)나, (이)든지' 형식을 취하지만 그 의미가 VP병렬소 '-(으)나', '-든지'와 흡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12) ㄱ. 맥주나 소주나 다 좋아요
ㄴ. 양복을 입으나 한복을 입으나 잘 어울린다.
ㄷ. 밥이든지 빵이든지 아무거나 주세요
ㄹ. 계속 가든지 여기에 있든지 네가 결정해라. (임동훈 2009: 103)

실제로 연접 의미를 주로 표상하는 병렬표지의 경우에는 병렬어미에 계사가 붙은 형식이 병렬조사로 굳어진 '-이'계 병렬조사가 아닌 예들(-와/과, -하고, -에, -에다 등)이 더 많은 반면, 이접 의미를 주로 표상하는 병렬조사의 경우에는 '-이'계 병렬조사(-이나, -이든지, -이든 등)가 많다.

한국어의 위와 같은 현상은 범언어적으로 병렬구성이 연접 의미일 경우에는 병렬항의 통사·의미 범주가 다를 경우 병렬표지를 구별하여 사용하지만 이접일 경우 그렇지 않은 경향성이 높은 현상과 동궤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한국어는 병렬항의 통사 범주에 따라 병렬표지가 구별되는 언어 유형임에는 분명하지만 이접의 경우 그 구별이 상당히 희석되는 언어에 해당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3) 한국어 병렬구성에는 병렬표지로서 병렬조사, 병렬어미, 무표지가 병렬항의 문법

범주에 따라 구별되어 사용되며, 병렬항 간의 의미 관계가 병렬표지 종류의 선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3.2. 병렬표지의 통사적 특성

3.2.1. 병렬조사의 통사적 특성

3.2.1.1. 병렬조사의 연결 범주

선행 연구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병렬조사의 연결범주에 대해 일반적으로 명사(구)라고 언급해 왔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3.1.에서 간단히 살펴본 것처럼 병렬조사가 연결하는 범주의 다양성은 이를 뛰어 넘는다.

(14) ㄱ. [영희와 철수]가 올해 장학금을 받는다.
ㄴ. 올해 장학금은 [성적이 좋은 학생이나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준다
ㄷ. 올해 장학금 선정은 [성적이 좋은지랑 집안형편이 어려운지]를 고려한다.
ㄹ. 올해 장학생으로 철수가 선정된 이유는 [성적이 좋아서이거나 집안형편이 어려워서]이다.
ㅁ. 올해 우리가 견지해야 할 태도는 [성실하게와 정직하게]이다.

우리는 앞 장에서 불변형식이 병렬조사와 무표지에 의해 병렬구성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불변형식에 해당하는 모든 요소가 병렬조사에 의해 자유롭게 병렬구성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모든 체언은 조사에 의해 병렬되고 나머지 불변어는 무표지로 병렬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위의 예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다소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렬조사의 연결범주는 사실상 용언 어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범주에 해당한다. 명사뿐 아니라 관형어, 부사어, 절 범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병렬항이 병렬조사에 의해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위의 예문 속에서 조사 앞에 분포할 수 있고,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사(구)와 같은 분포를 보인다. 명사나 명사구가 아니면서도 분포상 명사나 명사구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러한 구성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은 아니다. 많은 한국어학 연구자들이 이러한 현상을 포착하고 명사(구) 상당어(홍종선 1998, 이선웅 2012), 명사 상당어구(안명철 1995), 상당어(김의수 2007) 등의 명명을 통해 언급해 왔다(이하 '명사구 상당어'로 부르기로 한다). 일부 논의에서는 명사구상당어를 문제의 현상에 대한 임시적인 명칭으로 사용하였으나, 김의수(2002, 2007), 이선웅(2012)에서는 '상당어'라는 개념을 언어 일반의 개념 체계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4)

본고에서는 이선웅(2012)의 '명사구 상당어' 정의를 도입하여 병렬조사에 의해 연결되는 범주를 정의하고자 한다. 이선웅(2012: 495)의 '명사구 상당어' 정의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5) ㄱ. 명사구 상당어: 명사구와 배타적 관계에 있는 구 범주 XP가 외부적으로만 명사구와 동일한 분포를 보일 때 그 XP를 명사구 상당어라고 한다.
ㄴ. 배타적 관계: 구 범주 XP와 YP의 핵인 X와 Y가 동일한 범주에 속하지 않을 경우 XP와 YP는 배타적 관계에 있다고 한다. 단, 범주전환 기능을 지닌 전성어미는 전환의 목표가 되는 범주와 동일한 범주를 지닌 것으로 상정한다.

이선웅(2012)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예들이 명사구 상당어에 속하게 된다.(괄호 표시는 편의상 필자가 더한 것이다)

(16) ㄱ. [이라크에 전투병을 보내느냐 마느냐]가 현재의 관심사이다.
ㄴ. 빈 칸에 들어갈 말은 ['새로운']이다.5)

위의 명사구 상당어들에서는 그것의 핵이 되는 어휘범주를 찾을 수 없다. 명사구의

4) '상당어'와 관련된 연구사는 이선웅(2012: 488-495) 참조.
5) 위와 같은 초언어적 용법의 경우 문장 안에서 명사구 상당어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은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분포와 같지만 이들의 핵이 명사인 것은 아니다. 이에 기반하여 병렬조사의 연결 범주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17) 병렬조사는 체언(구)와 명사구 상당어인 병렬항을 연결하는 병렬표지이다.

3.2.1.2. 병렬조사의 범위

<병렬조사와 보조사>

한국어 조사와 관련된 연구는 그 역사가 깊고 양도 방대하나 본고에서 다루는 병렬조사에 해당하는 종류의 조사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조사 연구자들의 관심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던 경향이 있었다. 조사의 연구는 대체로 격조사와 보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본고의 병렬조사에 해당하는 것들을 따로 떼어 본격적으로 다룬 논의는 김진수(1987), 이정화(1998), 이관규(1992) 등이 있다. 그러나 병렬조사 역시 조사의 일종이므로 보조사 및 격조사와 비교, 대조하여 살펴보는 것이 그 성격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병렬조사와 보조사, 격조사의 차별적 특성을 정리하여 병렬조사 판정의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병렬조사의 분포를 다른 조사의 분포 및 결합 양상과 연관시켜 살펴볼 것이다.

우선 병렬조사와 보조사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 병렬조사는 다음의 예와 같이 명사(구)뿐 아니라 부사(구)의 에도 결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조사와 유사하다.

(18) ㄱ. 어디에나 많게든 적게든 차별이 존재한다.
ㄴ. 너 정말 빨리도 왔다.

그러나 일부 보조사의 경우 동사활용형이나 어근에도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병렬조사보다 더욱 넓은 결합 범위를 보인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둘째, 병렬조사는 중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조사와 차이가 있다. 다음 예문과 같이 병렬조사는 중복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보조사는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19) ㄱ. *사과와하고 배
ㄴ. 이번 일까지만은 용서한다.

셋째, 보조사는 잠재적인 자매항을 배경으로 선행어를 한정하므로[6] 그 자매항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병렬조사는 자매항을 명시해야 한다.

(20) ㄱ. 나는 사과도 좋아해.
ㄴ. 나는 사과랑 귤을 좋아해.

단, 병렬조사 중에는 보조사이기도 한 것들이 있다. '-이나'가 그러하고 '-인가'도 그러하며 '-인지'도 그러하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이나'의 의미와 관련하여 주목을 받아왔다. 채완(1993)에서는 '이나'를 보조사, 접속조사로 세분하여 기술할 것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이나'를 세분하였다.

(21) ㄱ. 밥하기 싫은데 빵이나 먹자. (특수조사)
ㄴ. 산이나 들이나 모두 초만원이다. (접속조사)
ㄷ. 남편은 시인이나 아내는 소설가이다. (계사+어미)

병렬조사와 보조사가 모두 자매항에 대한 고려를 배경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이나'가 보조사로 사용된 위의 예문에서 '빵'은 빵보다 더 좋은 먹을 거리-특히 밥을 자매항으로 전제하고 암시한다. 반면 병렬조사에 해당하는 '-이나'가 사용된 위의 예문 (21ㄴ)에서는 산, 들이라는 자매항 간의 관계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병렬조사가 보조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병렬조사와 보조사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가?

---

6) 임동훈(2004: 126-127)에서는 선행어와 잠재적 대립 관계에 있는 의미상의 자매항목들을 배경으로 하여 선행어를 한정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22) ㄱ. 밥이나 빵을 먹어라.
ㄴ. 밥이나 먹어라.

최윤지(2011: 158-160)에서는 '-인가'가 다음과 같이 병렬조사로도 사용될 수 있고, 보조사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가'가 계사 활용형에서 병렬조사로 발달한 뒤 이것이 다시 보조사로 발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23) ㄱ. 봉투는 첫째 서랍인가 둘째 서랍인가에 있어.
ㄴ. 봉투는 첫째 서랍인가에 있어.

또한 '-인가'가 계사 활용형에서 병렬조사로 발달하고 거기에서 다시 보조사로 발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24) ㄱ. [[가야 할 사람이 철순가 와야 할 사람이 영인가]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ㄴ. 나는[[철순가 민순가] 한 학생]을 만났었다
ㄷ. 나는[철순가 민순가]를 만났었다
ㄹ. 나는[철순가]를 만났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예에서 '-하며'는 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인가, 병렬조사로 보아야 할 것인가?

(25) 우리 철수는 잘생긴 얼굴하며 어디 빠지는 데가 없는 신랑감이다.

위와 같은 문장과 관련하여 우리는 철수가 빠지는 데가 없는 신랑감인 이유가 잘생긴 얼굴뿐이 아닐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성격도 좋고 키도 클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철수의 잘생긴 얼굴의 잠재적인 자매항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때 '잘생긴 얼굴'에 붙은 '-하며'는 좋은 신랑감으로서의 요건들이 더 풍부하다는 의미를 지

닌 보조사적 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용법은 병렬조사로서의 '-하며'의 용법에서 파생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용법이 빈도 높게 사용되면서 확대될 경우, '-하며'가 보조사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자매항이 명시되어야 자연스럽고 자매항이 없는 경우는 생략된 느낌이 강하다. 이를 고려할 때 '-하며'는 병렬조사이지 아직 보조사로 보기는 어렵다.

이를 종합하여 보조사적 용법을 가지는 병렬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병렬조사는 명시적 자매항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명시적 자매항 없이 하나의 병렬항과만 결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용법이 발달하여 일정한 차별적 의미를 획득하게 되면 본디 병렬조사였던 것이 보조사적인 용법을 가지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병렬조사와 격조사>

이제 병렬조사와 격조사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고영근(1987)에서는 생략 가능성을 근거로 접속조사(본고의 병렬조사)를 격조사에 가까운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보조사는 그 생략과 복원이 거의 불가능한 데 비해 격조사와 접속조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병렬조사는 서술어와 체언의 관계를 표시하는 격조사와 큰 차이가 있다. 격조사는 핵에 해당하는 서술어와 논항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지만 병렬조사는 서술어와 직접적인 의미적 상관성을 맺지 않고 개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격조사의 역할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다만 고영근(1987)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격조사와 병렬조사가 보조사보다는 쉽게 생략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 이는 격조사와 병렬조사가 보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미부담량이 적고 어순 등에 의한 유추로 생략의 복원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격조사 중에서도 의미격 조사와 문법격 조사의 차이에서도 나타난다. 임동훈(2004: 123-124)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장을 명사구로 변환할 때 문법격 조사인 '이/가, 을/를'은 생략이 되나 의미격 조사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 특수조사와 결합할 때 의미격은 유지되나 문법격은 유지되지 못한다는 점 등도 문법격의 의미부담량이 적은 특성과 관계가 있다.

이제 병렬조사와 격조사의 성격을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병렬조사의 분포적인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조사의 분포와 결합 순서는 조사의 하위 부류를 구별, 판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특성이다. 조사의 결합 순서나 분포에 관한 문제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편인데 대부분 보조사와 격조사의 관계를 고찰한 것이며 병렬조사와의 결합 순서를 논한 것은 많지 않다. 임동훈(2004)는 한국어 조사는 일정한 문법적 특성에 따라 하위 분류되어 있고 각 하위부류는 일정한 결합의 패턴을 지키고 있어서 한국어 화자는 이를 적절히 결합하여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한국어 조사를 그 분포와 상호 결합 양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하위분류 하였다. 그러나 임동훈(2004)의 논의는 접속조사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고 '와/과'는 의미격 조사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많지는 않아도 병렬조사를 포함하여 조사 분포 양상을 기술한 논의도 존재하는데 김승곤(1996), 남윤진(1997)이 그것이다.

김승곤(1996)에서 조사한 병렬조사와 다른 조사 사이의 결합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표3-2] 김승곤(1996)의 병렬조사와 다른 조사의 결합 가능성

뒤에 오는 토씨 / 이음토씨	이/가	를/을	은/는	만	도
이고	o	o			
이며					
이랑	o	o	o		
에					
하고	o	o	o	o	o
하며					

특히 김승곤(1996)에서는 이음토씨는 항상 다른 토씨에 선행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다음의 (26ㄱ)과 같은 반례가 존재한다. 또 위치나 도구를 나타내는 의미격 조사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병렬항 각각에 나타날 수도 있고 병렬구성 전체에 한 번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이 이미 지적된 바 있다(O' Grady 1991: 7-8).

(26) ㄱ. 은정이는 집에서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ㄴ. 은정이는 집과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한편 남윤진(1997)에서는 백만 어절의 말뭉치를 이용하여 조사의 결합 양상을 관찰하였는데 접속조사[7]는 격조사, 보조조사, 특수조사등과 함께 복합조사를 구성하지만 접속조사끼리의 결합은 제약되며 접속조사가 복합조사를 구성할 경우 접속조사는 항상 다른 조사의 뒤에 와야 한다고 하였다. 남윤진(1997)에서 제시하고 있는 접속조사와 다른 조사와의 결합 양상은 다음과 같다.

(27) ㄱ. 격조사+접속조사: 께서와, 부터의, 서의, 에게나, 에나, 에서나, 에서와, 에서의 에의, 와의, 으로나, 으로써의, 으로의, 하고의
ㄴ. 접속조사+격조사: 용례 없음
ㄷ. 보조조사Ⅰ+접속조사: 만의
ㄹ. 접속조사+보조조사Ⅰ: 용례 없음
ㅁ. 보조조사Ⅱ+접속조사: 까지와, 까지의, 대로의, 마다의, 만치의, 만큼의, 뿐의
ㅂ. 접속조사+보조조사Ⅱ: 용례 없음
ㅅ. 보조조사Ⅲ+접속조사: 가량의, 께의, 끼리의, 들의, 들이나, 들하고, 씩의, 짜리와, 짜리의, 째의, 쯤의
ㅇ. 접속조사+보조조사Ⅲ: 용례 없음
ㅈ. 접속조사+접속조사: 용례 없음
ㅊ. 접속조사+특수조사: 하고요
ㅋ. 특수조사+접속조사: 용례 없음

남윤진(1997)에서는 접속조사와 접속조사가 결합할 수 없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7) 남윤진(1997)의 접속조사는 본고의 '병렬조사'와는 차이가 있다. 남윤진(1997)에서는 '의, 와/과, 하고, 이나, 이라든가, 하며'를 모두 접속조사로 보았다. '-의'에 대해서는 명사구와 서술어의 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명사구와 명사구의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접속조사로 분류하였다고 하였다.

본고 역시 병렬조사와 병렬조사는 중복 출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예가 있어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28) ㄱ. 철수하고랑 영희하고랑 놀아라.
ㄴ. 영희가 작년에 민수랑인가 경수랑인가 싸웠다.

위의 예문들은 병렬조사 '-하고', '-랑', '-인가' 등이 중복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8ㄱ)의 '-하고'와 (28ㄴ)의 '-랑'은 병렬조사가 아니라 서술어에 지배되는 공동격조사에 해당한다. (28ㄱ)의 '-하고'는 '놀다'로부터, (28ㄴ)의 '-랑'은 '싸우다'로부터 요구된 것이다. 이처럼 문장의 핵인 서술어와 이에 지배되는 개체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는 것은 격조사에 해당한다. 병렬조사는 서술어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고 개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격조사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렬표지와 공동격표지의 형태가 같고 의미상으로도 상당히 밀접한 면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이들 표지를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가, 형태만 같은 구별되는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한국어의 '와', '하고' '이랑'은 병렬조사로도, 공동격조사로도 사용된다는 점에서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와 관련된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별된다.

첫째, 병렬조사로서의 기능만을 인정하고 공동격구문은 병렬구조에서 도출된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는 김완진(1970), 김영희(1974)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논의에 의하면 접속구문과 공동격구문은 논리적 차이를 가지지 않으며 후자를 전자에서 변형하여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접속된 명사구 가운데 하나가 주제화된 결과로 공동격구문이 생성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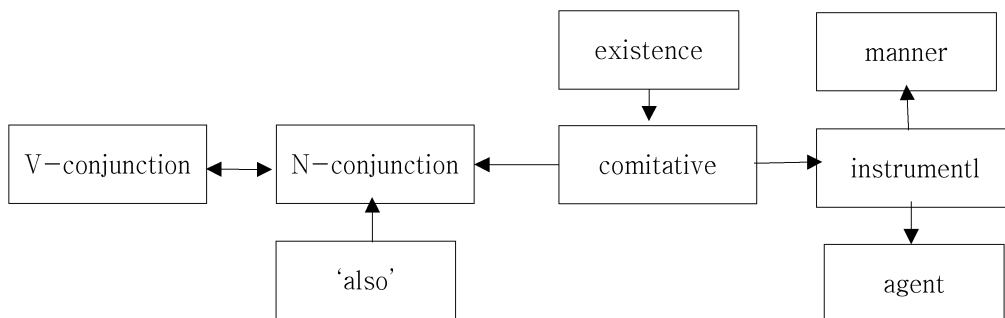
둘째, 이들이 접속기능과 공동격 기능을 각각 가진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으로는 김민수(1981), 이필영(1989) 등이 대표적인데 접속구문과 공동격구문은 상호 논리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며 양자는 동일한 기저구조를 가질 수 없다고 보았다.

세 번째는 격기능을 더 근원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박진호(1994: 33-34)에서

는 ‘철수와 영희’의 ‘와’와 ‘영희와 놀-’의 ‘와’는 동음이의 형태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구문 사이에 어떤 체계적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요소가 양쪽에 다 쓰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결국 ‘철수와 영희’의 ‘-와’는 ‘영희와 놀-’의 ‘-와’와 동일한 요소이며 ‘-와’가 두 가지 구문에 다 쓰일 수 있는 것은 ‘-와’의 선행 요소는 명사로 제한되지만 후행 요소는 명사일 수도 동사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세계 언어에서 병렬표지와 공동격표지가 같은 경우가 많고 이는 이들이 의미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영역에 해당한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하겠다. Haspelmath(2004: 20-26)에서는 병렬표지가 다른 통사적 기능을 겸하는 일이 종종 있으며 병렬표지와 다른 통사적인 표지들은 통시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는 공동격이 더 기원적으로 우선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박진호(1994)의 추론을 지지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1] 연접과 관련 기능의 통시적 연관 관계(Diachronic links between conjunction and related functions)(Haspelmath 2004)



그러나 본고는 공동격조사와 병렬조사의 기원과 의미에 일정한 연관성이 포착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체계적인 분포상의 차이를 보인다면 이를 별개의 것, 즉 동형어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문 사이에 어떤 기원적, 의미적 관련성이 있는 것과 그 둘을 같은 요소로 보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구문 사이에 기원적이고 의미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편으로 체계적인(특히 분포적인) 차이점도 보인다면, 이를 구별하여

파악하는 것이 문법 기술에 더 유용할 가능성이 높다. 병렬의 '-와'와 공동격의 '-와'는 그 분포에 명확한 구별이 있다. 우선 공동격의 '-와'는 후행 서술어에 의해 요구되나 병렬의 '-와'는 그렇지 않다. 또한 병렬의 '-와'는 바로 뒤에 후행 병렬항을 요구하지만 공동격의 '-와'는 반드시 자매항과 인접하여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한 문장에 병렬조사와 공동격조사가 함께 나타날 때는 반드시 같은 표지를 쓰지 않더라도 자연스러운 반면 한 문장 안에서 병렬조사끼리만 나타날 때는 같은 표지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29) ㄱ. 나는 철수하고 영희랑 같이 갔다.
ㄴ. 나는 철수랑 영희하고 같이 갔다.

위 예문들에서 앞의 '-하고'는 접속조사이고 뒤의 '-랑'은 공동격조사로 볼 수 있다. 이때는 각각에 다른 표지를 써도 허용이 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둘 다 병렬조사인 경우에는 다른 표지를 쓸 경우 어색한 문장이 된다.

(30) ㄱ. *철수하고 영희랑 착하다.
ㄴ. *철수랑 영희하고 착하다.

즉 한 문장에 병렬조사와 공동격조사가 함께 나타날 때는 반드시 같은 표지를 쓰지 않더라도 자연스러운 반면 한 문장 안에서 병렬조사가 여러 개 나타날 때는 같은 표지를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는 병렬조사와 공동격조사가 구별되는 분포 제약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들을 동일하게 처리할 수 없음을 뒷받침 한다.

셋째,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동격조사는 다른 병렬조사와 중복 출현이 가능한 반면 병렬조사끼리는 중복 출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공동격조사와 병렬조사를 별개의 것으로 보는 근거가 된다. 아래의 예문과 같이 공동격조사와 병렬조사는 중복 출현이 가능한 반면, 병렬조사는 중복 출현이 불가능하다. 공동격조사와 병렬조사는 다른 조사와의 결합 제약에 있어서도 별개의 특성을 가지는 것이다.

(31) ㄱ. 철수하고랑 영희하고랑 놀아라.
ㄴ. 영희가 작년에 민수랑인가 경수랑인가 싸웠다.

(32) ㄱ. *감하고랑 사과하고랑 가져왔다.
ㄴ. *철수랑인가 영희랑인가 예쁘다.

넷째, 공동격조사가 붙은 명사(구)와 병렬조사에 의해 연결된 명사(구)는 복수 의미를 나타내는 '-들'과의 공기에 있어서 다른 성격을 보인다. 다음 예문은 공동격조사가 결합한 명사(구)와 병렬조사가 결합한 명사구가 동일한 통사적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33) ㄱ.*영수는 철수와 돌아들 갔다
ㄴ. 영수와 철수는 돌아들 갔다

<병렬조사와 활용형>

지금까지 우리는 '병렬'조사를 '격'조사와 '보'조사로부터 구별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병렬'조사'를 조사가 아닌 것으로부터 구별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복합조사가 용언 활용형인가, 병렬조사인가 하는 것이다. 병렬조사 중에는 '-와/과'와 같이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일조사도 있지만 두 개 이상의 형태소가 하나의 조사로 역할하는 복합조사[8]도 존재한다. 특히 다음의 예문에 등장하는 '-이든', '-인가'와 같이 계사 활용과 관련된 형태, '-하며'와 같은 동사 활용과 관련된 형태는 계사/용언의 활용형인가, 조사인가 하는 문제가 불거진다.

(34) ㄱ. 내가 밥이든 술이든 살께.

8) '단일조사'와 '복합조사'는 단어 체계의 '단일어', '복합어'에 평행한 용어로 사용한 것이다. 이규호(2003)에서도 분석가능한 둘 이상의 형태소가 하나의 조사로 굳어진 것이라는 의미로 '복합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ㄴ. 철수가 내일인가 모레인가 집에 온다고 했어.

ㄷ. 영희는 사람 됨됨이하며 인물하며 어디 빠지는 데가 없어.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계사 활용형이 굳어진 조사의 경계에 대한 연구가 상당부분 축적되어 있다. 여기서는 채완(1993), 최동주(1999), 이규호(2003)를 중심으로 90년대 초부터 2000년대까지의 판별 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채완(1993)에서는 계사활용형과 조사의 판별을 위하여 생략된 주어를 복원할 수 있는가, '-었'이나 '-시'와 같은 선어말 어미의 개입이 가능한가, 모음으로 끝난 체언 아래에서 '이'가 필수적으로 생략되는가[9] 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최동주(1999)에서는 채완(1993)에서 제시한 생략된 주어의 복원 가능성과 관련된 기준은 배제하고 선어말 어미의 개입 가능성과 모음으로 끝난 체언 아래의 '이' 탈락 여부를 기준으로 인정하는 한편, 해당 형식의 통합관계, 즉 분포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통합 관계상의 분포 변화는 이전의 질서로부터 벗어난 것이므로 이는 문법화의 한 징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규호(2003)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기준들을 검토하여 '이'탈락 가능성, 통합관계의 변화, 통용성[10]이 계사 활용형과 조사를 판별하는 적절한 기준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기존에 가장 기본적인 판별조건으로 언급되어 왔던 계사의 서술성 확인과 관련된 기준들-생략된 주어의 복원 가능성과 선어말어미의 개입 가능성은 배제하였다. 주어의 복원 가능성과 선어말어미의 개입 가능성이 해당 구성이 아직 서술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문제의 형식이 조사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주어 명사구나 선어말어미가 나타나야 일반적인 구성일 텐데, 그것을 빠뜨리기 시작했다면, 문제의 형식이 문법화 하였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억양이나 반복 가능성과 관련된 기준도 활용할 수 있다. 최윤지(2011)에서는 '-인가'의 경우 조사로 사용되었을 때 의문문의 억양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

9) 채완(1993)에서는 계사 '이'의 경우 모음으로 끝난 체언 아래서는 수의적인 탈락 현상을 보이는 반면 계사의 활용형이 굳어져 조사가 된 경우에는 '이'가 필수적으로 탈락한다고 하였다.

10) 계사의 단순 활용형은 부사절을 이루는 선행절의 서술어로서만 쓰이지만 복합조사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로 두루 쓰인다는 것이다. (이규호 2003: 214-216)

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인가'에서는 의문의 의미와 종결어미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퇴색되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35) 철수가 [어제인가 그제인가] 집에 왔었다.

위와 같은 억양의 소멸은 병렬구성 '어제인가 그제인가' 부분이 하나의 단위로서 조사와 결합할 때 더욱 명백하다. 아래와 같은 문장에서 '-인가' 를 의문의 억양으로 발화하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 또 청자에게 철수가 집에 온 것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묻는 의문의 의미로 해석되지도 않는다.

(36) 철수가 [어제인가 그제인가]에 집에 왔었다.

이에 의하면 '의문'의 의미와 종결어미로서의 역할, 억양이 남아있는가 하는 점도 병렬조사와 의문 활용형의 판별에 보조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논란이 존재하는 것은 한국어가 병렬항의 통사 범주에 따라 병렬표지가 구별되는 언어 유형임에는 분명하지만, 이접의 경우 그 구별이 상당히 희석되는 언어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앞서 3.1에서 연접 의미를 주로 표상하는 병렬표지의 경우에는 병렬어미에 계사가 붙은 형식이 병렬조사로 굳어진 '-이'계 병렬조사가 아닌 예들(-와/과, -하고, -에, -에다 등)이 더 많은 반면, 이접 의미를 주로 표상하는 병렬조사의 경우에는 '-이'계 병렬조사(-이나, -이든지, -이든 등)가 거의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이접 의미를 주로 표상하는 병렬표지의 경우 활용형과 같은 형태를 사용하는 경향이 큰데, 이러한 현상이 누적되면 해당 활용형의 분포, 통사적 제약에 변화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모든 활용형식이 이러한 현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7) ㄱ. *철수는 커피하거나 녹차하거나 마셨다.
ㄴ. *영희는 쿠키이면서 케이크면서를 가방에 넣었다.

본고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기존에 제시된 모든 기준을 만족시키는 극소수의 형식만을 보수적으로 인정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아래의 기준을 충분조건으로서 고려하되 다양한 형식의 개개의 특성을 고려하여 병렬조사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는 목록을 포용적으로 선정하였다. 물론 이 목록은 언어 사용 양상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데, 특히 계사의 활용형이 급격히 문법화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할 것이다.[11]

(38) ㄱ. 형태적 기준: 계사 활용형의 경우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아래에서 '-이' 탈락이 필수적인가?

ㄴ. 기능적 기준: 활용형이 본래 가지고 있는 종결 및 연결의 의미와 역할에 변화가 있는가?

ㄷ. (보조적 기준으로써)음운적 기준: 의문이나 평서의 억양과 같이 활용형에서 동반되는 음운적 특징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가?

위의 기준들을 고려하여 본고에서 병렬조사로 판단한 문법형태소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39) -와/과, -이랑, -하고, -에, -에다, -에다가, -이네, -이니, -이다, -이라든가, -이라든지, -이야, -이요, -하며, -이고, -이나, -이며, -이건, -이든가, -이든지, -인지, -인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병렬조사와 관련하여 논의한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위와 같은 목록 선정에 관계되는지 '-도'(본고에서 병렬조사로 불인정)와 '-에'(본고에서 병렬조사로 인정)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병렬조사인지 확인하기 위해 어떤 특성들이 고려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된 우리의 논의를 되돌아보기로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병렬조사는 다음과 같은 차별적인 성격을 보였다.

---

11) 계사가 실질적 의미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40) ㄱ. 병렬조사끼리의 중복이 불가능하다.
ㄴ. 가시적인 대등한 자매항을 가진다.[12)]
ㄷ. 서술어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다.
ㄹ. 다른 요소에서 기원하였을 경우, 본래의 의미, 기능, 음운적 특성에 변화가 있다.

'-도'는 가시적인 자매항 없이도 나타날 수 있으며, 격조사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서술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출현할 뿐 아니라, 본래 보조사로서 가지는 의미나 기능, 음운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의 대부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반면 '-에'는 가시적인 자매항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또 병렬항과 병렬항의 관계에 관여할 뿐 서술어에 의해 요구되지 않으며, 본래 부사격조사로서 가지는 처소의미 등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진 점으로 미루어볼 때 부사격조사 '-에'와 동음이의 관계에 있는 병렬조사로 처리될 수 있다.

3.2.1.3. 병렬조사의 분포와 분류

병렬구성 내에서 병렬조사의 분포 양상은 한국어에서 가능한 병렬구성의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알아볼 수 있다.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국어에서 가능한 병렬구성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 병렬조사의 분포와 관련된 항목은 (41ㄱ)과 (41ㄴ)이다.

(41) ㄱ. [X1 co X2 co... Xn co]
예) 먹고 놀고 자고/ 떡이며 술이며 과일이며
ㄴ. [X1 co X2 (co... Xn)]
예) 착하며 예쁘다/ 책과 공책과 연필

12) 보조사의 경우 '잠재적인 자매항'을 가진다.

ㄷ. [X1, X2...Xn]

예)사과, 배, 감, 딸기/ 사과 또는 배 또는 감 또는 딸기

ㄹ. [X1X2...Xn]

예) 시어머니시아버지, 형제자매, 바보멍청이똥개, 눈코입

즉 병렬조사의 분포는 최종 병렬항에 표지되느냐, 되지 않느냐와 관계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지막 병렬항에 대한 병렬표지 유무와 관계된 문제는 중세국어 연구에서 병렬과 집단곡용 현상과 관련하여 주목받은 바 있다. 중세국어에서는 '-와/과'가 최종 병렬항까지 표시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는 점에서 현대국어의 분포 양상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점은 지금까지 한국어학계에 널리 알려진 현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왔다.

그러나 최종항 표지 여부 외에도, 다른 특성들이 병렬표지의 성격과 긴밀하게 관련된다. 표시의 필수성 여부와 표시에 따른 의미 차이 여부, 다른 표지와의 상호 작용 여부 등이 그것이다. 지금부터는 병렬표지의 최종항 표지와 관련된 더 치밀한 분석을 위한 몇 가지 특성을 제시한 뒤, 새로운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최종 병렬항에 병렬표지가 표시되는 것이 필수적인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구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아래의 (42ㄱ)의 경우에는 최종 병렬항에 대한 병렬표지의 부착이 필수적이지 않지만 (42ㄴ, 42ㄷ)의 경우에는 필수적이다.

(42) ㄱ. 밥이랑 떡이랑 국이랑 배부르게 먹었다/ 밥이랑 국이랑 떡을 배부르게 먹었다.

ㄴ. 밥이건 떡이건 배부르게 먹었다/ *밥이건 떡을 배부르게 먹었다.

ㄷ. 밥이다 떡이다 배부르게 먹었다/ *밥이다 떡을 배부르게 먹었다.

둘째, 최종 병렬항에 병렬표지가 표시된 전항 표지 구성과 최종 병렬항에 병렬표지가 표시되지 않은 최종항 무표지 구성을 모두 허용하는 병렬표지의 경우 그 의미가 똑같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즉 같은 병

렬표지를 사용하더라도 병렬구성의 구조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고'의 경우에는 최종항에 대한 병렬표지의 표시 여부가 그 구성의 의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이나'의 경우 최종항 무표지 구성인 '사장이나 직원'의 경우 대체로 배타적 이접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반면, '사장이나 직원이나'의 경우에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43) ㄱ. 밥하고 떡하고 국하고 먹었다. / 밥하고 떡하고 국을 먹었다.
ㄴ. 사장이나 직원/ 사장이나 직원이나

셋째, '-에', '-에다', '-에다가'와 같은 표지들의 문제이다. '-에, -에다, -에다가'가 병렬표지로써 사용된 병렬구성이 문장의 성분으로 사용될 때, 격조사가 결합될 수 없다는 특성을 지닌다. 다른 병렬표지들이 사용된 병렬구성에 격조사가 결합하여 문장의 성분으로 자유롭게 사용되는 것과 크게 비교된다.

(44) ㄱ. 철수가 밥이랑 떡이랑을 가져왔다.
ㄴ. 철수가 밥하고 떡하고를 가져왔다.
ㄷ. 철수가 밥이나 떡을 가져왔다.
ㄹ. 철수가 밥이며 떡이며를 가져왔다.
ㅁ. ?철수가 밥에 떡에를 가져왔다.
ㅂ. ?철수가 밥에 떡을 가져왔다.

'-에', '-에다', '-에다가'가 사용된 병렬구성의 경우 이들을 문장 안에서 어색하지 않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45ㄱ')과 같이 휴지를 사용하여 분리시키거나, (45ㄹ)과 같이 '-까지, -마저'와 같은 표현을 써야 한다.

(45) ㄱ. *철수가 사과에 배에 감에 사왔다.
ㄱ', 철수가 사과에 배에 감에... 과일을 많이 사왔다.
ㄴ. *철수가 사과에 배에 감을 사왔다.
ㄷ. *철수가 사과에 배에 감에를 사왔다.

ㄹ. 철수가 사과에 배에 감{까지, 마저} 사왔다.

정리하면 이 구성들이 격조사 없이 문장 안에서 성분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뒤에 최종 병렬항 뒤에 병렬항의 범위를 한정하는 의미를 가지는 '-까지, -마저'와 같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영어의 'both A and B', 'either A or B'와 같은 '상관적 병렬(correaltive coordination)'이 가지는 특성과 유사한 면이 있다. 영어의 상관적 병렬구성은 'A and B'와 같은 일반적인 병렬구성과는 구별되는데, 'both'가 'and'와, 'either'가 'or'가 짝을 이루는 방식으로 병렬구성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이 출현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병렬표지의 의미영역이 상대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한국어와는 달리 영어는 'and'와 'or'가 담당하는 의미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다. 이로 인해 화자가 원하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추가적 구조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어의 '-에, -에다, -에다가'가 이러한 이유로 병렬구성 뒤에 다른 표현을 요구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어의 '-에, -에다, -에다가'가 사용된 구성에 '-까지, -마저, -'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었을 때 얻게 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첫째, 낮은 정도의 망라성[13]이 보완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사과에 배에 바나나까지 가져왔다'라고 하면 철수가 가져온 과일의 범위가 어느정도 드러나게 되는 효과가 있다. 둘째, 부사격조사 '-에, -에다, -에다가'의 의미와의 혼동을 막는 효과가 있다. '산에 강에 들에 다녀왔다'라고 하면 이 때의 '-에'는 부사격 조사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Aco Bco]의 일반적인 병렬구성의 구조대로 '-에'가 사용되었을 때도 병렬조사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이다. 반면 '산에 강에 들까지 다녀왔다'의 '-에'는 반드시 병렬조사로 해석된다.[14]

본고에서는 이러한 성격을 보이는 '-에, -에다가, -에다' 등을 '상관적 표지'로 부르기로 한다. 한국어의 경우 영어의 상관적 표지와는 그 사용 동기에 다소 차이가

13) 망라성과 관련된 논의는 본고 4장 참조. 4장의 '망라성' 관련 정의를 미리 엿보면 '문맥이나 상황상 주어진 가능한 집합의 개체들을 모두 포괄하여 언급하는 성질'이다.

14) 부사격조사와 병렬조사가 사용된 구성에 각각 '-까지'를 붙여도 구별된다. '산에 강에 들에까지 다녀왔다'의 '-에'는 부사격조사이지만 '산에 강에 들까지 다녀왔다'의 '-에'는 병렬조사이다.

있으나, 병렬표지가 다른 요소와 어울려서 일정한 구조를 형성하여 사용된다는 점, 이를 통해 의미 해석이 좀더 명확해진다는 점의 공통점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병렬표지는 지금까지처럼 단순히 최종항 표지가 가능한 표지와 그렇지 않은 표지로 2분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체계로 더 세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6) ㄱ. 최종항 무표지 구성에만 참여하는 병렬표지
　ㄴ. 최종항 무표지 구성과 전항 표지 구성 모두에 참여하는 병렬표지
　　ㄴ-1: 두 구성의 의미가 동일한 병렬표지
　　ㄴ-2 : 두 구성의 의미가 다른 병렬표지
　ㄷ. 전항 표지 구성에만 참여하는 병렬표지
　ㄹ. 상관적 표지 구성에 참여하는 병렬표지

위의 각각에 속하는 병렬표지들을 조사와 어미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3] 병렬표지의 분포에 따른 조사와 어미 예

<table>
<tr><th colspan="2">분포</th><th>조사</th><th>어미</th></tr>
<tr><td colspan="2">ㄱ. 최종항 무표지 구성에만 참여하는 병렬표지</td><td>-와, -이요</td><td>-</td></tr>
<tr><td rowspan="2">ㄴ. 최종항 무표지 구성과 전항 표지 구성 모두에 참여하는 병렬표지</td><td>ㄴ-1: 두 구성의 의미가 동일한 병렬표지</td><td>-하고, -이랑, -인가, -인지, -이든가, -이든지, -이며, -하며, -이라든지, -이라든가,</td><td>-며, -면서, -든지, -거나</td></tr>
<tr><td>ㄴ-2 : 두 구성의 의미가 다른 병렬표지</td><td>-이나</td><td>-고</td></tr>
<tr><td colspan="2">ㄷ. 전항 표지 구성에만 참여하는 병렬표지</td><td>-이건, -이고, -이야, -이다, -이네,</td><td>-든, -건, -거니, -다가, -ㄹ락, -느니,</td></tr>
</table>

	-이든	-나, -ㄹ지
ㄹ. 상관적 표지 구성에 참여하는 병렬표지	-에, -에다가, -에	-

이와 같은 분류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몇 가지를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든/-이든'과 '-든지/-이든지', '-건/-거나'의 소속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들이 구별되는 형태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7) ㄱ. 내가 오든지 니가 가면 되지.
ㄱ'. ?내가 오든 니가 가면 되지.
ㄴ. 철수가 좋아하는 사과든지 귤을 가져와라.
ㄴ'. ?철수가 좋아하는 사과든 귤을 가져와라.

둘째, ㄴ-2에 속하는 '-이나, -고' 가 가장 쓰임이 빈번하고 의미 분화가 많이 된 축에 속하는 조사/어미라는 점이다. 빈번한 사용에 의해 동일 표지가 다양한 기능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상관적 표지에 속하는 세 종류의 병렬표지 '-에, 에다, 에다가'가 모두 '-에'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에, 에다, 에다가'가 공시적으로 부사격조사로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화자가 병렬조사로 '-에, 에다, 에다가'를 사용할 경우에도 이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점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에, -에다, -에다가'는 의미뿐 아니라 분포 면에서도 병렬조사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요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원적 기능에 해당하는 부사격조사로서의 기능과 빈도가 감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병렬조사에 비해 더 우월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병렬조사로 사용할 때 별도의 차별적 수단이 필요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2.2. 병렬어미의 통사적 특성

3.2.2.1. 병렬어미의 연결 단위

한국어 병렬구성에서 병렬되는 단위의 층위 문제와 관련된 논의는 연결어미의 성격과 관련하여 특히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병렬어미를 포함한 연결어미가 절만을 연결하는가, 아니면 단어, 구, 절에 걸쳐 다양한 단위를 연결하는가 하는 문제는 대체로 두 입장으로 나뉜다. 전통문법적 입장과 이를 계승한 논의와 변형생성문법적 입장과 이를 계승한 논의이다. 전자는 연결어미가 다양한 단위에 접미하여 단어, 구, 절 등 다양한 층위를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후자는 연결어미가 반드시 절과 절을 연결하고, 표면적으로 구나 단어가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구조들은 절과 절이 연결된 것에서 변형, 축소 등을 거쳐 만들어진 구조라는 것이다. 전자의 입장을 취한 논의로는 월의 구성 성분으로 낱말(단어), 이은말(구), 마디(절)를 둔 최현배(1937)와 이를 받아들인 박소영(2002), 고영근(1989)[15] 등이 있으며 후자의 입장을 취한 논의로는 허웅(1995), 윤평현(1989), 최재희(1991) 등이 있다. 본고의 입장은 이 중 전자에 해당한다. 즉 병렬어미를 포함한 연결어미가 절 이하의 다양한 층위를 연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외의 논의에서도 접속을 절과 절의 연결로만 파악하고 다른 구성들은 절과 절이 연결된 구성으로부터 생략이나 삭제를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온 입장(CCH: Clausal Conjunct Hypothesis)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이 꾸준히 발표되어 오면서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져 왔다. CCH에 반대하는 논의로 비교적 최근 논의인 Zhang(2010: 43-69)에서는 CCH에서 상정하는 삭제, 변형 규칙 등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들어 병렬의 층위를 단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6]

---

15) 고영근(1989: 406)에서는 단어접속과 문장접속을 나누고 각각에 속하는 어미들을 구별하였다.

16) Zhang(2010: 65-66)에서는 모든 접속문을 절과 절이 연결된 것으로 파악하는 절 접속 이론(Clausal Conjuct Hypothesis: CCH)이 다수의 최근의 논의에서도 건재하다며 이를

첫째, 많은 언어들에서 절 병렬과 구 이하의 병렬에서 각기 다른 병렬표지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Malagasy에서는 동사구 접속에는 'sy'가, 절 접속에는 'ary'가 사용되며 Somali에서도 절 접속에는 'na'가, 동사구 접속에는 'oo'가 사용된다.

둘째, 다음과 같은 문장들에 대하여 두 개의 절이 병렬된 다음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주어가 삭제된 것으로 파악할 경우 적절한 주어가 상정될 수 없다.

(48) ㄱ. The children are in the bathroom and in the living room
ㄴ. The planes flew above and below the clouds.

예를 들어 (48ㄱ)의 'The children'은 (48ㄱ)을 두 절로 나눌 경우 각각의 절에서 주어가 될 수 없다. 전체 아이들 중 일부가 목욕탕에 있고, 그 나머지 아이들이 거실에 있는 것이다. 또 이 문장은 각 그룹에 몇 명씩의 아이들이 있는지 말해 주지도 않는다.

한국어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비동일 성분의 생략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특히 비동일 논항 문제와 관련된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49) 철수는 옷을 다 버리고 새로 샀다.

위의 예문을 '[철수는 옷을 다 버리]+[철수는 옷을 새로 사]'와 같이 절과 절이 병렬되었다가 후행절의 '철수는 옷을'이 선행절의 '철수는 옷을'과 같아서 삭제되었다고 볼 경우, 버린 옷과 산 옷이 같은 옷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한편 병렬구성의 연결 층위와 관련된 한국어 논의로는 임동훈(2009)의 언급을 찾을 수 있다. 임동훈(2009: 99)에서는 절 이하의 병렬을 절 병렬로 환원하는 병렬문 축소를 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병렬문은 선행절과 후행절이 동등한 지위를 지니므로 동일 성분은 생략이 될 수 있지만 병렬문 축소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절 이하의 병렬을 절 병렬로 환원하는 병렬문 축소를 가정할 수 없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비판하였다.

첫째, 구 병렬과 절 병렬 간에는 일정한 의미 차이가 있다.

(50) ㄱ. 두 사람이 토플점수가 좋고 인터뷰 능력이 뛰어나다.
ㄱ'. 두 사람이 토플점수가 좋고 두 사람이 인터뷰 능력이 뛰어나다.
ㄴ. 누가 강남에 살고 외제차를 몰지?
ㄴ'. 누가 강남에 살고 누가 외제차를 몰지?

둘째, 일부 언어에서는 단어나 구 병렬을 절 병렬로 환원할 수 없는 구성들이 있다.

(51) ㄱ. I saw not John but Bill
ㄱ'. *I saw not John but I saw Bill

셋째, 절 병렬소와 구 병렬소가 구분되는 언어가 많이 있다. 구 병렬이 절 병렬로 환원될 수 있다면 서로 구분되는 병렬소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Zhang(2010)과 임동훈(2009)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와 관련된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한국어 역시 이러한 근거를 지지하는 언어의 예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다음은 특히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데 사용되고 절과 절을 연결하는 데는 사용이 극히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병렬어미의 용례이다. 이들 어미의 경우 결합 가능한 서술어 짝의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굳어진 어휘로 보기는 어렵다. 통사적 병렬구성과 형태적 구성의 경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단어만을 연결하는 병렬어미에 의해 연결된 통사적 병렬구성의 특수한 일종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52) ㄱ. 영수와 철수가 밤새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였다.
ㄴ. 영수가 책장을 [넘길락 말락] 하였다.

이 밖에도 병렬어미가 절과 절의 연결에만 관여하는 것으로 파악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공동 논항의 설명이 훨씬 복잡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다음과 같은 예문들을 모두 절과 절이 연결되었다가 변형, 삭제 등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경우 아주 복잡한 절차를 상정해야 한다. 그러나 '먹-'과 '마시-'와 같은 동사가 직접 병렬어미에 의해 연결된 것으로 볼 경우에는 그러한 복잡한 절차를 상정할 필요가 없다.

(53) ㄱ. 그날 밤만은 다들 밥과 술을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겼다.
ㄴ. 다들 우산이나 우비를 쓰거나 입어서 비가 와도 젖지 않을 수 있었다.
ㄷ. 참기름과 찹쌀 고추장을 직접 짜고 담가서 1년 이상 보관한 후에 사용하고 직접 담가 4~5년 숙성시킨 진간장을 사용해서 전주비빔밥 고유의 독특한 맛을 그대로 살려낸다. (이정훈 2006: 155)

위의 여러 논의에 기대어 볼 때 병렬어미는 다양한 층위를 연결하며 병렬구성과 관련하여서 축소, 변형에 의한 구성은 인정될 수 없다.

3.2.2.2. 병렬어미의 범위

한국어의 연결어미는 이른 시기부터 다양한 기준과 시각을 통해 폭넓게 연구되어 왔다. 아래에 정리한 연결어미의 분류 체계의 종류로도 연결어미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의 폭을 포괄하여 보여주기 어려울 정도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병렬어미는 의존어미라고 불릴 수 있을 어미류와 함께 연결어미를 구성한다. 아래와 같은 다양한 연결어미의 분류 체계 속에서 병렬어미는 어떻게 구별되며 그 범위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 확정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표 3-4] 선행 연구에서 기술한 연결어미 분류 체계

분류 기준	논저	연결어미 분류
의미관계[17]	최현배 (1937)	매는꼴, 놓는꼴, 벌림꼴, 풀이꼴, 견줌꼴, 가림, 잇달음, 그침, 더보탬, 더해감, 뜻함, 목적, 미침, 되풀이 (이음법의 끝바꿈 총 14가지)
	허웅	제약법, 불구법, 벌임법, 가림법, 의도법, 전환법, 비

	(1995)	교법, 동시법, 설명법, 비례법, 가치법, 더보탬법, 힘줌법, 연결법(총 14가지)
	권재일 (1985)	연결, 상대, 선택, 인과, 조건, 결과, 첨의(총 7가지)
	윤평현 (1989)	조건, 양보, 대립, 목적, 결과, 인과, 나열, 선택, 시간, 상황, 전환 (총 11가지, 윤평현(2005)에서 '부가' 관계가 추가됨)
	최재희 (1991)	병렬, 대립, 선택, 인과, 조건, 의도, 대조, 양보, 순차, 설명, 전환, 비례, 비유, 결과 (총 14가지)
	서정수 (1994)	병렬, 대조, 선택, 상황, 까닭, 조건, 양보, 결과, 동시. 순차, 전환 (11가지)
	이은경 (1995)	나열, 대조, 선택, 배경, 원인, 조건, 양보, 선행(총 9가지)
분포 및 결합 관계	서태룡 (1979)	■ '-았-, -겠-' 과 결합할 수 있고 특수조사도 결합할 수 있는 연결어미: 없음 ■ '-았-, -겠-' 과 결합할 수 있고 특수조사가 결합할 수 없는 연결어미: -고, -며, -도, -지만, -되, -면, -거든, -야, -니 ■ '-았-, -겠-' 과 결합할 수 없고 특수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 연결어미: -고서, -아서, -으면서, -으러, -으려고, -도록 ■ '-았-' 만 결합할 수 있고 특수조사도 결합할 수 있는 연결어미: -다가 ■ '-았-, -겠-' 과 결합할 수 없고 특수조사도 결합할 수 없는 연결어미: -자, -고자
	문숙영 (2009)	■ 시제어미 결합이 가능한 연결어미 -∅:-었-의 대립을 가지는 연결어미: -거나, -거니와1, -거늘, -거든, -거드면, -관대, -건마는, -고1(대등), -기로(-기로서, -기로서니, -기로선들), -기에, -나니, -노니, -노라고, -다가(-다, -다가는), -다시피1, -더라도, -(으)되, -든지, -듯이(-듯), -(으)니

		1(으니까, 이유), (으)나1(대조), -(으)나마, -(으)ㄹ지(-(으)ㄹ지라도, -(으)ㄹ지언정 등), -(으)ㄹ망정, -(으)ㄹ뿐더러, -(으)련마는, -(으)ㅁ에도, -(으)며1(열거), -(으)면, -(으)면서1, -(으)므로, -어도, -어야, -지, -지만 -느-/∅:-었-의 대립을 가지는 연결어미: -(으)니만큼, -(으)니만치 --느-/∅:-었느-의 대립을 가지는 연결어미: -(으)ㄴ데, -(으)ㄴ지, -(으)ㄴ지라, -(으)ㄴ바 ---느-/∅:-었더-의 대립을 가지는 연결어미: -라면, -(으)ㄴ들, -(으)니2 ▪ 시제 어미 결합이 불가능한 연결어미: -고2(종속), -고서, -고서야, -고서는, -고는1(-곤), -고는2, -고도, -고야, -고자, -거니, -거니와2, =건대, -게, -노라니, -노라면, -느라(느라고), -느니1, -느니만, -다가2, -다시피, -더니, -도록, -(으)나2, -(으)랴, -(으)러, -(으)려(-(으)려고, -(으)려거든, -(으)려면 등), -(으)리니, -(으)며2(동시), -(으)면서2(동시), -자, -자마자, -(으)ㄴ즉, -(으)ㄹ라치면, -(으)ㄹ수록, -어, -어다(-어다가), -어서
	박형진 (2008)	▪ 동일 시제 표지 생략 가능 연결어미: -고1, -거니와, -거나, -든지, -으나, -으면, -듯이, -다시피, -으니1 ▪ 동일 시제 표지 생략 불가능 연결어미:-으며1, -다가1
동일주어 여부	김진수 (1987)	▪ 동일주어 제약이 있는 어미: -려고, -고자, -다가 ▪ 비동일 주어도 허용하는 어미: -고, -며, -면서, -고서, -는데, -거니와, -도, -니, -면, -야, -도록

17) 의미 관계에 따른 분류와 관련하여 서태룡(1988)에서는 의미 범주 설정의 주관성에 대해 비판하였고 장경희(1995)에서는 비슷한 의미 범주들을 묶어 의미범주의 계층화를 시도하였다. 연결어미의 의미 범주와 관련하여 논저들마다 제각기 다른 분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논저에서 나열(병렬), 선택을 따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연결어미의 한 종류인 병렬어미는 다양한 변별적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그 양상이 간단하지 않아, 논쟁의 여지가 있는 지점도 여럿이므로 우선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요약하고 본고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한다.

병렬어미에 의한 병렬구성이 의존구성과 구별되는 특성은 서구 언어학과 한국어 언어학에서 모두 일찍이 큰 관심을 받아 왔다.[18] 이와 관련된 한국어 연구는 1980년대에 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최재희(1985ㄱ), 유현경(1986), 김영희(1988) 등이 이에 속한다. 그 중에서도 김영희(1988)에서는 본고의 병렬구성에 속하는 '등위접속문'의 통사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어 특기할 만하다.

김영희(1988)에서는 등위접속문의 특성을 준고유특성인 독립성과 고유특성인 대칭성으로 나누고 있다. 준고유특성은 일종의 필요조건이고, 고유특성은 필요충분조건이다. 독립성에 대한 실험으로는 문쪼개기, 부정의 영역 확인, 한정조사의 선행절과의 결합을 제시하였다. 이는 등위접속문을 이루는 절이 나머지 한 절로부터 독립된 성분일 경우 문쪼개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부정의 영역이 별개일 것이며, 한정조사가 결합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비롯한 것이다. 고유특성인 대칭성은 선·후행절의 자리 바꾸기, 선행절 옮기기, 접속사 되풀이 등이 가능한가를 살펴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영희(1988)은 병렬구성의 변별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방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논의라고 하겠다. 병렬구성의 변별적 특징으로 필요충분조건만을 가정한 많은 평면적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진일보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비교적 최근의 논의인 임동훈(2009)에서는 병렬문을 설정하고 그 변별 기준으로 제시되어 온 8가지 기준을 검토하고, 한국어에 적용시키기 어려운 기준들을 제외하였다. 임동훈(2009: 98-99)에서 제외된 기준들과 그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4) ㄱ. 독립적 언표수반력(illocutionary force): 한국어는 영어와는 달리 자립적인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18) 특히 Ross(1967)에서는 통사적 변별 조건을 정리하여 제시한 바 있다. 전국규칙(Across the board rule), 병렬구조제약(coordinate structure constraint) 등이 이에 속한다.

두 절이 접속사로 연결되는 접속사형 언어가 아니라 선행절이 자립적이지 못하고 병렬소가 어미로 실현되는 부동사형 언어이므로 언표수반력 기준은 한국어에 적용하기 어렵다.

ㄴ. 대용사 결속: 대용사의 해석은 선행사가 구조적으로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가와 관련이 있으며 종속과 병렬의 구별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ㄷ. 서술어의 비한정성(non-finiteness)[19]: 한국어는 인칭과 수 범주가 없으며 부동사형 언어이므로 비한정성 기준을 적용하여 병렬문 여부를 판정하기 어렵다.

ㄹ. 어순 차이: 한국어는 어순과 관련하여 병렬과 종속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병렬어미에 의해 연결된 병렬구성의 판별과 관련된 위와 같은 선행 연구에 기반하여 ① 판별 조건의 방향성을 고려하고, ② 한국어에 적용 불가능한 조건을 제외하기로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병렬어미에 의해 연결된 병렬구성의 판별 조건을 필요충분조건, 충분조건, 필요조건으로 나눈다.

첫째, 병렬어미에 의한 병렬구성의 필요충분적 특성은 대등적 다항 연결 가능성이다. 구성의 대등성은 대등적 다항 연결 가능성 확인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대등적 다항 연결 가능성은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항 이상이 대등하게 연결되는 특성이다. 즉 직접성분(IC)분석을 하였을 때 2항씩 여러 층위에 걸쳐 분석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격의 항들이 3항 이상 연결된 것으로 분석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쁜 내 꽃'은 [예쁜 [내 [꽃]]]으로 몇 층위에 걸쳐 2항씩 직접성분분석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봄][여름][가을][겨울]로 대등한 다항 구성을 이룬다. 이는 김영희(1988: 99-100)에서 '접속사 되풀이'로 제시한 현상과 상통한다. 병렬구성이 아니라면 이러한 현상을 관찰할 수 없으며, 억지로 만들더라도 상당히 어색하고 인위적인 문장이 된다. 그러나 병렬구성이라면 대등적 다항 연결이 가능하며, 역으로 대등적 다항 연결이 가능하다면 병렬구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충분조건으로 볼 수 있다.

19) 이 때 한정성은 인칭, 수, 시제 등 굴절 범주에 대한 최대 굴절의 가능성을 가리킨다.

(55) ㄱ. *비가 와서 땅이 질어서 신발이 더러워졌다.
ㄴ. *가을이 되어야 단풍이 들어야 경치가 좋다.
ㄷ.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지자 주인이 놀랐다.
ㄹ. *차가 빠지도록 군중이 길을 내주도록 경찰이 교통정리를 한다.
(김영희 1988: 99)

(56) ㄱ. 비는 내리고 날은 어둡고 갈 데는 없다.
ㄴ. 돌이가 남든지 석이가 남든지 만이가 남는다.
ㄷ. 명이가 노래를 부르며 순이가 춤을 추며 정이가 기타를 친다.
ㄹ. 구름이 끼었다가 눈이 흩날렸다가 해가 났다가…
(김영희 1988: 100)

다만 김영희(1988)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대칭성[20]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이는 대칭성보다는 대등성과 관계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특성은, 직접성분분석에 의해 핵과 핵이 아닌 것으로 2분지되지 않는 것과 관계되며, 중심성분과 주변성분이 상정되는 의존적 구성과 구별되는 대표적인 특성이라 할 것이다.

둘째, 병렬어미 확인을 위한 충분조건은 병렬항 간의 자리바꾸기이다. 병렬항 간의 자리바꾸기가 가능하면 그 어미는 병렬어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57) ㄱ. 엄마는 철수를 안고 아빠는 영희를 업었다.
ㄴ. 아빠는 영희를 업고 엄마는 철수를 안았다.

(58) ㄱ. 세탁기로 빨래하고 청소기로 청소한다.
ㄴ. 청소기로 청소하고 세탁기로 빨래한다.

20) 본고에서는 대칭성에 대하여 박진호(2009)의 다음과 같은 정의에 기반한다. 박진호(2009: 176)에서는 연결어미 '-면서'의 대칭적(symmetric) 성격에 대해 논의하면서 "aRb↔bRa이면 관계 R은 대칭적 관계라고 한다" 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때, 아래와 같이 이 두 가지 대칭성 시험이 완벽하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병렬어미가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9) ㄱ. 대리석을 깎고 다듬고 매만져서 만든 작품
ㄴ. ?대리석을 매만지고 다듬고 깎아서 만든 작품

일반적으로 조각을 할 때 먼저 깎아서 큰 형태를 만들고 다듬고 매만지는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뀔 경우 어색하다.

병렬어미는 의존어미에 비해 수가 적을 뿐 아니라 대부분 의존적 의미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는 박진호(2009)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실생활에서 두 사태나 상태가 완전히 대칭적인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는 점과 관계가 있다. 언어 표현에서 비대칭적 표현의 효용성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많은 수의 문법 장치를 할애하지 않는 것이다. 병렬어미들의 경우에도, 특히 '-고'의 경우 이러한 비대칭적인 용법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더이상 병렬어미로 보기 어렵고 '-고'가 다의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21] 이로 인해 엄격한 대칭성 시험만으로는 병렬어미를 다른 어미들과 구별하기 어렵다. 즉, 어떤 어미의 용법에서 대칭성이 확인될 경우, 해당 어미에 병렬어미로서의 용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완벽한 대칭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어미가 병렬어미가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셋째, 병렬어미 판별의 필요조건은 시제의 독립적 작용 가능성이다. 즉 병렬어미에 의해 연결된 병렬구성이라면, 시제가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필요조건이므로 그 역에 해당하는 각 병렬항에 시제가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면 병렬구성이다 라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60) ㄱ. 나는 어제 밥을 먹었고 철수는 지금 빵을 먹는다.
ㄴ. 영희는 작년에 취직을 했으며 철수는 내년에 유학을 갈것이다.

21) '-고'의 다양한 의미와 관련해서는 박형진(2008) 참조.

ㄷ. 나는 너에게 갔다가 가고 있었다가 갈 것이었다가

다만 이 필요조건은 모든 어미가 시제 형태소와의 결합에 있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어미에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의 시제 대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예문들에서 각 병렬항에 다른 시제 형태소가 결합할 수 없다고 해서 병렬구성이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이는 문숙영(2009)에 의하면 애초에 시제 형태소가 결합할 수 없는 어미이기 때문이다.

(61) ㄱ. 철수는 손을 내밀면서 인사했다.
ㄴ. *철수는 손을 내밀었으면서 인사했다.

문숙영(2009)에서는 시제 형태소와의 결합과 관련하여 연결어미를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제시한 바 있다. 시제 작용의 독립성과 관련한 어미의 성격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어미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62) ㄱ. 시제어미 결합이 가능한 연결어미

- -∅:-었-의 대립을 가지는 연결어미: -거나, -거니와1, -거늘, -거든, -거드면, -관대, -건마는, -고1(대등), -기로(-기로서, -기로서니, -기로선들), -기에, -나니, -노니, -노라고, -다가(-다, -다가는), -다시피1, -더라도, -(으)되, -든지, -듯이(-듯), -(으)니1(으니까, 이유), (으)나1(대조), -(으)나마, -(으)ㄹ지(-(으)ㄹ지라도, -(으)ㄹ지언정 등), -(으)ㄹ망정, -(으)ㄹ뿐더러, -(으)련마는, -(으)ㅁ에도, -(으)며1(열거), -(으)면, -(으)면서1, -(으)므로, -어도, -어야, -지, -지만
- -느-/∅:-었-의 대립을 가지는 연결어미: -(으)니만큼, -(으)니만치
- -느-/∅:-었느-의 대립을 가지는 연결어미: -(으)ㄴ데, -(으)ㄴ지, -(으)ㄴ지라, -(으)ㄴ바
- -느-/∅:-었더-의 대립을 가지는 연결어미: -라면, -(으)ㄴ들, -(으)니2

ㄴ. 시제 어미 결합이 불가능한 연결어미: -고2(종속), -고서, -고서야, -고서는, -고는1(-곤), -고는2, -고도, -고야, -고자, -거니, -거니와2, =건대, -게, -노라니, -노라면, -느라(느라고), -느니1, -느니만, -다가2, -다시피, -더니, -도록, -(으)나2, -(으)랴, -(으)러, -(으)려(-(으)려고, -(으)려거든, -(으)려면 등), -(으)리니, -(으)며2(동시), -(으)면서2(동시), -자, -자마자, -(으)ㄴ즉, -(으)ㄹ라치면, -(으)ㄹ수록, -어, -어다(-어다가), -어서

이 밖에 '-ㄹ락'의 경우에는 주로 '-ㄹ락 말락'의 구조[22]로 사용되어 '-ㄹ락 말락'의 형태로 굳어져 있어 경계적인 통사 구성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특수한 유형의 경우에도 적용하기 어렵다.

위에서 정리한 병렬어미 판별을 위한 필요충분조건, 충분조건, 필요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3) 병렬어미 판별 조건
ㄱ. 필요충분조건: 대등적 다항 연결
ㄴ. 충분조건: 자리바꾸기
ㄷ. 필요조건: 시제의 독립적 작용

그런데 병렬어미 목록을 정할 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종결어미들이 다음과 같이 병렬구성을 쉽게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64) ㄱ. 철수는 지금 [비자를 받는다 짐을 챙긴다] 정신이 없다.
ㄴ. 영희는 세뱃돈으로 [노트북을 사느냐 카메라를 사느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구성을 무표지 병렬로 파악하며, 이때 위의 예문들에 사용된 종결어미 '-다, -느냐' 를 병렬어미로 파악하지 않는다. 위의 예문들은 경우에 따라 인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인용표지가 나타나지 않고도 전혀

22) 이 구성은 5장에서 특수병렬구성으로 다시 다루기로 한다.

문제없이 성립할 뿐 아니라 특정한 발화자가 상정되지 않더라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인용된 것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를 고려하여 본고에서 잠정적으로 병렬어미로 판단한 문법형태소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65) 한국어 병렬어미: -고, -며, -면서, -든, -든지, -건, -거나, -거니, -다가, -ㄹ락, -느니, -니, -나

그러나 위에서 보인 목록은, 내포어미로도 나타날 수 있는 형태이다. 본고는 언어 형식과 기능의 관계와 관련하여 1형식 1기능이 아니라 1형식 다기능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이에 기반할 때 같은 형식이라 할지라도 다른 분포와 기능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보인 것은 그 기능 중 하나 이상이 병렬어미인 형태의 목록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 병렬어미로 판단한 것들 중 '-면서'와 '-며'에 대한 판별 과정과 병렬어미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어서'와 '-는데'를 그 예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은 '-면서'에 대한 《표준국어사전》의 기술이다.

(66) '-면서'

「1」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 따위가 동시에 겸하여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며02 「2」

「2」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가 서로 맞서는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면서' 「1」 은 대등적 다항 연결이 가능하며, 자리바꾸기가 가능하다. 단지 '-면서' 「1」 은 애초에 시제 결합이 불가능하므로 시제 작용 조건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결과를 종합할 때 '-면서' 「1」 은 병렬어미이다. 한편 '-면서' 「2」 는 시제의 독립적 작용과 관련된 필요조건과 자리바꾸기와 관련된 충분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필요충분조건인 대등적 다항 연결이 불가능하므로 병렬구성을 만들 수 없다.

다음으로 '-며'를 살펴보기로 한다. '-며'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기술은 다음과 같다.

(67) '-며'

「1」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 따위를 나열할 때 쓰는 연결어미.

「2」 =-으면서 「1」.

'-며'의 모든 용법은 병렬어미 판별의 필요충분조건, 충분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다만 필요조건에 해당하는 시제의 독립적 작용과 관련해서는 '-며'자체가 가진 시제 의미로 인하여 '-었'의 결합이 불가능하므로(문숙영 2009 참조) 판별 가능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나머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를 병렬어미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반면 '-어서'는 다음과 같이 같은 자격의 다항 병렬이 불가능하다. 아래의 (68ㄱ)의 예문은 다소 어색하나 수용가능한 것으로 느껴지지만, 이는 다항병렬된 것이 아니라 계층적으로 2항씩 연결된 것이 중첩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자리바꾸기가 불가능하다. 또 제약적으로 시제의 독립적 작용이 가능해 보이는 예도 존재하지만, 병렬어미 판별과 관련된 필요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쉽게 병렬어미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68) ㄱ. ?철수가 부모님과 싸워서 집을 나와서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ㄴ. 철수가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 철수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돈이 없다.

ㄷ. 철수가 건강했어서 가능한 일이다.

한편 '-는데'의 경우에는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은경(1995: 241-242)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에 대하여 대등접속문도 대칭성을 가지지 않기도 하고 종

속접속문도 대칭성을 가지기도 한다고 언급하였다.

(69) ㄱ. 철수는 건강한데 영희는 약하다 <->영희는 약한데 철수는 건강하다
ㄴ. 형은 작아도 동생은 크다 <->동생은 커도 형은 작다.

그러나 위의 예문들이 자리바꾸기 한 것을 같은 의미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선행절과 후행절이 같은 의미자격으로 결합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 구성이 자리바꾸기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였을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필요충분조건에 해당하는 대등적 다항 연결이 불가능하므로 이들을 병렬어미로 파악할 수 없다. 아래의 (70)은 때에 따라 병렬구성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병렬어미에 의한 병렬구성이 아니라, 무표지 병렬구성에 해당한다. 즉, '[철수는 이가 아픈데][영희는 배탈이 났는데][민수는 허리가 나았]다'와 같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의 '-는데'는 병렬어미가 아니다. '-는데'를 포함한 부사절 전체가 무표지로 병렬된 것이다.

(70) ?철수는 이가 아픈데 영희는 배탈이 났는데 민수는 허리가 나았다.

3.2.3. 무표지 병렬구성

우리는 앞 장에서 병렬구성을 그 구조를 토대로 분류한 바 있다. 그것을 다시 가져와 보이면 다음과 같다.

(71) ㄱ. 유표지 병렬구성 (일부 명사구 병렬, 모든 동사구 병렬과 절 병렬)
① 전항 표지 구성: [X1 co X2 co... Xn co]
예) 먹고 놀고 자고/ 떡이며 술이며 과일이며
② 최종항 무표지 구성: [X1 co X2 (co... Xn)]
예) 착하며 예쁘다/ 책과 공책과 연필
ㄴ. 무표지 병렬구성 (일부 명사구 병렬)

① 분리 구성: [X1, X2...Xn] - 병렬표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병렬표지의 자리에 휴지나 부사 등 다른 요소가 개재됨.

예)사과, 배, 감, 딸기/ 사과 또는 배 또는 감 또는 딸기

② 비분리 구성: [X1X2...Xn] - 형태적 구성과 경계적인 영역에 있음.

예) 어머니아버지, 형제자매, 바보멍청이

본고에서는 유표지 병렬구성의 경우에는 별도로 '유표지'를 붙이지 않고도 병렬구성으로 다루어 왔다. 본 절에서 다룰 무표지 병렬구성은 위의 (71ㄴ)에 해당하는 것이다.

병렬구성은 병렬표지의 존재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23] 병렬표지가 없이도, 병렬항이 '병렬'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일부 유표지 병렬구성과 크게 다름이 없는 의미해석을 입는다.

(72) ㄱ.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셔 와라.

ㄴ. 어머니아버지를 모셔 와라.

일반적으로 의미적으로 실세계에서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들의 경우 병렬구성에서 명시적인 표지를 사용하기보다는 표지를 동반하지 않고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Walchi(2003)에서는 '자연 병렬(natural coordination)'과 '우연 병렬(accidental coordination)'을 구별하면서 긴밀한 접속에 해당하는 전자의 경우 명시적인 형식적 수단을 사용하기보다는(표지를 넣기 보다는) 단순한 '병치(juxtaposition)'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종종 '병렬 합성어(coordinate compounds)'로 다루어진다고 하였다. 실제로 한국어에서도 '엄마아빠', '책상걸상'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데 비해 '할머니엄마', '책상옷장'은 부자연스럽고 '할머니와 엄마', '책상과 옷장' 등과 같이 고쳐야 자연스러운 느낌이 든다. 실세계에서 병렬항들이 맺고 있는 관계의 긴밀성이 표지의 유무에 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존

23) 그러나 절 병렬이나 용언(구)병렬의 경우에는 반드시 병렬어미가 필요하다. 이는 병렬의 특성이라기보다는 한국어 용언의 경우 어미 없이 자립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특성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재하기는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할머니, 엄마', '책상, 옷장'과 같이 통사론적으로 명시적인 표지를 넣지 않더라도 음운론적으로 휴지를 넣는 처리를 할 경우에는 다시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를 통해 병렬항 사이의 긴밀성의 표시는 통사론적 표지의 유무 뿐 아니라 형태론적 구성인가 여부와도 유관함을 알 수 있다.

(73) ㄱ. 병렬어: 찬반, 수정검토, 남여, 의식주
ㄴ. 무표지 병렬구성: 큰어머니큰아버지/ 사과, 배, 자두, 복숭아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사과, 배, 감, 귤'과 같은 구성이 정말 '무표지'이냐는 것이다. 음운론적 휴지 역시 음운론적 표지에 해당하며 이는 일종의 언어 표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무표지 구성에 대하여 통사적 역할이 명시적이고 음운론적으로 분절음의 형식을 갖춘 병렬표지가 나타나지 않는 구성인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과, 배, 감, 귤'과 같은 구성은 '무표지 병렬구성'에 해당한다. 둘째, '바보멍청이'나 '눈코입' 같은 구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들 구성은 음운론적으로 비분리적으로 나타나 형태적 구성인 병렬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나 그렇다고 단어로 보기는 어렵다. 이들은 병렬어와 통사적 병렬구성의 경계적 구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들을 병렬어로 처리하지 않고 병렬구성의 특수한 종류로 보기로 한다.

3.3. 요약

• 한국어 병렬구성에는 병렬표지로써 병렬조사, 병렬어미, 무표지가 병렬항의 문법범주에 따라 구별되어 사용되며, 병렬항 간의 의미 관계가 병렬표지 종류의 선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 병렬조사는 체언(구)와 명사구 상당어인 병렬항을 연결하는 병렬표지로서 격조사, 보조사와는 구별되는 성격을 지닌다. 병렬조사는 그 분포에 따라, 최종항 무표지 구

성에만 참여하는 병렬표지, 최종항 무표지 구성과 전항 표지 구성에 모두 참여하는 병렬표지(이는 다시 두 구성의 의미가 동일한 경우와 다른 경우로 구분된다), 상관적 표지 구성에 참여하는 병렬표지로 분류될 수 있다.

• 병렬어미는 용언(구)와 절을 연결하는 병렬표지로, 단어, 구, 절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의 언어 단위를 연결한다. 또한 병렬어미의 판별조건으로는 대등적 다항 연결 가능성(필요충분조건), 자리바꾸기(충분조건), 시제의 독립적 작용(필요조건)이 있다.

4. 병렬구성의 의미

4.1. 병렬구성 의미 기술의 방향

병렬구성의 의미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 것은 병렬구성의 범위와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고 2장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병렬구성의 의미 체계에 대한 선행 연구의 경향을 다음과 같이 두 갈래로 파악한 바 있다. 첫째는 논리학에서 이루어진 연접/이접의 대분류 체계를 차용하여 병렬구성의 의미 관계 체계를 세우는 방식(이하 '논리적 의미 체계')이고 둘째는 논리학적 분류 체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병렬표지의 의미기능에 따라 세분화하여 기술하는 방식(이하 '기술적 의미 체계')이다. 앞서 정리한 병렬구성에 대한 선행 연구의 의미 기술 양상을 두 갈래로 다시 보이면 아래와 같다.

(1) 병렬구성의 의미 체계

ㄱ. 논리적 의미 체계: 논리학에서 이루어진 연접/이접의 대분류 체계를 차용한 병렬구성의 의미 체계로 병렬항 간의 기본적 관계를 명료하게 밝힐 수 있어 대부분의 논의가 이 체계를 바탕으로 의미 기술을 해 왔다.

ㄴ. 기술적 의미 체계: 개개의 병렬표지의 의미 기능에 따라 세분화한 병렬구성의 의미 체계로 병렬표지 각각의 세부적 의미를 포착하여 기술하는 데 유용하다.

논리학에서는 복합 명제의 병렬에 대하여 연접(conjuction)과 이접(disjunction)을 구분하고 그것의 참과 거짓의 진리값은 해당 복합 명제를 구성하는 단순 명제의 진리 값에 의해 결정된다는 진리함수이론을 발달시켜왔다. 단순 명제 p, q가 구성하는 복합 명제 '$p \wedge q$' 와 '$p \vee q$' 는 p, q의 진리값의 조합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에서 비롯한 연접과 이접 개념은 언어학에서 병렬항 간의 의미적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병렬구성의 의미를 기술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대부분의

언어학적 선행 연구에서는 병렬구성의 의미를 기술하는 작업을 할 때 연접과 이접의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자연언어에서 나타나는 병렬구성과 논리 언어의 연접, 이접이 완벽하게 대응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논리학적 체계인 연접/이접만으로는 자연언어에서 나타나는 병렬구성의 의미 양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우선 자연언어에서는 오로지 병렬표지에 의해 병렬구성의 연접, 이접 해석이 결정되지 않는다. 논리 언어의 복합명제의 경우 단순 명제들을 연결하는 논리 기호 '∨', '∧'가 복합 명제의 성격을 결정짓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또 자연언어의 병렬구성에서의 병렬항들은 일정한 의미적 배경을 공유할 것이 요구되며 시간적으로 입체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존재하고 병렬항의 나열 순서에도 영향을 받는 등 논리학적 연접/이접의 개념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1]

반면 기술적 체계는 개개의 병렬표지가 가지는 의미기능에 따라 병렬구성을 세분화하여 기술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술적 체계는 분류에 자의성이 크게 개입되고 일관된 원리에 의한 체계를 세우기 어려우며 비경제적인 언어기술이라는 단점이 있다.[2]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동안 병렬구성의 의미 양상에 사용된 양 극단의 두 체계는 각각의 장단점을 지닌다. 우리는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반성적 성찰에 도달하였다.

첫째, 병렬구성의 의미기술은 표지 위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표지 외에, 전체 병렬구성의 구조, 병렬항의 의미, 병렬구성 사용의 화용적 조건 등이 협력적으로 병렬구성의 의미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둘째, 논리적 체계인 연접/이접의 구별만으로는 자연언어의 병렬구성의 다양한 의미를 기술하기 어렵다.

셋째, 기술적 체계의 경우에는 일관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

---

1)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본고 2장에서 다룬 바 있다.
2)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본고 2장에서 다룬 바 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본고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지 위주의 기술에서 벗어나, 병렬구성의 의미에 관여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

둘째, 기술적 의미 체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렬구성의 다양한 의미 양상을 일정한 의미자질로 포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다.

셋째, 그동안 병렬구성의 의미 기술에서 배제되어온 특수한 유형의 병렬구성도 관심을 가지고 관찰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아래 4장과 5장에 걸쳐 다음과 같은 지점에 주목하여 기술할 것이다.

첫째, 병렬표지에 집중한 논의를 넘어 병렬구성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제로 자연언어의 병렬구성의 사용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양한 요소가 병렬구성의 연접/이접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논리적 연접이나 이접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다양한 양상의 의미 해석이 이루어진다. 특히 자연언어에서는 오로지 병렬표지에 의해 병렬구성의 연접, 이접 해석이 결정되지 않는다. 논리 언어의 복합 명제의 경우 단순 명제들을 연결하는 논리 기호 '∨, ∧'가 복합 명제의 성격을 결정짓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병렬구성의 의미에 관심을 가진 많은 선행 연구에서는 병렬구성의 의미를 병렬표지와 관련하여 기술해 왔다. 김진수(1987), 이관규(1992), 이규호(2006), 이정화(1998) 등 한국어 대등문 구성이나 접속조사/어미 등을 다루어온 많은 선행 논의들에서는 이접과 연접의 의미 표상 양상보다는 병렬표지를 연접 표지와 이접 표지로 나누어 기술하는 데 집중하였다. 따라서 병렬표지의 의미를 제외한 연접이나 이접의 의미가 병렬구성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는가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찾기 어렵다.

많은 경우, 자연언어의 병렬구성에서도 대체로 '연접 표지'로 알려져 있는 표지가 들어있거나 '이접 표지'로 알려진 병렬표지가 사용된 경우 각각 연접, 이접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모든 자연언어의 병렬구성에 '연접 표지'가 들어가면

연접으로 해석되고, ‘이접 표지’가 들어가면 이접 의미인 것은 아니다.

(2) 이른바 ‘이접 표지’가 있어도 연접으로 해석되는 예
ㄱ. 국이든 반찬이든 너무 짜다.
ㄱ'. 국과 반찬이 너무 짜다.
ㄴ. 카페인은 커피 뿐 아니라 녹차나 홍차에도 들어 있다.
ㄴ'. 카페인은 커피 뿐 아니라 녹차와 홍차에도 들어 있다.

(3) 이른바 ‘연접 표지’가 있어도 이접으로 해석했을 때 문제가 없는 예
ㄱ. 노트북과 카메라 같은 전자기기
ㄱ'. 노트북이나 카메라 같은 전자기기
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사람이 먼저 되어야지.
ㄴ'.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사람이 먼저 되어야지.

위의 예문들은 이접 표지가 사용되어도 연접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거나, 연접 표지가 사용되어도 이접으로 해석하였을 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병렬표지 자체가 병렬구성의 연접, 이접 의미를 온전히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3) 표지 위주의 접근 방식만으로는 병렬구성의 의미, 화용적 양상을 밝혀내는 데 장애를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나’를 이접 표지로 ‘-고’를 연접 표지로 일괄적으로 파악하는 식으로 접근한다거나 병렬구성을 그 병렬표지만으로 연접이나 이접으로 규정하여 파악하는 방식을 지양한다. 그리고 병렬구성이 보여주는 다양한 의미 양상을 관찰하고 기술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한다.

예를 들어 아래의 예문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접 표지가 사용된 문장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의미 해석의 양상은 같지 않음을 보여준다.

(4) ㄱ. 지난 경기에서는 철수나 영수가 우승을 했다.

3) 그렇다고 우리가 이접의 의미를 주로 나타내는 표지와 연접의 의미를 주로 나타내는 표지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의 예문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연접 또는 이접의 표지가 결과적으로 해당 병렬구성의 연접 해석과 이접 해석을 완전히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편리하다.
ㄷ. 철수가 더치커피인지 뭔지를 사 왔다.
ㄹ. 윤지는 여행을 갈 때 초콜릿이나 껌을 가져간다.

위의 (4ㄱ)은 ‘철수’, ‘영수’ 중 한 명만이 우승일 것이므로 선택지 간의 관계가 배타적이다. 화자는 아마도 ‘철수’가 우승인지 ‘영수’가 우승인지를 모르는 상태일 것이다. 그라이스의 협력원리에 의하면 화자는 ‘철수’가 우승인지 ‘영수’가 우승인지를 아는 상태에서는 위와 같은 발화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4ㄴ)의 경우에는 다소 그 해석의 양상이 다르다. 화자가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둘 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이접의 표지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접과 같은 해석을 입게 된 것이다. (4ㄷ)은 화자가 ‘더치커피’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을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더치커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4ㄹ)은 ‘윤지’가 ‘초콜릿’을 가져가도 참이 되고 껌을 가져가도 참이 되고, 둘 다 가져가도 참이 된다.

둘째, 병렬구성이 보이는 의미적 변이에 관여하는 자질을 찾아 일관된 기술을 도모한다. 우리는 앞에서 병렬구성의 의미에 대한 논리학적 접근 방식이 자연언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의미적 변이를 치밀하게 포착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병렬표지 각각의 의미에서 출발한 기술적 의미 체계 역시 일관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며, 병렬구성 전체의 의미를 병렬표지에 의해서만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약점을 지닌다. 본고에서는 병렬구성의 의미를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하여 ‘망라성’, ‘적시성’, ‘배타성’, ‘선택지향성’과 같은 의미자질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우선 그러한 자질 중 하나인 ‘망라성’의 예를 들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아래의 두 예문의 의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5ㄱ)의 경우에는 아들이 가져온 것이 ‘사과, 배, 수박’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5ㄴ)의 경우 아들이 ‘사과, 배, 수박’ 외에 다른 과일도 가져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규호(2006)에서는 (5ㄴ)과 같은 경우 ‘예시’의 의미로 파악하고 있는데, (5ㄴ)의 병렬구성이 아들이 가져온 과일들 중 일부의 ‘예’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를

‘예시’로 명명하여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게 느껴진다.

(5) ㄱ. 아들이 사과하고 배하고 수박하고 가져왔다.
ㄴ. 아들이 사과며 배며 수박이며 가져왔다.

그런데 실세계의 목록을 모두 나열하지 않고 그 중 일부만 병렬구성으로 제시한 구성은 이규호(2006)의 체계에서 ‘예시’로 분류한 ‘에 에, 에다 에다, 에다가 에다가, 이네 이네, 이니 이니, 이다 이다, 이라든가 (이라든가), 이라든지 (이라든지), 이며 이며, 이야 이야, 이요 이요, 이랴 이랴, 하며 하며’의 13항목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6) ㄱ. 그 집 음식은 술이든지 밥이든지 떡이든지 맛이 있다.
ㄴ. 철수는 책이고 그릇이고 옷이고 버리고 떠났다.

위의 예문들에 사용된 ‘-든지’와 ‘-이고’는 위의 분류에서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지만, ‘예시’로 분류된 것들처럼 실세계에 대응되는 모든 목록을 제시하지 않고 일부의 대표적 예만을 부분적으로 제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점이 유사하다. 즉 이러한 의미는 특정 병렬표지에만 배타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 특성은 병렬구성과 관련된 일정한 의미 자질을 설정하여 일관된 원리에 의해 기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특성을 ‘망라성’으로 파악할 것이다.

셋째, 병렬구성의 다양한 변이를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병렬구성은 다음과 같이 상당히 다양한 변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좀더 치밀한 관찰에 의한 기술을 요한다. 다음의 예문들은 각각 본고에서 ‘교체 병렬’, ‘되풀이 병렬’, ‘아우름 병렬’, ‘유사 병렬’의 예로 다루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5장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7) ㄱ. 걷다가 토하다가 한 끝에 집에 도착했다.

ㄴ. 높디 높은 선생님의 은혜
ㄷ. 사과나 배나 과일 좀 사와.
ㄹ. 엄마가 아프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지?

이처럼 자연언어의 병렬구성의 사용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양한 요소가 병렬구성의 연접/이접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논리적 연접이나 이접의 의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다양한 양상의 구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병렬구성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의미 양상을 포착하고, 그 해석에 영향을 주는 어휘, 통사적 요소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4.2. 병렬구성의 의미와 병렬표지

병렬구성과 관련된 논의는 대체로 병렬표지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병렬표지로 사용되는 접속조사와 어미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면 병렬구성이라는 구조 자체에 관심을 가진 논의는 이관규(1992), 서형국(2005) 등으로 상대적으로 그 양이 적은 편이다. 본고는 병렬구성의 의미에 표지가 상당부분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에 연접 표지로 알려져 왔거나 이접 표지로 알려져 온 병렬표지들이 사용된 병렬구성이 반드시 그 표지의 의미대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다양한 요인이 병렬구성의 의미에 관여한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병렬구성의 의미는 병렬표지, 병렬구성의 구조, 병렬항의 의미, 병렬구성이 사용된 맥락이 종합적으로 관여하여 형성된다.

이 장의 논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소위[4] 이접 표지의 의미와 관련된 논의, 소위 연접 표지와 관련된 논의, 그리고 병렬구성의 의미가 결정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논의이다.

---

4) '소위'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본고에서 표지 자체를 '이접 표지', '연접 표지'로 구별하고 이 표지들이 사용된 구성을 '이접 구성', '연접 구성'으로 나누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본 장의 이어지는 부분에서 제시된다.

<소위 '이접표지'의 의미에 대하여>

많은 선행 연구에서는 병렬표지의 의미에 기대어 병렬구성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병렬표지의 의미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이접 표지의 의미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어 병렬표지를 대상으로 한 많은 논의들에서 포괄적 이접과 배타적 이접의 중의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바 있다. 허웅(1995)에서는 아우름과 가림의 두 뜻으로 쓰이는 이음토라는 의미로 '아우름-가림 맞섬토'라고 정의하였다. 김석득(1992)에서도 '-이나'와 같은 이음토씨는 가림과 안가림의 뜻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양인석(1973), 이기동(1993)에서는 이접 표지가 'A or B' 뿐 아니라 'Both A and B'의 의미도 가진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양인석(1973)과 이기동(1993)의 분석을 근거로 윤재학(2000)은 '-이나'의 의미를 'A or B', 'Both A and B', 'A and B'로 구별하였다. 심지어 Lee, Yae-Sheik (1995)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모두 포괄적 이접으로 보고 배타적 이접 표현은 'A아니면 B'로 한정하기도 하였다.

(8) ㄱ. 음료수나 빵을 주십시오
ㄴ. 마약이나 총기를 보면 압수하라.
ㄷ. 톰은 메리나 수를 만났다.
ㄹ. 메리나 빌이 왔다.

특히 윤재학(2000)에서는 이접 표지 '-이나'가 보이는 연접의 의미에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윤재학(2000)에서는 "오징어나 호두과자 있어요"라는 발화에 대하여 발화자의 입장에서 "오징어와 호두과자 있어요"라고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상인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수차례 받아 왔기 때문에) 질문이 발화되기 전에 이미 예측을 하고 그 '가상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대화의 상황상 시간적인 제약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므로 대화의 횟수를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상인의 이익과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함축 개념을 도입하여 이러한 양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함축과 관련하여 'and' 와 'or'의 의미를 설명하려는 논의는 그라이스의 대화격률을 바탕으로

척도 함축을 이용하였던 Horn(1976)과 Gazdar(1979)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그라이스의 대화 격률 중 양의 격률에 따라 화자가 가장 정보적인 발화를 하고 청자는 화자가 말한 것이 진실이라고 믿는다는 격률을 이론적 기초로 한다. Horn(1976)은 문장에서 'or'이 발화되었을 때 대체 가능한 어휘항목을 'and'로 보고(이를 혼-등급(Horn set)이라 한다) 'A or B'의 대안은 'A and B'이므로 척도함축은 ~<A and B>가 된다고 하였다. 척도 함축을 활용한 이러한 논의는 병렬구성의 의미적 해석의 가능성 중 일부 영역에 대해 매우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였지만 이예식(2005)과 Sauerland(2004) 등에 의해 'or'의 의미해석에 대하여 혼-등급보다 더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실제로 Horn(1976), Gazdar(1979)의 척도 함축 개념을 이용한 그라이스적 설명 방식이 이접의 다양한 의미 해석 가능성을 모두 포괄하는 데 있어서는 불충분한 면이 있었다.

한편 이접 표지의 사용과 불확실성 해석이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최윤지(2011)에서는 이접의 해석이 기본적으로 '의문'이나 '불확실성'의 의미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국어뿐 아니라 다른 언어들에서도 이러한 연관성이 다양하게 발견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병렬구성은 복수의 병렬항이 나열된다. 언급 대상이 되는 개체나 행위에 대하여 하나로 규정하지 않고 그보다 약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접 구성을 사용하는 동기는 불확실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나 늘 불확실성의 의미를 가지는 병렬표지가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러한 구성이 불확실성과 관련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화자는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호암교수회관'이 정확히 어디인지 모를 수도 있지만 잘 알고 있을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나타낸 것은 '호암교수회관'에 대한 자신의 낮은 평가를 표상하기 위한 표현적 욕구 때문이다.

(9) 호암교수회관인지 어딘지는 왜 이렇게 찾아가기가 어렵냐?

아래의 예문들은 일반적으로 이접의 표지로 알려진 표지를 가진 구성이라고 해도 단순히 '선택'의 범주에 머물지 않으며 다양한 해석의 양상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구조나 표지의 문제로만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특히 이접의 표지라고 알려진 표지들 중 다수는 의미상 명백한 연접으로 해석된다거나, 논리적 이접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10) ㄱ. 이번 시험에서는 철수나 영수가 1등이다.
ㄴ. 위스키나 코냑은 비싸다
ㄷ. 아이들이 스마트폰인지 뭔지를 사달라고 조른다.
ㄹ. 여자친구에게 반지나 목걸이를 사 줘야 겠어요.

(10ㄱ)은 '철수'가 1등이거나 '영수'가 1등이거나 둘 중 하나이다. 공동 1등과 같은 꽤나 예외적인 경우를 논외로 한다면 이 문장만으로는 반드시 그 둘 중 하나만 된다. 반면 (10ㄴ)의 경우 비싼 것은 '위스키'만이거나 '코냑'만인 것이 아니다. '위스키'와 '코냑'이 둘 다 비싼 것이다. (10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포괄적 이접'과도 차이가 있다. 포괄적 이접이 각각의 선택지 단독이 참인 경우와 모든 선택지가 해당되는 경우를 모두 포괄한 해석 가능성을 보이는 반면, (10ㄴ)과 같은 문장은 반드시 '위스키'와 '꼬냑'이 모두 해당되는 연접의 해석만 가능하다. (10ㄷ)은 구조적으로는 이접 구성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이접 구성과는 다른 의미를 보인다. (10ㄹ)은 포괄적 이접의 의미 해석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는 구성에 해당한다. '여자친구'에게 '반지'를 사줄 수도 있고 '목걸이'를 사줄 수도 있고, 둘 다 사줄 수도 있는 것이다.

<소위 '연접표지'의 의미에 대하여>

연접 의미는 대체로 배분적(distributive) 해석과 집단적(collective) 해석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다음은 각각 배분적 해석이 유력한 구성과 집단적 해석이 유력한 구성이다.

(11) 배분적으로 해석되는 구성
ㄱ. 철수와 영희가 머리가 좋다.

ㄴ. 철수랑 영희가 집까지 뛰어갔다.

(12) 집단적으로 해석되는 구성

ㄱ. 철수와 영희가 손을 잡았다.

ㄴ. 철수랑 영희가 연애를 했다.

이러한 의미의 차이는 표지에 의해 구별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연접 표지로 다루어져 온 '-이며' 나 '-에'는 집단적 의미로 잘 해석되지 않는다.

(13) ㄱ. 철수며 영희가 연애를 했다.

ㄴ. ?/*철수에 영희에 손을 잡았다.

하지만 표지에 의해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 예를 들어 다음의 예문은 중의적이다. '소년'과 '소녀'가 '책' 을각각 사왔을 수도 있고 '소년'과 '소녀'가 '책'을 한 권 같이 사왔을 수도 있다.

(14) [소년과 소녀]가 책을 샀다.

반면, 다음의 문장은 집단적 해석을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피아노'는 '소년'이나 '소녀'가 각자 나르기가 상당히 어려운 무거운 물건이기 때문이다.

(15) [소년과 소녀]가 피아노를 날랐다.

이 때 '각자', '각각'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경우, 쉽게 중의성이 해소된다.

(16) [소년과 소녀]가 각각 책을 샀다.

이 때 사용된 '각각'은 배분적 해석을 유도하는 어휘로 볼 수 있다. 전영철(2007: 333)에서는 배분성과 집단성이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문맥에서 부사 등에 의해 배

분성이나 집단성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동안 연접 구성이 집단적으로, 혹은 배분적으로 해석되는 현상은 병렬 조사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도 포착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어떠한 구조적 차이나 표지의 문제로 분석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배분성에 대한 의미/화용론의 선행 연구들과 관련하여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영철(2007)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맥에 의해 배분적 해석이나 집단적 해석이 확보된다는 것은 연접 구성의 해석과 관련해서도 관찰할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한 연접 병렬구성 예문을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17) ㄱ. [소년과 소녀]가 책을 샀다.
ㄴ. [소년과 소녀]가 피아노를 날랐다.
ㄷ. [소년과 소녀]가 각각 책을 샀다.

(17ㄱ) 예문이 가지는 중의성은 (17ㄴ)과 (17ㄷ)에서 상당 부분 해소되는데 이는 (17ㄴ)에서는 '피아노'가 혼자 들기에는 상당히 무거운 물건이라는 화용적 정보로부터, (17ㄷ)에서는 '각각'이라는 배분 부사로부터 가능한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병렬구성의 다양한 의미 해석 양상으로 인하여 병렬 관계를 연접과 이접으로 파악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서형국(2009)에서는 연접과 이접은 이분적 의미구조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화합 및 열거와 함께 삼분적 구조를 이루는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18) ㄱ. 화합구성: 접속 구성들이 하나의 단위로 해석됨
예)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
ㄴ. 열거구성: 접속항들이 여러 개의 대상으로 해석되나 배타적이지 않음
예) 법이나 믿음을 저버리면
ㄷ. 이접구성: 접속항들이 여러 개의 대상으로 해석되며 동시에 나타나면 모순되는 해석을 입음.
예) 철수가 지금 집이나 학교에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구분은 의미, 화용론적 차원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구조

적으로 특정한 구성으로 이를 규정하기는 어렵다.

<병렬구성의 의미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병렬구성의 의미는 표지, 즉 병렬조사나 병렬어미의 의미에만 기대어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 및 표지의 차원, 의미적 차원, 화용적 차원 등 다양한 차원의 요소에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요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병렬구성의 의미 결정에 관여하는지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9) 병렬구성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ㄱ. 구조 및 표지의 차원
　ㄴ. 의미적 차원
　ㄷ. 어휘적 차원
　ㄹ. 화용적 차원

구조 및 표지의 차원에서 병렬구성의 의미 해석 양상에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 예로는 병렬표지 자체가 배타적 해석을 만들어내는 '-인가'와 같은 것이 있다. 우선 '-이나'가 사용된 구성과 '-인가'가 사용된 구성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이나'가 사용된 구성이 철수가 반드시 둘 중 하나만 먹었다는 의미로는 잘 좁혀지지 않는 반면, '-인가'가 사용된 구성은 철수가 카레와 불고기 중 하나를 먹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20) ㄱ. 철수는 카레나 불고기를 먹었다.
　ㄴ. 철수는 카레인가 불고기인가를 먹었다.

한편, 특수한 병렬구성의 구조가 의미 해석에 영향을 끼치는 예로는 후행 병렬항이 '부정사+병렬표지'의 꼴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21) ㄱ. 난 스마트폰인지 뭔지 사기 싫다.

ㄴ. 어제는 여자친구인지 누군지를 만난다고 나갔다.

반면 의미적 차원에서 병렬구성의 해석 양상에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 예로는 후행 병렬항의 비하적 의미에 의해 결국 선행 병렬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와 병렬항이 반의항으로 구성되어 전수(全數)를 포괄하게 될 경우 전칭 해석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우선 전자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의 병렬구성들에서는 후행 병렬항의 '나발'과 '개뿔'이 지닌 비하적 의미로 인하여 복수의 병렬항 중 이 병렬항을 제외한 선행 병렬항을 지정하여 언급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22) ㄱ. 사랑이고 나발이고 이젠 필요 없다.
ㄴ. 사장인지 개뿔인지가 자기 욕심만 차리더라.

다음으로는 병렬항들 간의 의미 관계가 반의적 의미 관계로 구성되어 전수를 포괄하게 될 경우 전칭 해석이 일어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같이 반의어로 구성되어 전칭양화가 일어나는 병렬구성의 경우에는 반드시 최종 병렬항에도 병렬표지가 붙어야 한다는 특성이 있다.

(23) ㄱ. 철수는 안경을 쓰거나 벗거나 잘생겼다.
ㄴ. 여자든 남자든 들어올 수 있다.
ㄷ. 네가 알았든 몰랐든 제 시간에 와
ㄹ. 어른이거나 아이거나 교통질서를 지켜야 한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일찍이 양인석(1973: 108)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양인석(1973)은 다음과 같은 예문에 대하여 낮과 밤이 합쳐져서 하루를 구성하며 남자와 여자가 전체 인간을 구성하므로 반의항에 의해 총망라되어(exaustively enumerated), 결국 전칭양화 된다고 보았다. 병렬항이 담화역(universe of discourse)의 목록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망라하여 제시하는가와 관계된 논의는 본

고의 4.3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4) ㄱ. John은 낮에나 밤에나 공부만 한다.
ㄴ.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은 인간이다.

어휘적 차원에서 병렬구성의 해석 양상에 영향을 끼치는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5) ㄱ. 영희와 철수는 각각 모임을 가졌다.
ㄴ. 철수는 커피나 녹차를 다 잘 마신다.
ㄷ. 우리반 1등은 영희나 철수이다.

'각각'과 같은 어휘는 집단적 해석을 방지하고 배분적 해석으로 유도하게 되며 '다'는 배타적 해석을 중화시키는 어휘 표현이다. 또 '1등, 우승, 가장, 첫-, 마지막-' 등과 같은 유일성 표현이 사용될 경우, 포괄적 해석이 방지되면서 배타적 해석이 유도된다.

다음은 연어 관계에 의해 배분적 해석이 더욱 명확해지는 예이다. '고기-뜯다' '술-마시다' 라는 연어 관계에 의해 고기는 뜯었고 술은 마셨다는 짝이 더욱 명확해진다.

(26) 영희는 고기와 술을 뜯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화용적 차원에서 병렬구성의 해석 양상에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경우는 화자와 청자가 지닌 세계지식에 의해 병렬항으로 제시된 선택지들 간의 공존 가능성 등이 제약되는 예들이 해당된다. 아래의 예들이 이에 해당한다.

(27) ㄱ. 영희는 새누리당이나 진보신당을 지지한다.
ㄴ. 승호는 엘지트윈스나 두산베어스의 팬이다.

현재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정보가 있는 화청자는 보수적인 정당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과 진보적인 정당으로 분류되는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공유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병렬구성은 배타적 해석으로 그 해석 가능성이 제한된다. 마찬가지로 '엘지트윈스'와 '두산베어스'는 서울 지역의 라이벌 야구팀으로 이 두 팀을 동시에 응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화용적 정보가 공유되었을 때 배타적인 해석으로 제한된다. 이는 표지나 구조의 차원, 혹은 의미적 차원에서 그 해석의 양상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예에 해당한다.

또한 화자가 처음부터 명백히 하나의 선택지만을 의도한 발화를 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예도 화용적 차원에서 해석 양상이 결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문장은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8) (엄마가 중학생 아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공장엘 나가든지 마음대로 해!"

'엄마'가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공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는 선택지를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선택지와 동등하게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화용적 지식이 있을 때, 결과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위와 같은 차이는 의미해석의 문제로 전적으로 구조적 특성이나 병렬표지 등에만 기대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접 병렬표지, 혹은 이접 병렬표지로 알려진 것이라고 해도 항상 연접 의미나 이접 의미만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며, 같은 문장이라도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중시하여 병렬표지만으로 병렬구성 전체의 연접/이접이 결정되지 않음을 다양한 해석의 양상을 통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결코 병렬표지의 의미가 비어있다거나, 병렬구성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 아니다. 배타성의 의미를 예로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등', '-등등', '-같은'과 같은 표현은 배타성을 중화하는 표현에 해당한다. 이 표현들이 사용되면 병렬항들 간의 관계가 더이상 배타적으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다.

(29) ㄱ. 철수는 커피나 녹차나 홍차 등등을 마셨다.
ㄴ. 철수는 커피나 녹차나 홍차를 마셨다.

그러나 이러한 배타성 중화 표현들이 아무데나 붙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병렬표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를 제약하기 때문이다. 병렬표지 중에는 항상 배타성 해석을 요구하는 병렬표지도 있고, 항상 배타성 해석이 불가능한 표지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배타성 해석을 입을 수도 있는 표지도 있다.[5)]

(30) ㄱ. 배타성 배제 표지 : -와/과, -하고, -이며 …
ㄴ. 배타성 중립 표지 : -이나, -거나. -든지 …
ㄷ. 배타성 확인 표지 : -인가, -인지 …

'-등', '-등등'은 (30ㄱ), (30ㄴ)에 붙을 수 있다. (30ㄱ)에 붙을 경우 낮은 망라성을 표시하며 (30ㄴ)에 붙을 경우 낮은 망라성을 표시하면서 배타성 해석 가능성을 제거한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접의 의미를 주로 나타내는 표지와 연접의 의미를 주로 나타내는 표지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연접 또는 이접의 표지가 결과적으로 해당 병렬구성의 연접 해석과 이접 해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구조적, 의미적, 화용적 요인과 협력적으로 작용하여 병렬구성의 의미를 만들어낸다.

4.3. 병렬구성의 의미자질

우리는 앞 장에서, 병렬구성의 의미를 기술하는 데 사용되어 온 다른 두 가지 방식의 체계의 장단점을 충분히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병렬구성의 의미를 일관되게 기술할 의미자질의 설정을 제안하였다. 본고는 이 장에서 병렬구성의 의미

5) 이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본고 4.3.2. 참조.

를 기술하기 위한 자질로서 '망라성', '적시성', '배타성', '선택지향성'을 제시하고, 이들 자질 하나하나의 성격을 살펴본 뒤에 이를 통해 병렬구성의 의미가 어떻게 기술될 수 있는지를 보이기로 한다.

4.3.1. 망라성과 적시성: 병렬항과 담화역의 관계

4.3.1.1. 망라성

우리는 병렬구성은 나열된 병렬항들 사이에 위계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등위적인 구성임을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우리는 병렬구성을 통해 언급대상이 되는 것을 동등한 자격으로 나열하여 표상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문맥이나 상황상 주어진 가능한 집합의 구성 요소들을 모두 빠짐없이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병렬구성은 태생적으로 의사소통의 효율성 측면에서 약점을 가진다. 병렬구성은 언급 대상이 되는 것들을 병렬항으로 나열하여 표상하는데 가능한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면 모든 개체들을 빠짐없이 나열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최소한 미처 빠짐없이 나열하지는 못하였다는 정보를 청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개념이 '망라성(exhaustiveness)'이다. 충실한 의사소통을 위해, 병렬구성을 만들어 내고 사용하는 화자는 그 병렬구성안에 모든 정보를 다 망라했다거나 혹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거나 하는 정보까지 전달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

망라성은 문맥이나 상황상 주어진 가능한 집합의 개체들을 모두 포괄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청자에게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그라이스의 격률에 따르면 화자는 최대한 망라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표현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만약 망라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망라성을 확보하지 않았음(불확실성)을 명시하는 전략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A, B, C, D가 학교에 갔고, 화자가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예를 들어 'A와 B와 C와 D가 학교에 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A, B, C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지만 나머지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때는 위와

같이 표현할 수가 없게 된다. 'A B, C가 학교에 갔다'고 하면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지 않은 것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A, B, C 등등이 학교에 갔다'는 식으로 표현함으로써 A, B, C까지는 정확한 정보이나 이것이 망라성을 갖춘 완벽한 정보는 아님을 '-등등'을 통해 표시하는 것이다.6)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언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목록의 개체가 다수일 경우 화자가 그 목록을 정확히 알고 있고, 그 목록을 빠짐없이 전달하는 상황보다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더 많을 것이다. 따라서 많은 경우, 화자가 병렬구성을 사용할 때는 자신이 제시하는 목록이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표시하기 위한 장치를 사용하게 된다. 이는 특정한 병렬표지로 문법화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일종의 '울타리 표현(hedge)'을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일부 언어에서는 망라성이 문법화되어 실현되는 예를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은 Wilkins(1994)에서 제시한 Mparntwe Arrente(Pama-Nyuangan)어의 명사구 병렬의 예이다.

(31) atne-le, perete-le
stick-Inst rock-Inst
'with stick and with stoens'

이 때 'le'를 개체마다 모두 붙여 사용할 경우 담화역(the universe of discourse)의 모든 관련된 개체를 다 망라할 필요는 없다.

반면 다음과 같이 'kerte'를 사용할 경우에는 담화역의 모든 관련된 개체를 망라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 때 'kerte'는 마지막에 한 번만 쓴다.

(32) arlkwerte, amirre, irrtyarte, ante alye-kerte
shield, womera, spear and boomerang-purposive

6) 이 때 '등등'이 아니라 '등'을 사용하면 우리는 이중적인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이는 '등'의 특수성과 관련된다. 재미있게도 '등'은 목록이 총 망라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표지로도 사용되지만 목록의 열거를 빠짐없이 마쳤음을 나타내는 표지로도 사용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등'의 경우는 '-등'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정보도 주지 못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본장의 이어지는 부분에서 제시된다.

'with a shield, a spear-thrower, spears and a boomerang'

한편 Ohori(2004)에 의하면 일본어의 경우 'ya'는 언급된 개체들에 대해 더 넓은 범위의 개체들의 존재를 암시한다. 문장 표면에 드러난 것은 책과 잡지뿐이지만 그 밖의 것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도 배제하지 않는 표현이다.

(33) hon ya zasshi
book and magazine
'books and magazines'

한국어에서도 일부 병렬표지와 관련하여 '망라성'이 표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와/과'에 비해 '-이며'에 의해 연결된 병렬구성의 망라성이 더 낮은 경향이 있다.

(34) ㄱ. 아들이 사과와 배와 수박을 가져왔다.
ㄴ. 아들이 사과며 배며 수박을 가져왔다.

(34ㄴ)의 경우에는 '아들'이 가져온 '과일'의 종류가 조금 더 있을지도 모르지만 (34ㄱ)의 경우에는 (34ㄴ)에 비해 그러한 의미가 상당히 약하다. 문장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뭔가 '아들'이 가져온 '과일'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은 (34ㄴ)의 경우 좀 더 풍부하고 넉넉한 느낌을 준다. 이는 위의 두 문장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보았을 때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35) ㄱ. 아들이 사과와 배와 수박만을 가져왔다.
ㄴ. *아들이 사과며 배며 수박만을 가져왔다.

목록을 한정하는 기능을 하는 조사 '-만'과 공기할 때 위의 (35ㄱ)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면 (35ㄴ)은 아주 부자연스럽다. 이는 (35ㄴ)의 병렬표지 '-이며'가 가지는 낮은 망라성의 의미와 그 의미에서 파생되는 풍부함이나 넉넉함의 의미가 조사 '-만'의 한정적 의미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한국어에서 이러한 망라성과 관련하여 병렬표지의 의미를 논의한 선행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다만, 김승곤(1978), 윤평현(2005)에서 '-거나'와 '-든지'에 대하여 전자를 '지정선택', 후자를 '부정선택', 혹은 '개방선택'으로 의미를 기술하면서 '-거나'와 '-든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가 다르다는 논의를 하기도 하였다. 김승곤(1979)에서는 '-거나'를 지정선택, '-든지'를 부정선택이라 하였다. 즉 지정선택과 부정선택이 병렬표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된 가장 최근의 논의인 윤평현(2005: 66-70)을 살펴보면 '-거나'가 나타내는 지정선택이란 문장표면에 드러나는 것 중에서 꼭 선택되어야 하는 강한 지정을 의미한다. 이를 본고의 논의와 관련시켜 이해한다면 '-거나'는 선택 가능한 대상을 모두 망라하여 제시한다는 것이다. 반면 '-든지'가 수행하는 개방선택이란 문장 표면에 드러난 것 뿐 아니라 문장 밖의 것까지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고의 논의와 관련시켜 이해하면 '-든지'는 선택 가능한 대상을 모두 망라하여 제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표시하는 표지인 셈이다. 이를 예문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6) ㄱ. 순이가 오거나 돌이가 오거나 할 것이다. (지정선택)
ㄴ. 순이가 오든지 돌이가 오든지 할 것이다. (개방선택)

윤평현(2005)에 따르면 위의 (36ㄱ)의 경우 '순이'가 오는 것과 '돌이'가 오는 것 외에 다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36ㄴ)의 경우에는 '순이'가 오는 것과 '돌이'가 오는 것 외에 다른 일이 일어날 가능성-예를 들어 '철수'나 '영수'가 오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윤평현(2005)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였는데 그 근거로 제시된 아래의 예문들은 본고의 직관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본고는 아래의 모든 예문에서 크게 부자연스러운 면을 찾기 어려우며, '-거나'와 '-든지'의 교체만으로는 망라성과 관련된 특별한 의미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첫째, 부정대명사가 가지는 비제한적 의미와 지정성이 충돌하여 지정선택에 부정대명사를 넣으면 어색하다. 반면 개방선택의 경우에는 자연스럽다.

(37) ㄱ. ??여흥 시간에는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거나 무엇인가 해야 한다.
ㄴ. 여흥 시간에는 노래를 하든지 춤을 추든지 무엇인가 해야 한다.

둘째, 상위문이 명령문일 경우 완곡한 표현으로 '-든지'가 선호된다.

(38) ㄱ. 밥을 드시거나 빵을 드시거나 하세요.
ㄴ. 밥을 드시든지 빵을 드시든지 하세요.

셋째, 선택명제에 개방성이 없다고 단정되는 상황에서는 '-든지'가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사 '틀림없이'와의 공기가 제약된다.

(39) ㄱ. 틀림없이 돌이가 오거나 순이가 오거나 할 것이다.
ㄴ. ?틀림없이 돌이가 오든지 순이가 오든지 할 것이다.

'-거나'와 '-든지'의 의미차이와 관련된 위와 같은 진술은 문장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암시의 의미가 언어적으로 표현될 수 있음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거나'와 '-든지'의 교체만으로는 그러한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없었다는 한계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한국어 병렬구성의 망라성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가? 이에 대해 문법적 수단에 의한 표현, 구조적 수단에 의한 표현, 어휘적 수단에 의한 표현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문법적 수단에 의해 망라성이 표시되는 경우이다. 다음의 예는 병렬표지에 의해 망라성이 표현되는 예이다.

(40) ㄱ. 흥부가 박을 타니 쌀이며 고기며 돈이며 금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ㄴ. 마돈나하며 브루노마스하며 머라이어캐리하며 기라성같은 팝스타들이 내한 공연을 한다.

'-이며, -하며' 와 같은 병렬표지가 사용될 경우 해당 병렬구성은 망라성이 낮은

목록으로 여겨진다. 이는 병렬표지 '-와'와 비교할 때 더욱 명백하다. 흥부가 탄 박에서 '루비반지'나 '명품가방'이 나왔을 경우 (41ㄱ)보다는 (41ㄴ)과 같은 형식이 선호될 것이다.

(41) ㄱ. 흥부가 박을 타니 쌀과 고기와 돈과 금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ㄴ. 흥부가 박을 타니 쌀이며 고기며 돈이며 금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둘째, 망라성이 구조적 수단에 의해 표현되는 경우이다. 병렬구성에서 최종 병렬항 표지 구성은 최종 병렬항 비표지 구성보다 망라성이 낮다. 같은 병렬표지가 사용되더라도 최종 병렬항에까지 병렬표지가 붙느냐 붙지 않느냐에 따라 망라성의 정도에 차이가 난다. 최종 병렬항에까지 병렬표지가 붙어있을 경우, 언급되지 않은 대상이 더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는 경향이 있는데, 아래의 예문을 보면 최종 병렬항에까지 '-며'가 붙어 있을 경우 철수가 먹은 술의 종류가 더 많다는 함축이 생긴다.

(42) ㄱ. 철수가 맥주며 소주며 위스키를 먹었다.
ㄴ. 철수가 맥주며 소주며 위스키며를 먹었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양인석(1973: 106-115)에서 조사 '-나'의 기능과 관련하여 열린 집합(open set)과 닫힌 집합(colsed set)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을 시도한 바 있다.

(43) 열린 집합(Open set)
ㄱ. 토요일에나 일요일에나 만납시다.
ㄴ. 소금이나 간장이나 고추장이나 주세요. (or something like that)
ㄷ. 그 나무를 톱으로나 도끼로나 패세요.

(44) 닫힌 집합(Closed set)
ㄱ. 토요일에나 일요일에 만납시다.
ㄴ. 소금이나 간장이나 고추장을 주세요.

ㄷ. 그 나무를 톱으로나 도끼로 패세요.

열린 집합의 경우에는 명시되지 않은 항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을지라도, 명시된 병렬항들 이외의 다른 유사한 항들이 선택될 수 있을 정도로 잠재적으로 열려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토요일에나 일요일에 만납시다"라고 할 경우에 만약 다음 월요일이 휴일이고, 대화 참여자들이 그 날이 더 편리하다고 동의한다면, 심지어 월요일이 모임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사하게, "소금이나 간장이나 고추장을 주세요"라고 할 경우 소금, 간장과 고추장이 모두 떨어졌다면, 고객은 어떤 다른 대체물들로 만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때 열린 집합과 닫힌 집합의 형식적인 차이는 열린 집합의 마지막 항에도 '-나(or)'가 붙어 있다는 점이라고 하였다. 양인석(1973)의 이러한 통찰은 본고의 망라성 개념과 가장 근접한 것으로 그 중 특히 최종 병렬항에 병렬표지를 연결하는 구조적 수단에 의한 망라성 표시 전략에 대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망라성이 어휘적 수단에 의해 표현되는 경우이다. 낮은 망라성 정도를 표시하는 대표적 어휘적 수단으로는 '-등', '-등등', '따위'와 같은 표현이 있다.

(45) ㄱ. 철수는 맥주, 소주, 위스키 등을 좋아한다.
ㄴ. 철수는 맥주, 소주, 사케, 위스키 등등을 좋아한다.

이 때 다소 특이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등'과 '-등등'의 차이가 그것이다. 이는 '-등'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데, '-등'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기술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46) '-등'
「의존명사」
「1」((명사나 어미 '-는' 뒤에 쓰여))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2」((명사 뒤에 쓰여))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함을 나타내거나 열거한 대상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

흥미롭게도 '등'은 목록이 총망라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표지로도 사용되지만 목록의 열거를 빠짐없이 마쳤음을 나타내는 표지로도 사용된다.7) 결과적으로 '-등'의 경우는 '-등'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정보도 주지 못하게 된다. 이현희(1994: 47)에서는 '돌'과 '等'은 두 가지 뜻을 가진다고 지적 한 바 있다. 하나는 벌려 놓은 것, 즉 '等所列'을 다 가리키는 것이요, 또 하나는 그 외의 나머지 '等所餘'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이다.

(47) 철수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을 여행하였다.

이 때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고칠 수 있다. (48ㄱ)은 열거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되고 (48ㄴ)은 열거한 대상 외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게 된다. 이는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기가 어렵다.

(48) ㄱ. 철수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 세 지역을 여행하였다.
ㄴ. 철수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 전국을 여행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등'이 사용된다. '-등등'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 의 기술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49) -등등
「의존명사」
(명사나 어미 '-는' 뒤에 쓰여) 그 밖의 것을 줄임을 나타내는 말.

'-등등'은 '-등'의 「1」 의미만으로 사용된다. 즉 '-등등'만이 낮은 망라성 정도를

7) 이러한 특성은 중국어의 '等'의 용법과도 일치한다. 본래 중국어 '等'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어에는 특히 비격식체에서 낮은 망라성을 표시하는 어휘적 수단으로 '什么的(shenmede)'도 존재한다.

표시하는 진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한편 '따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용법을 지닌다. 하나는 (50)과 같이 제시된 목록 외에 다른 것들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낮은 망라성을 표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51)과 같이 제시한 대상에 대한 낮은 평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두 가지 용법 중 전자가 망라성 표현의 어휘적 방법에 해당한다.

(50) ㄱ. 밭에 고추, 상추, 토마토 따위를 심었다.
ㄴ. 카페인 음료에는 커피, 녹차, 홍차 따위가 있다.

(51) ㄱ. 너 따위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ㄴ. 아무도 내 고민 따위에 관심이 없다.

망라성을 표시하는 위의 세 가지 차원의 수단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 상호 협력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낮은 망라성을 표시하는 '-이며'나 '-하며'와 같은 병렬표지는 최종 병렬항 표지 구성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상대적으로 망라성이 낮은 '-와'의 경우에는 최종 병렬항 비표지 구성으로 사용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과 대조된다.

4.3.1.2. 적시성

'적시성(indicativeness)'은 바로 그것인가 아니면 그것과 유사한 종류의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된 성격이다. 예를 들어서 'A나 B'는 적시성이 높지만 'A라든지 B라든지'라고 했을 때는 적시성이 떨어진다. 즉 'A나 B'에서는 A와 B를 직접 가리키지만 'A라든지 B라든지'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A나 B일 필요는 없고 그러한 따위의 것들을 가리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52) ㄱ. 철수가 편지라든가 카드라든가를 써왔으면 좋았을 걸.
ㄴ. 나도 배가 고파서 피자라든지 라면이라든지 먹고 싶다.

일본어에서 'toka'는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을 전달한다. 본고의 논의에 의하면 이러한 표현은 적시성이 낮은 표현에 해당한다. 다음은 Ohori(2004)의 예문이다.

(53) uuroncha−toka ne
'oolongtea−and things like that'

위의 예문은 반드시 '우롱차'여야 한다거나 '우롱차'가 아니어야 한다거나 하는 의미를 전달한다기보다는 우롱차나 '우롱차'와 유사한 다른 것을 모두 가리킬 수 있다. 일본어의 'toka'는 적시성이 낮은 목록을 제시할 때 사용될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부정(不定) 표현과 결합한 병렬표지가 후행 병렬항인 병렬구성이 그러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54) 철수가 녹용인지 뭔지를 고아 먹고 병이 낳았다.

그렇다면 한국어에서 적시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표시되는가?
첫째로 문법적 수단에 의해 표시가 된다. 특정한 병렬표지에 의해 적시성이 표시되기도 하는데 '−인가, −인지, −라든가, −라든지' 등이 그러한 것이다.

(55) 적시성을 나타내는 병렬표지
ㄱ −인가
ㄴ. −인지
ㄷ. −라든가
ㄹ. −라든지

둘째로 구조적 수단에 의해 표시되기도 한다. 후행항이 '−부정사+병렬표지'인 구성은 낮은 적시성을 표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언급 대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화자는 일단 동원 가능한 모든 정보로부터 나온 가장 유사한 예를 제시하고, 청

자에게 그것에 준하여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56) ㄱ. 1750원인가 얼만가만 내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ㄴ. 신용보증위원회인지 어딘지에서 처리해 준다.

셋째로 어휘적 수단에 의해 표시되기도 한다. '류'는 낮은 적시성을 표시하는 대표적인 어휘 표현이다.

(57) ㄱ. 텃밭에 상추와 고추 류를 심었다.
ㄴ. 빵이나 밥이나 국수 류의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찐다.

위의 예문과 관련하여 우리는 '상추와 고추 류'라고 하였을 때, '상추'와 '고추'가 지닌 어떠한 속성(이를테면 일반적으로 텃밭에서 잘 자라는 한해살이 풀이라는 점)을 공유하는 다른 식물이 있다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텃밭에 상추와 고추 류를 심었다'는 문장이 참이 되기 위하여 '텃밭'에 심은 것이 반드시 상추와 고추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빵이나 밥류'라고 했을 때 '빵이나 밥이나 국수'의 공통된 속성을 떠올린 뒤 그러한 속성을 지닌 종류의 것이라면 언급되지 않은 대상이라 할지라도 이들과 함께 취급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이를테면 탄수화물 음식이라는 공통 속성을 지닌 죽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적시성은 앞에서 살펴본 망라성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확실히 구별되는데 이는 아래의 예문을 통해 잘 드러난다.

(58) ㄱ. 철수는 밥과 빵 등등을 먹었다.
ㄴ. 철수는 밥과 빵 류를 먹었다.

위의 두 문장은 모두 '철수'가 먹은 것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망라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58ㄱ)에서는 '철수'가 추가로 먹은 것이 '밥'과 '빵'과 전혀 다른 종류가 되어도 상관이 없지만 (58ㄴ)에서는 철수가 먹은

것이 '밥', '빵'과 일정한 유사성이 있는 부류여야 한다.

한편 적시성은 복수 개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Daniel & Moravcsik(2005)에서 제시한 복수의 유형들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8)

(59) ㄱ. 첨가적 복수(additive plural): 동일성을 가진 개체들
ㄴ. 연합적 복수(associative plural): 중심 지시체 및 그와 관련된 개체들
ㄷ. 유사 복수(similative plural): 유사한 성질을 가진 개체들

이를 한국어에 소개, 적용한 논의인 임동훈(2014)에서는 위의 각각의 유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한국어 예문을 제시하였다.

(60) ㄱ. 첨가적 복수: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ㄴ. 연합적 복수: 아저씨네가 먼저 시비를 걸었잖아요?
ㄷ. 유사 복수: 텃밭에 고추, 상추 [들, 따위]를 심었다.

그런데 유사 복수의 경우 첨가적 복수의 연합적 복수에 비해 다소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다. 우선 첫째로 '아저씨들', '아저씨네'와 같이 한 항목에 대해 복수 표시되어 만들어지는 첨가적 복수와 연합적 복수와 비교할 때, 유사 복수는 '고추, 상추 따위', '고추, 상추 배추 류'와 같이 2개 항목 이상이 제시된 뒤에 복수 표시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언급되지 않은 항목들의 '유사한' 특성을 특정하기 위한 준거가 2개 이상 제시되었을 때 더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유사 복수의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유사 복수는 병렬구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게 된다. 2개 이상의 항목이 병렬적으로 제시된 뒤에 유사 복수가 표시되면서, 유사 복수 표지가 선행 병렬구성의 망라성이나 적시성 정보를 담당하게 된다.

(61) ㄱ. 영희는 쿠키, 케잌, 마들렌, 마카롱 들을 직접 만들었다.
ㄴ. 드릴이나 못이나 망치 따위를 넣어 놓은 공구함

8) 번역한 용어는 임동훈(2014)를 따랐다.

둘째, 유사 복수의 표시는 첨가적 복수나 연합적 복수의 표시에 비해 어휘적인 요소에 의존한다. '-류'의 경우에도 접미사일 때는 연합적 복수의 의미에 더 가깝고, 의존명사일 때는 유사 복수의 의미에 더 가까운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와 관련해서 '-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류'는 기존에 접미사로 기술되어 왔다. '-류'와 관련된 《표준국어대사전》 의 기술을 보면 다음과 같다.

(62) -류
「접사」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부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문을 보면 '-류'를 단순히 접미사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63) ㄱ. 철수는 햄버거나 피자류를 좋아한다.
ㄴ. 빵이나 밥이나 국수 류를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ㄷ. 아가들은 개구리와 두꺼비 류를 무서워 한다.

(64) ㄱ. 탄수화물류를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ㄴ. 액체류는 기내 반입이 제한된다.
ㄷ. 아기들은 부드럽고 따뜻한 류의 물건에 애착을 보인다.

위의 예문들에서 '-류'는 구에 결합하고 있으며, 관형형 어미 뒤에 나올 수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의존명사에 더 가까운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류'가 나타내는 의미도 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제시한 대상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부류를 가리키는 것이고 둘째는 제시한 대상의 하위 부류를 가리키는 것이다. 두 가지 용법 모두 구체적인 대상을 모두 나열하지 않고 일정한 속성을 가진 부류의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으나, 전자의 경우에는 '류' 앞에 언급된 대상이 화자가 의도한 대상을 모두 포괄하여 정확히 제

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낮은 적시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후자는 구체적인 대상을 모두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하위부류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적시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의존명사 '-류'와 접미사'-류'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구별될 수 있다.

(65) ㄱ. 텃밭에 고추와 상추 류를 심었다.
ㄴ. 텃밭에 상추류를 심었다.

의존명사 '-류'가 붙은 (65ㄱ)의 경우에는 '고추'와 '상추'와 유사한 속성을 지닌 채소류를 가리키며 접미사 '-류'가 붙은 (65ㄴ)의 경우에는 '상추'의 하위종이 해당된다. 이 때 의존명사 '-류'는 유사 복수 표현에 해당한다. 반면 접미사 '류'는 연합적 복수에 가까운 의미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망라성이나 적시성과 관련된 이러한 표현들은 '울타리 표현(hedge)'과 관련이 있다. 울타리 표현이라는 개념은 Lakoff(1973)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Lakoff(1973)는 울타리 표현을 어떤 것을 다소 모호하게 만드는 단어들(words whose job is to make things more or less fuzzy)로 정의했다. 예를 들어 영어의 'sort of, rather, largely, in a manner of speaking, very' 등과 같은 단어들이 헤지에 해당한다. Lakoff(1973: 195)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6) ㄱ. 울새는 새이다(A robin is a bird). (True)
ㄴ. 병아리는 새이다(A chicken is a bird). (Close to false?)
ㄷ. 병아리는 새의 일종이다(A chicken is sort of a bird). (True, or very close to true?)
ㄹ. 소는 새의 일종이다(A cow is sort of a bird). (False)

(66ㄱ)은 사실이지만, (66ㄴ)의 경우 그 진위 여부가 불명확하다. 그런데 (66ㄴ)에 'sort of'와 같은 단어가 첨가된 (66ㄷ)의 경우 화자의 의도나 상황에 따라 사실이거나 사실에 매우 가까운 것으로 느껴진다. 물론 (66ㄹ)와 같은 경우에는 'sort of'

와 상관없이 거짓이다. Lakoff(1973)는 이 때 'sort of'와 같은 단어들이 발화의 적절성 조건(felicity conditions for utterance) 및 의사소통 규칙(rules of conversation)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Prince. E, Bosk. C, & Frader. J.(1982: 85)는 헤지가 논평을 완화하거나 모호하게 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명제 내용'이 그러한 것이냐 아니면 명제의 진실성에 대한 '화자의 논평'이 그러한 것이냐가 그것이다. 전자가 'sort of'와 같은 '근사어(Approximators)'이고 후자가 'I think'와 같은 '방패어(Shield)'에 해당한다. 이 중 근사어는 다시 '대략어(Round)'와 '적용어(Adaptor)'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about', 'approximately', 'something around'와 같은 수적인 개념의 모호성과 관련 있고, 후자는 'somewhat', 'sort of', 'a little bit'과 같이 특정 범주로의 한정을 모호하게 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병렬구성과 관련하여서는 망라성과 관련된 표현은 대략어에, 적시성과 관련된 표현은 적용어에 가까운 유형으로 파악할 수 있다.

4.3.2. 배타성과 선택지향성: 병렬항 간의 선택 관계

4.3.2.1. 배타성

병렬구성에서 병렬항 간의 '배타성(exclusiveness)'은 일반적으로 병렬구성에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양상[9])으로 나타난다.

9) 한편, 무표지 구성에서도 제한적이지만 배타성에 있어서 변이를 보인다. 무표지 구성은 기본적으로는 배타성이 배제된 해석을 입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이 병렬항이 상반된 의미를 표상할 경우 병렬항 간의 배타적인 선택의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ㄱ. 오늘 합격 불합격이 결정된다.
ㄴ. 이제 와서 좌파 우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67) ㄱ. 철수랑 영희가 커피를 좋아한다.

ㄴ. 커피나 과자 드실래요?

ㄷ. 철수나 영희가 3학년 2반 반장이다.

(68) ㄱ. 영희는 성격이 좋으며 얼굴이 예쁘다.

ㄴ. 영희는 주말에 친구를 만나거나 책을 읽는다.

ㄷ. 철수는 지금 학교에 있거나 집에 있다.

병렬항 간 선택의 배타적 의미는 선행 연구에서 병렬구성의 의미 연구의 중심축을 차지하고 있었다. 병렬항 간의 의미에 배타성이 없는 경우를 연접, 배타성이 확인되는 경우를 배타적 이접, 배타성이 확인되지는 않는 경우를 포괄적 이접이라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병렬표지만으로는 해당 병렬구성의 배타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한국어 병렬구성에서 배타성은 어떤 방식으로 표시되는가?

첫째로, 문법적 수단에 의해 표시될 수 있다. 그러나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연접 표지나 이접 표지, 즉 배타성이 있는 표지와 배타성이 없는 표지로 이분 되는 것은 아니다. 병렬표지 중에는 해당 병렬구성을 필수적으로 배타적으로 해석하게 하는 것과 배타성을 중화시키는 표지가 있다. 우선 배타성 확인 표지에는 '-인가'와 같이 항상 병렬구성의 배타적 해석을 유도하는 표지가 속한다. 반면, 배타성 배제 표지도 있다. 우리가 흔히 연접 표지로 알고 있는 '-와', '-이랑', '-하고'와 같은 종류의 배타성 배제 표지는 다른 구조적, 화용적 요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배타성이 배제된다. 반면, '-나, -이나, -거나, -든, -이든' 와 같은 종류의 표지는 다른 구조적/화용적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 배타성이 배제된 해석도 가능하고 배타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이들은 배타성 중립 표지로 처리하기로 한다. 이를 정리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69) ㄱ. 배타성 확인 표지: -인가, -인지 …

ㄴ. 배타성 배제 표지: -와, -이랑, -하고, -에 …

ㄷ. 배타성 중립 표지: -나, -이나, -거나, -든, -이든 …

둘째로 구조적 수단에 의해 표시되는 경우도 있다. ‘-나’ 와 같은 배타성 중립 표지가 사용되었더라도 최종 병렬항에까지 병렬표지가 붙은 구조일 경우에는 배타성이 배제된다.

(70) ㄱ. 철수는 사과나 배를 좋아한다.
ㄴ. 철수는 사과나 배나 좋아한다.

셋째로, 병렬구성 뒤에 붙는 배타성 중화 표현에 의해 배타성이 취소되는 경우이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은 ‘-도’, ‘모두’, ‘다’ ‘전부’ 등의 역동 표현이다.

(71) ㄱ. 요즘은 미술이나 음악**도** 사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ㄴ. 고급차나 명품에 **모두** 세금을 매겨야 합니다.

한편 ‘같은’ 역시 배타성 중립 표지가 사용된 병렬구성을 배타성이 없는 의미로 만든다.

(72) ㄱ. 앵무새나 독수리 같은 조류
ㄴ. 영수나 철수 같은 모범생

이들 역동 표현은 배타성 중립 표지나 배타성 배제 표지와 어울리며, 배타성 확인 표지와는 잘 어울리지 못한다.[10)]

넷째, 화용적 수단에 의해 반영되는 경우이다. 화용론적으로 대체 가능하며, 특별

10) 다만 아주 제약된 맥락에서 배타성 확인표지의 배타성을 취소시키는 듯한 해석을 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중의성을 보이므로 배타성이 완전히 취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ㄱ. 커피인지 녹차인지를 모두 마셨다. (커피, 녹차 중 1종류만 모두 마셨다/ 커피, 녹차 두 종류를 모두 마셨다)
ㄴ. 큰 딸인가 둘째딸인가가 다 예술가다. (큰딸, 둘째딸 중 1인을 포함한 복수의 자식이 예술가다/ 큰딸과 둘째딸이 예술가다

히 구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복수의 선택지가 병렬항으로 제시될 경우 배타성이 배제된다.

(73) ㄱ. 은영이는 귤이나 오렌지를 좋아한다.
ㄴ. 철수는 쿠키나 과자를 잘 먹는다.

4.3.2.2. 선택지향성

선택지향성은 청자에게 병렬항들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 선택 해석의 자유를 부여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와 관련된 자질이다. 선택지향성이 높은 구성은 다음과 같은 구성이다.

(74) ㄱ.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운동을 하거나 맛있는 것을 먹어요.
ㄴ. 이 커피는 너무 오래됐든지 습한 곳에 두었던 것 같다.
ㄷ. 영희가 지금 집이나 학교에 있을 거에요.

반면, 선택지향성이 낮은 구성[11]은 다음과 같은 구성들이다.

(75) ㄱ. 볶음밥이건 개밥이건 얼른 먹어야 힘을 내지.
ㄴ. 집값이 1억2천이든 1조 2천이든 비싸서 못 산다.
ㄷ. 네가 숙제를 하든지 달밤에 체조를 하든지 관심 없다.
ㄹ. 삼겹살이나 금겹살이나 먹으면 살찐다.
ㅁ. 아들이건 딸이건 소중한 자식이다.
ㅂ.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예의를 지켜야지.
ㅅ. 철수가 보험인지 뭔지 들라고 난리다.

11) 본고 5.4.에서 살펴보게 될 '유사 병렬구성'이 선택지향성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특수 병렬구성에 해당한다. 그러나 선택지향성이 낮은 모든 구성이 유사 병렬구성인 것은 아니며 유사 병렬구성의 특성 중 하나가 선택지향성이 낮은 것이다.

(75ㄱ)은 '볶음밥'을 먹고 힘을 내라는 의미이고 (75ㄴ)은 '집값'은 1억 5천인데, 지불할 수 없다는 의미, (75ㄷ)은 '숙제'를 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 (75ㄹ)은 '삼겹살'을 먹으면 살이 찐다는 의미, (75ㅁ)은 '자식'이 모두 소중하다는 의미, (75ㅂ)은 모든 경우에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 (75ㅅ)은 '철수'가 '보험'을 들라고 강요한다는 의미이다. 위의 예들은 모두 병렬구성으로 2항 이상의 병렬항을 선택지와 같이 제시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선택 가능성이 소거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택지향성이 낮은 병렬구성의 예로 볼 수 있다.

선택지향성과 배타성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이들은 모두 병렬항의 선택과 관계된 개념이지만, 차이도 존재한다. 우선 개념적인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배타성은, 선택지 중 하나가 선택될 경우 나머지가 반드시 배제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이 구성에 반영된 성질이다. 반면 선택지향성은, 화자가 제시한 병렬항들로부터 청자의 선택 자체를 이끌어낼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점이 구성에 반영된 성질이다. 따라서 선택지향성과 배타성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별개의 자질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 자질이 별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배타성이 높지만, 선택지향성이 낮은 예이다.

(76) ㄱ. 홍삼인지 개뿔인지 효과도 없더라.
ㄴ. 삼겹살인지 삼십겹살인지 많이 먹어라.

(76ㄱ)은 결국 '홍삼'이 효과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개뿔'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므로 '홍삼'이 선택되면서 개뿔은 배제된다. '홍삼'과 '개뿔'이 동시에 효과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배타성 확인 표지인 '-인지'가 사용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의심할 여지없이 배타성이 높은 구성이지만, 실제 선택 가능한 대상이 복수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택지향성은 매우 낮은 구성에 해당한다. (76ㄴ) 역시 '삼십겹살'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언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나머지 병렬항인 '삼겹살'로 대상이 지정, 해석된다.

반면 배타성이 낮지만 선택지향성이 높은 예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예들은 병렬항 간의 관계가 반드시 배타적일 필요는 없지만, 선택 자체가 배제되는 것

은 아니다.

(77) ㄱ. 철수는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거나 휴대폰 게임을 하면서 누나를 기다렸다.
ㄴ. 영희는 친구 생일에 책이나 머리핀을 선물했다.
ㄷ. 수영은 평영이나 접영을 배울 때가 고비야.

한편 배타성도 낮고 선택지향성도 낮은 구성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는 전칭을 의미하게 되면서, 배타성이 없고, 선택의 가능성도 소거된 것이다.

(78) ㄱ. 아들이든 딸이든 소중한 자식이다.
ㄴ. 먹거나 말거나 돈은 내야 해.

마지막으로 배타성도 높고 선택지향성도 높은 구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79) ㄱ. 영희는 한국에서 취직을 하거나 미국으로 유학을 갔을 것이다.
ㄴ. 등록금을 일시불로 내거나 4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두 척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표 4-1] 배타성과 선택지향성의 관계

배타성	선택지향성	예문
+	+	영희는 서울이나 부산 출신이다.
+	−	홍삼인지 개뿔인지 효과도 없더라.
−	+	수영은 평영이나 접영을 배울 때가 고비야.
−	−	아들이든 딸이든 소중한 자식이다.

그렇다면 선택지향성의 높고 낮음은 병렬구성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첫째, 문법적 수단에 의해 반영될 수 있다. 연접 표지로 논의되어 온 병렬표지들은 선택지향성이 배제된 표지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접 표지로 알려져 온 표지들 중에서도 낮은 선택지향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건', '-이건'은 낮은 선택지향성을 나타내는 병렬표지이다. 아래의 예문들은 제시된 병렬항들에 대한 선택에 아무것도 영향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80) ㄱ. 머리가 길건 짧건 염색은 안 된다.
　　ㄴ. 철수는 학생이건 교수건 친절하게 안내했다.

둘째, 의미·화용적 수단에 의해 반영될 수 있다. 병렬항의 의미와 관련하여 선택지향성이 낮아지는 것은 두 가지 경우이다. 이미 지정된 대상이 존재하는 경우와 전체가 해당되는 경우이다.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미 지정된 대상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이미 지정된 대상을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특정한 표현효과를 노리고 병렬구성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복수의 병렬항이 제시되었을 때, 한 병렬항이 선택될 가능성이 없는 대상으로 제시될 경우, 나머지 병렬항이 자동적으로 선택되어 해석됨으로써 선택지향성이 낮은 구문이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선택 가능성이 없는 병렬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나머지 하나의 병렬항을 ① 지나치게 열등한 것 ② 지나치게 우월한 것 ③ 세상에 없거나 기괴한 것 ④ 부정(不定) 표현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각각의 예는 다음과 같다.

(81) 지나치게 열등한 것
　　ㄱ. 친구고 나발이고 소용 없다.
　　ㄴ. 스마트폰인지 개뿔인지가 너무 비싸다.

(82) 지나치게 우월한 것

ㄱ. 철수가 기타인지 금덩어리인지를 들고 오더라.
ㄴ. 집값이 1억 2천이든 1조 2천이든 너무 비싸서 못 산다.

(83) 세상에 없거나 기괴한 것
ㄱ. 결혼을 하든 달밤에 체조를 하든 자다 말고 봉창을 두드리든 마음대로 해라.
ㄴ. 삼겹살인지 구겹살인지 난 안 먹어.
ㄷ. 네 서방인가 남방인가가 집에 왔더라.

(84) 부정(不定) 표현
ㄱ. 영감이 돈도 없으면서 명예니 뭐니를 지키겠다고 앉아 있다.
ㄴ. 신라호텔인지 어딘지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

나. 전체가 해당되는 경우

병렬구성을 통해 전칭을 구성하여 버림으로써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드는 것이다. 전칭을 구성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첫째는 어휘적/화용적 반의 표현에 의한 전칭 해석의 유도이고, 둘째는 부정(否定) 표현을 사용한 전칭 해석의 유도이다.

(85) 어휘적/화용적 반의 표현에 의한 전칭 해석으로 선택지향성이 낮은 구성
ㄱ. 철수는 안경을 쓰거나 벗거나 잘 생겼다.
ㄴ. 학교 안에서는 선생이든 학생이든 규칙을 지켜야 한다.

(86) 부정(否定) 표현을 사용한 전칭 해석으로 선택지향성이 낮은 구성
ㄱ. 니가 먹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 없다.
ㄴ. 학교를 갔건 안 갔건 숙제는 해야 한다.

셋째는 어휘적 수단에 의한 전칭 해석의 유도이다.

'-간에' 는 선택지향성이 낮은 문장을 만드는 표현으로, 병렬구성 뒤에 '-간에'가 사용될 경우, 선택의 가능성이 박탈된다. 이 경우에도 선택지향성이 낮은 것으로 해

석된다.

(87) ㄱ. 철수는 공부를 열심히 했든 안했든 간에 시험을 못 본다.
ㄴ. 영희는 커피를 마셨고 안마셨고 간에 잠을 잘 잔다.

위와 같이 선택지향성이라는 자질을 도입하여 병렬구성의 의미를 설명할 경우의 이점은 무엇인가? 배타성 개념에 비해 선택지향성은 상당히 생소한 개념이다.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의 주요 개념은 '자유선택(free choice)'이 있다. 'or' 이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가진다는 점이 지적되면서(Kamp 1973), 이를 설명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소위 '이접' 으로부터 '연접' 심지어 '전칭' 의미가 도출되는 것에 대해 예외적인 것으로 파악하거나, 특수한 장치를 두어야 했다. 대표적으로 척도 함축에 의해 설명하고자 할 때 우리는 '녹차나 홍차'를 마셨다고 하면 녹차를 마셨거나 홍차를 마셨거나, 최소한 하나를 마셨는데 어떤 걸 마셨는지 아직 모를 뿐이어야 할 것이다. 척도함축에 의하면 '녹차와 홍차'를 마셨을 때는 '녹차나 홍차'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언어 사용에서는 '녹차와 홍차'를 마신 경우에도 '녹차나 홍차'를 마셨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나는 요즘 녹차나 홍차를 많이 마신다"라거나, "우리가 녹차나 홍차를 가지고 있어요" 라거나 할 때는 "녹차와 홍차"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된 의미기술에서 선택지향성 개념은 앞서 논의한 배타성, 망라성, 적시성과 같은 의미자질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나타나는 의미의 차이는 선택지향성 뿐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배타성, 망라성과도 관계가 된다. '녹차나 홍차나 커피나 다 맛있다'에서 '녹차나 홍차나 커피나'는 구조적으로 배타성과 망라성이 낮은 병렬구성을 이룬다. 따라서 이 문장은 '녹차'도 맛있고, '홍차'도 맛있고, '커피'도 맛있고, 이 밖에 다른 차 종류도 맛있다는 의미가 되지만, '녹차와 홍차와 커피가 다 맛있다'는 문장은 명시적으로 열거된 세 가지 음료만 다 맛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88) ㄱ. 녹차나 홍차나 커피나 다 맛있다.
ㄴ. 녹차와 홍차와 커피가 다 맛있다.

지금까지 제시한 것과 같은 의미자질에 의해 병렬구성의 의미를 분석할 때 기술이 좀더 정확하고 명료해질 수 있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표지 위주로만 접근하면 '이접'표지 '–이나'가 사용된 '녹차나 커피나 카페인이 많다'와 같은 문장이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현상인 것으로 처리되지만, 의미자질을 사용하면, 배타성 중립 표지 '–이나'가 사용되었고, 구조상 최종항까지 병렬표지가 표시되어서 배타성이 배제된 구성이 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 '사과며 배며 감 등등'과 같은 표현도 "조사 '–이며'에 '예시'의 의미가 있다"와 같이 기술하지 않고, 망라성 자질을 사용해 망라성 저하 표지가 사용되었고, '등등'과 같은 낮은 망라성을 나타내는 어휘 표현이 더해지면서 망라성이 매우 낮은 구성이 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4.4. 요약

- 기존의 병렬구성의 의미 기술과 관련된 본고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렬구성의 의미기술은 표지 위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표지 외에, 전체 병렬구성의 구조, 병렬항의 의미, 병렬구성 사용의 화용적 조건 등이 협력적으로 병렬구성의 의미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둘째, 논리적 체계인 연접/이접의 구별만으로는 자연언어의 병렬구성의 다양한 의미를 기술하기 어렵다.

셋째, 기술적 체계의 경우에는 일관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

- 위와 같은 반성적 성찰에 근거하여 본고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표지 위주의 기술에서 벗어나, 병렬구성의 의미에 관여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

둘째, 기술적 의미 체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렬구성의 다양한 의미 양상을

일정한 자질로 포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다.

셋째, 그동안 병렬구성의 의미 기술에서 배제되어온 특수한 유형의 병렬구성도 관심을 가지고 관찰한다.

- 병렬표지 외에도 전체 병렬구성의 구조, 병렬항의 의미, 병렬구성 사용의 화용적 조건 등이 협력적으로 병렬구성의 의미를 구성한다.

- 병렬구성의 의미기술을 위한 의미자질로 본고는 '망라성', '적시성', '배타성', '선택지향성'을 제시하였다. 망라성은 문맥이나 상황상 주어진 가능한 집합의 개체들을 모두 포괄하여 언급하는 성질이다. 적시성은 바로 그것인가 아니면 그것과 유사한 종류의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된 성질이다. 배타성은 병렬항 간의 배타적 선택과 관련된 성질이다. 선택지향성은 청자에게 병렬항들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 선택 해석의 자유를 부여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와 관련된 자질이다. 망라성, 적시성, 배타성, 선택지향성의 높고 낮은 정도는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수단에 의해 병렬구성에 반영된다. 표지위주의 접근 방식에 의해 예외적인 현상으로 처리되던 많은 사례들이 이러한 의미자질을 사용한 기술에서는 설명이 가능한 대상이 된다.

5. 특수 병렬구성

병렬구성은 상당히 다양한 변이를 보인다. 이를 고려할 때 좀 더 치밀한 관찰에 의한 개별적 기술을 요하는 구성들이 존재한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구성들을 유형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의 병렬구성은 시간적으로 평면적인 논리적 연접/이접 구성과는 달리 자연언어에서 시간적으로 입체적으로 해석되는 병렬구성에 해당한다. 아래의 예문들은 어느 한 시점에서 평면적으로 보면 병렬항들 중 하나만 실현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한 시구간에서는 반복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해석된다. 본고는 이러한 종류의 병렬을 5.1.에서 '교체 병렬구성'으로 명명하고 이러한 성격이 논리적인 복합 명제의 연접/이접과는 구별되는 자연언어 병렬구성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파악하였다.

(1) ㄱ. 철수는 많이 울고 웃었던 지난 1년을 추억하였다.
ㄴ. 몸이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하였다.

다음의 병렬구성은 어떠한 속성의 정도나 행위의 강도를 강조하여 표현하기 위해 언어적으로 여러 개의 같은 표현을 되풀이한 구성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5.2.에서 '되풀이 병렬구성'으로 다루고 한국어에 '-디'라는 되풀이 병렬을 위한 독자적 장치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2) ㄱ. 깊고 깊은 산 속
ㄴ. 철수는 달리고 달렸다.
ㄷ. 순하디 순한 아기

또한 다음과 같은 유형의 병렬구성은 본고 5.3.에서 '아우름 병렬구성'으로 다룬다. 이는 중세 한국어에 '아우름 명사구'와 다소 유사한 것으로 이를테면, '사과와 배와 귤'이라고 할 것을 '사과와 배와 귤 세 종류의 과일'이라고 할 때 맨 뒤에서 '세 종류의 과일'이라고 종합하여 다시 한 번 언급하는 것이다. 현대 국어에는 중세

국어의 아우름 명사구와 같은 기형적 명사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그와 유사한 표현들이 아예 안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현대 국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아우름 병렬구성이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3) ㄱ. 철수야 사과나 배나 과일 좀 사와.
ㄴ. 소파에서 뛰고 바닥을 구르고 난리굿을 벌였다.
ㄷ.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천둥번개가 치고 날씨가 영 좋지 않았다.

한편, 다음과 같은 구성들은 5.4.에서 '유사 병렬구성'으로 다룬다.

(4) ㄱ. 공부고 뭐고 하기 싫다.
ㄴ. 신상품은 가보나 마나 품절이다.
ㄷ. 사장인지 개뿔인지가 와서 사과하고 갔다.

본장에서 다루는 다양한 유형의 흥미로운 구성들은 최근까지도 김연희(2007), 조미희(2014) 등에서 일부를 개별적으로 다룬 바 있으나, 이들에 대하여 '어미 반복구성'과 같은 임시적인 지위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전체적인 틀 안에서 어디에 소속되는 구성인지, 특수하다면 어떻게 특수한지를 밝히기는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본장에서는 이들이 기본적으로 병렬구성임을 보이되, 병렬구성으로서 어떠한 특수성을 보이는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데 주력하기로 한다.

5.1. 교체 병렬구성

아래의 예문들은 지금까지 살펴본 일반적인 병렬구성과는 다소 다른 특성을 보인다. 어느 한 시점을 잘라놓고 보면 하나의 병렬항만이 참이지만 좀 더 넓은 시구간에서 파악하면 모든 병렬항이 참이 된다.

(5) ㄱ. 교실이 조용하다가 시끄럽다가 하였다. (임동훈 2009: 103)
ㄴ. 철수는 오늘 엄마를 기다리는 1시간 동안 휴대폰 게임에 열중 하거나 운동장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지루함을 달랬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간적으로 평면적인 논리적 연접과 이접 구성과는 달리 자연언어의 병렬구성은 시간적으로 입체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위의 예문들은 어느 한 시점에서 평면적으로 보면 병렬항들 중 하나만 실현되는 것으로 보인다. (5ㄱ)에서 '교실'은 조용한 때도 있었을 것이고 시끄러운 때도 있었을 것이다. 이를 한 시점만 잘라서 놓고 보았을 때는 조용했거나 시끄러웠거나 둘 중 하나이지만 화자가 관심을 가지는 시구간 전체를 보았을 때는 둘 다인 것이다. (5ㄴ)도 마찬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철수'가 오늘 '엄마'를 기다리는 1시간 중 한 시점을 잘라서 볼 때 '휴대폰 게임'에 열중함과 동시에 '운동장'을 멍하니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시구간인 '철수'가 '엄마'를 기다린 1시간 동안을 범위로 하여 볼 때는 '철수'가 두 가지 행동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다.

Haspelmath(2007)에서는 러시아어에 시간적으로 교체되는 병렬항에 대하여 'to-to'등 특수한 병렬표지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임동훈(2009)에서도 한국어에서 이와 같은 '교체이접'이 '-다가 -다가' 구성에 의해 실현된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용법은 '-다가'가 반복되고 후행하는 서술어가 '하다'로 한정되는 등 다소 제한된 구성에서 발견된다고 하였다.[1]

1) '-다가'가 단독으로 사용될 때는 어떤 행위가 지속되다가 중단되고 다른 행위가 이어짐을 나타낸다. 그러나 '-다가 -다가'와 같이 병렬될 경우에는 행위나 상태가 번갈아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 본고에서 다루는 '-다가'는 병렬구성에 해당하는 후자에 한정된다.

그러나 위의 예문 (5ㄴ)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른바 '교체이접'의 해석은 '-다가-다가' 와 같은 특정한 병렬표지가 출현하였을 때만 나타나는 한정된 것은 아니다. 이는 자연언어 병렬구성이 논리적 복합 명제와는 달리 시간적으로 입체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본질적인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예문들을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우리는 시간 교체 해석이 '-다가 -다가 하-'와 같은 한정된 구성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병렬구성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6) ㄱ. 내가 먹은 국은 늘 너무 차갑거나 뜨겁거나 하였다.
ㄴ. 철수는 울고 웃으며 보낸 지난 3년을 추억하였다.

(6ㄱ)의 경우 '국'이 차갑거나 뜨거운 것은 공존이 가능한 성질이 아니다. 따라서 일정한 기간 동안 화자가 복수의 '국'을 경험하였는데, 이 복수의 '국'이 차가울 때도 있고 뜨거울 때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화자가 복수의 '국'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을 더 확실히 해줄 수 있는 것이 '늘'과 같은 부사일 것이다. 일정한 기간을 두고 경험한 것임을 시간 부사를 통해 암시하는 것이다. (6ㄴ)의 경우에도 '철수'가 동시에 울고 또 웃은 것은 아니지만 3년 동안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였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교체이접의 해석은 반복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병렬구성과는 구별될 수 있다. 반드시 규칙적으로 반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정한 반복의 패턴이 암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체 해석을 입기 어렵다. 다음의 병렬구성은 반복의 성격이 없는 것이다.

(7) ㄱ. 나는 철수와 만나거나 영희와 만났다.
ㄴ. 나는 차가운 국을 먹거나 뜨거운 국을 먹었다.

이러한 점에서 '-다가'는 '교체이접의 표지'라고 볼 수 있다. 다른 병렬표지들에 의해서도 교체이접의 의미를 표상할 수는 있지만 이들을 교체이접의 표지라고 볼 수는 없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가'만으로는 모든 교체이접을 포

괄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병렬표지들이 교체이접의 의미를 표상하는 데 사용된다. 다음과 같이 '-다가'는 상당히 짧은 시간 안의 교체에 사용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8) ㄱ. 철수는 3년 동안 많이 울다가 웃다가 하였다
　　ㄴ. 철수는 3년 동안 많이 울고 웃었다.

(9) ㄱ. 국은 늘 너무 차갑다가 뜨겁다가 하였다.
　　ㄴ. 국은 늘 너무 차갑거나 뜨거웠다.

(8ㄱ, 9ㄱ)은 모두 화자가 관찰하는 현장에서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진 상황을 설명할 때 더 적합하게 여겨진다. 긴 시간 범위 안에서 상태가 때때로 교체되고 변화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다소 어색한 문장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반면 (8ㄴ, 9ㄴ)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좀 더 긴 시간 범위 내에서도 적합하다.

그런데 '-다가'와 결합한 선행 병렬항과 후행 병렬항의 의미 관계에 몇 가지 주목할만한 점이 있다. 우선, 선후행 병렬항이 의미적, 혹은 화용적으로 대립적이라는 점이다. 우선 의미적으로 대립적인 병렬항들로 이루어진 병렬구성인 경우가 가장 무표적이다. 또 선행 병렬항의 서술어와 같은 서술어에 부정 표현인 '안', '못', '말-'이 결합된 서술어가 후행 병렬항으로 오는 구성도 자연스럽다.

(10) ㄱ.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했더니 다리가 아프다.
　　ㄴ. 영희는 머리를 묶었다가 풀었다가 하였다.

(11) ㄱ. 차가 막혀서 가다가 말다가 한다.
　　ㄴ. 철수가 학원에 왔다가 안 왔다가 한다.
　　ㄷ. 작년에는 그래도 만나다가 못 만나다가 했는데 요즘은 소식을 모른다.

이와 관련하여 최정진(2004)에서는 '-다가'가 항상 대립되는 것을 연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실제로 다음의 예문들은 의미적으로 대립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2) ㄱ. [먹다가 쉬다가] 하더니 결국은 그 많은 것을 다 먹어 버렸다.
ㄴ. 그들은 하늘을 향하여 한 손을 박자감 있게 [뻗쳤다 접었다] 했다.
ㄷ. 손짓으로 보내는 어떤 명령도 놓치지 않으려고 눈동자가 총을 퉁기듯 [남편을 보았다가 손짓을 보았다가] 했다.

심지어 '-다가'는 병렬항들 간의 관계가 대립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완전히 같은 병렬항이 나열된 병렬구성에 사용되기도 한다.

(13) ㄱ. 빵을 [먹다가 먹다가] 다 못먹고 가져왔다.
ㄴ. 책이 너무 길어서 [읽다가 읽다가] 지쳤다.

위와 같은 예문들은 교체 병렬의 일종인가? 본고는 위와 같이 같은 병렬항이 반복적으로 표상되는 종류의 병렬구성을 따로 구별하여 다루기로 한다. 다음에 이어 살펴보게 될 '되풀이 병렬구성'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이어 하기로 한다.

5.2. 되풀이 병렬구성

다음은 같은 병렬항이 되풀이되는 병렬구성이다. 이는 언어 경제적으로 볼 때 특수한 병렬구성에 해당된다.

(14) ㄱ. 넓고 넓은 바닷가
ㄴ. 넓디 넓은 바닷가
ㄷ. 고르고 골라서 산 옷
ㄹ. 울다가 울다가 지쳐 잠든 아기

되풀이 병렬구성은 같은 병렬항을 더 나열하여 다항병렬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 때는 강조의 표현적 효과가 더해진다.

(15) ㄱ. 넓고 넓고 넓은 바닷가
ㄴ. 넓디 넓디 넓은 바닷가
ㄷ.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산 옷
ㄹ. 울다가 울다가 울다가 지쳐 잠든 아기

이러한 특수한 유형의 병렬은 범언어적으로 여러 언어에 존재하는데, Haspelmath(2007: 25)에서는 이에 대하여 많은 언어에서 행위의 강력함이나 높은 속성 수준을 표현하기 위해 언어적으로 여러 개의 같은 요소를 조합한 병렬구성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영어의 경우 'run and run, bigger and bigger'와 같은 표현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어의 경우에도 '~着 ~着' 구성이 이에 해당한다. '着'은 본래 동사 뒤에 쓰여 어떤 동작이 진행 중이거나,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상적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병렬구성에서 반복 사용될 경우 본래의 상적 의미와는 다른 용법을 보인다. 예를 들어 '哭着哭着睡着了'는 '울다가 잠이 들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 때 '~着 ~着' 구성에서 복수의 '着' 앞에는 반드시 하나의 동사만이 되풀이하여 올 수 있고, 각각 다른 동사가 올 수 없다. 또 '哭着哭着哭着睡着了'와 같이 '~着'가 2회 넘게 반복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어, 영어의 되풀이 병렬과 유사하다.

그런데 Haspelmath(2007)는 같은 표현을 되풀이 하여 만들어진 병렬구성이 많은 언어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독자적 장치를 쓰는 언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의 경우에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는 넓은 범위의 병렬에 관여하는 병렬표지로 부가적으로 되풀이 병렬에도 관여하는 반면, '-디'의 경우 다른 유형의 병렬표지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오직 되풀이 병렬을 위한 병렬표지로만 사용되기 때문이다. 한국어는 되풀이 병렬을 위한 독자적 장치가 있는 언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의 '-디'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

다.

(16) 되풀이 병렬표지 '-디'의 특성

ㄱ. 상태서술어와만 결합한다.

ㄴ. 단어 병렬표지로만 사용된다.

ㄷ. 최종항 비표지 구성으로만 사용된다.

ㄹ. 병렬항 사이에 보조사나 부사 등 다른 요소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2)]

이와 유사한 병렬어미로 '-나'도 존재한다.

(17) ㄱ. 철수는 주식 시장에서 크나큰 손해를 보았다.

ㄴ. 영희는 기나긴 날들을 기다렸다.

이때의 '-나'의 용법은 상당히 제한적인데 다음과 같은 예들은 다소 부자연스럽다.

(18) ㄱ. ?영희의 실력은 뛰어나나 뛰어나다.

ㄴ. ?철수는 비싸나 비싼 가방을 샀다.

(19) ㄱ. *영희는 키가 크나(도/는) 크다.

ㄴ. *철수는 높으나 (아주/무척) 높은 나무에 올라갔다.

또 후행 병렬항이 관형형인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20) ㄱ. 철수는 기나 긴 여행을 떠났다.

ㄴ. 철수가 갈 길이 기나 길다.

2) 그러나 '-디'를 단어 형성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디'는 단어 병렬에 의한 병렬구성을 만드는 데 한정되어 사용되는 병렬표지에 해당한다. 반면 '-나'의 경우에는 단어형성 요소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이규호(2003: 217)에서는 연결어미 '-나'가 다음과 같은 문법화 과정을 거쳐 접사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다.

(21) -나 > -나 -나 > -나-ㄴ

그러나 아직 접사가 되었다고 보기 보다는 연결어미에 가까운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형태가 '-나 -ㄴ'으로 굳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로 이를 접사로 본다면 현대 한국어 접사 체계에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접요사도 접미사도 아닌 특수한 요소로 처리하기보다는 연결어미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와 관련된 사전 기술을 살펴보면, '크나큰'의 '-나' 역시 연결어미로 보고 있다. 그런데 형태가 같은 연결어미 '-나'를 모두 묶어서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나11

「어미」

「1」 앞 절의 내용과 뒤 절의 내용이 서로 다름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 눈이 내리나 쌓이지는 않는다./키는 크나 힘은 약하다.

「2」 ('-나 -나' 구성으로 쓰여)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는 신문을 돌린다./부모는 자식들이 미우나 고우나 똑같이 뒷바라지한다.

「3」 ('-나 -ㄴ' 구성으로 쓰여)형용사 어간을 반복하여 그러한 상태를 강조하는 연결어미.

¶ 머나먼 길/크나큰 사람.

우선 앞 절의 내용과 뒤 절의 내용이 서로 다름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서의 의미 「1」은 병렬어미가 아니다. 이는 의존어미이므로 따로 나누어야 할 것이다. 한편,

「2」는 병렬어미에 해당한다. 「3」은 병렬어미 중에서도 특히 되풀이 병렬구성에 사용되는 되풀이 병렬어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세 갈래의 의미는 모두 차별적인 통사 구조를 형성하므로 모두 다른 항목으로 다루거나, 최소한 의존어미인 「1」을 병렬어미인 「2」, 「3」과 구분하여 다루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되풀이 병렬구성에 사용된 '-나'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3) 되풀이 병렬구성에 사용된 '-나'의 특성
ㄱ. 한정된 상태 서술어에 결합한다.
ㄴ. 단어보다 큰 단위를 병렬시키지 못한다.
ㄷ. 최종항 비표지 구성으로만 사용된다.
ㄹ. 병렬항 사이에 보조사나 부사 등 다른 요소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ㅁ. 후행 병렬항이 관형형인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 되풀이 병렬구성에 사용된 '-고'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24) 되풀이 병렬구성에 사용된 '-고'의 특성
ㄱ. 상태 서술어와 동작 서술어에 모두 결합이 가능하다.
ㄴ. 다양한 단위의 병렬에 사용될 수 있다.
ㄷ. 최종항 비표지 구성과 표지 구성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ㄹ. 병렬항 사이에 부사 등 다른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

되풀이 병렬구성에 사용된 '-다가'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25) 되풀이 병렬구성에 사용된 '-다가'의 특성
ㄱ. 동작서술어에만 결합할 수 있다.
ㄴ. 다양한 단위의 병렬에 사용될 수 있다.
ㄷ. 최종항 표지 구성에만 사용된다.
ㄹ. 병렬항 사이에 부사 등 다른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
ㅁ. 뒤에 부정적인 의미가 후행한다.[3)]

5.3. 아우름 병렬구성

중세국어에 '아우름 명사구'라는 것이 있다는 점은 중세국어 연구자들에 의해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아우름 명사구는 '사과와 배와 귤'이라고 할 것을 '사과와 배와 귤 세 종류의 과일'이라고 할 때 맨 뒤에 있는 '세 종류의 과일'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현희(1994)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중세국어에서는 특수하게 명사구 나열한 뒤에 아무런 표지 없이 이들을 아우르는 명사구를 배치하기도 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중세국어의 특수한 구성을 '아우름 명사구'로 명명하였다. 이현희(1994)에 의하면 아우름 명사구는 기형적 명사문의 구성 성분을 가리킨다. 즉 다음의 예와 같이 나열에 의해 이루어지는 명사구의 뒤에 나열되는 명사들을 아우르는 명사구가 다시 나오기도 하는데 이를 '아우름 명사구'라고 하였다. 밑줄 친 부분이 아우름 명사구에 해당한다.

(26) ㄱ. 生老病死 四相이 한 受苦ㅅ 根源이라(월석12: 23)
　　ㄴ. 이럴 씨 體相 二大 다 일후미 本覺이니(월석11: 69)
　　ㄷ. 그제 難防 跋難陀 두 큰 龍王이(월석11: 29-3)
　　ㄹ. 이 우희 또 四空處에 空處 識處 無所有處 非想非非想處 이 네 하ᄂᆞᆯ 無色界 四天이라 ᄒᆞᄂᆞ니라(월석1: 35-7)

그러나 현대 국어에는 위와 같은 기형적 명사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한 결과로 아우름 명사구와 관련된 현대 한국어 연구는 많지 않다.[4] 그러나 현대 국어에서

3) 최정진(2006: 376)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행동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목표한 일이나 계획한 일을 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는 문맥에서 자주 실현된다면서 이를 '목표한 바에 대한 미달'이라고 하였다.

4) 다만 서형국(2005)에서는 통시적 관점에서 병렬구성을 전체 구성에 포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수렴표현'을 다룬 바 있다. 서형국(2005)에서 다룬 '수렴표현'은 통사적으로 병렬구성이 전체 문장에 내포되도록 하는 요소와 관련된 것으로 '-등'이나 '-고 하-' 등이 이에 속한다. 서형국(2005: 152-170)에서 제시한 수렴 표현의 정의와 특성을 정리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도 위와 유사한 표현들이 아예 안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현대국어에서 아우름 표현은 이접 구성에서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27) ㄱ. 소파에서 뛰고 바닥을 구르고 난리굿을 벌였다.
ㄴ.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천둥번개가 치고 날씨가 영 좋지 않았다.
ㄷ. 도배를 하고 청소를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 두었다.

(28) ㄱ. 사과나 배나 과일 좀 사와.
ㄴ. 쌀이랑 세제랑 휴지랑 생필품을 사러 갔다.

본고에서는 위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선행 병렬항들을 아울러 표상하는 아우름 표현을 가지는 병렬을 '아우름 병렬'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는 이현희(1994)에서 제시한 '아우름 명사구'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아우름 병렬 사용의 동기는 낮은 정도의 망라성과 적시성을 보완하려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화자는 본인이 의도한 지시 대상(사과, 배, 귤을 포함하거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과일)이 있을 때,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해 우선 그 일부를 구체적으로 제시(사과나 배나 귤이나)하면서도, 미처 제시하지 못한 부분(포도, 복숭아 …)까지 포괄하여 자신이 의도한 지시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아우름 표현(과일)을 마지막에 언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자가 자신이 발화한 병

수렴표현: 나열된 접속항을 의미적으로나 통사적으로 직접 포괄하는 상위의 어휘 성분으로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ㄱ. 나열된 접속항들의 바깥에 위치한다.
ㄴ. 나열된 접속항 모두와 구성성부을 이루며 나열된 접속항
ㄷ. 나열된 접속항 모두를 직접 내포하며 내포를 표시하는 다른 문법적 수단을 수반하지 않는다.
ㄹ. 나열된 접속항을 의미 상 수식하거나 수식받지 않는다.
ㅁ. 나열된 접속항 들을 가리키는 외에 다른 대상을 지시하지 않는다.

위의 기술에서 드러나듯이 서형국(2005)의 수렴 표현은 본고의 아우름 표현과는 관심사의 층위가 다르다. 서형국(2005)에서의 수렴 표현은 병렬구성을 전체 구성에 내포시키는 통사적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형국(2005)에서는 '-등'과 같은 요소와 '-고 하-'에서 '하-'와 같은 것을 모두 '수렴표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사용하는 '아우름 표현'은 서형국(2005)의 수렴표현과는 거리가 멀고 이현희(1994)에서 주목한 아우름 명사구의 개념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렬구성의 낮은 망라성이나 적시성을 보완하여 의도한 대상의 범위를 확인하고 확정하는 수단으로 아우름 표현을 붙이는 것이다.

한편 다른 언어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동기에 의해 형성된 병렬구성의 사례가 포착된 바 있다. Weber(1989: 351)에서는 ‘나열과 종합 병렬(list and count conjunction)’이라는 병렬구성의 유형을 소개한 바 있는데, 병렬항들을 나열한 뒤, 맨 뒤에 병렬항의 총 수를 제시하는 유형의 병렬구성이 몽골어(Moglian), 고대 티벳어(Classical Tibetan) 등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들 구성의 마지막에 표시된 병렬항의 총수는 나열된 대상의 망라성을 확인하여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관련된 예문들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29) ㄱ. bagˇs, Gombo xojor
teacher Gombo two
‘the teacher and Gombo’ (Vietze 1988: 41)
ㄴ. lus ŋag yid gsum
body speech mind three
‘body, speech and mind’ (Bayer 1992: 241)
ㄷ. Pusha-ra-n Pedru-ta Jacobo-ta Hwan-ta kimsa-n-ta
lead-PAST-3 Peter-ACC James-ACC John-ACC three-3-ACC
‘He led off Peter, James and John’ (Weber 1989: 351)

한국어의 아우름 병렬구성은 일종의 동격 구성으로 동격의 한 항이 병렬구성, 나머지 항이 아우름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고의 ‘동격’은 이선웅(2007)의 ‘동격’에 준하는데, 이에 준한 동격의 정의와 동격 명사구 분류 체계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30) 동격: 언어외적으로 동지시적인 둘 이상의 요소가 중간에 아무런 언어형식을 개입시키지 않고 병렬적으로 구성되는 현상[5]

5) 이선웅에서는 이를 ‘명사구’에 한정하였으나 본고에서는 그러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다.

(31) 이선웅(2007)의 동격 명사구 분류 체계

ㄱ. 완전동격 명사구

① 자(字), 호(號) +고유명사: 독립적 동지시(예: 율곡 이이)

② 화시대명사+고유명사: 일방협조적 동지시(예: 나 이승만)

③ 화시대명사+보통명사: 쌍방협조적 동지시(예: 저들 반역자)

ㄴ. 부분동격 명사구

① "의문사+-인가" +명사구: 일방협조적 동지시(예: 뭔가 날카로운 것, 누군가 착한 사람)

② 호칭, 지칭어+고유명사: 일방협조적 동지시(예: 사장 김철수)

아우름 병렬의 경우 위에서 든 '사과나 배나 귤이나 과일'을 놓고 볼 때, '사과, 배, 귤'과 '과일'이 언어 내적 의미상으로 동일하지는 않아도 화자가 지시하고자 의도한 대상이라는 점에서 볼 때 언어 외적으로 동지시적이라고 볼 수 있다. 화자가 의도한 지시 대상은 '사과, 배, 귤을 포함하거나 이와 유사한 특징을 지닌 과일류'에 해당할 것이다. 이 대상에는 반드시 '사과, 배, 귤'만이 포함되는 것도 아니며, 모든 과일 종류 속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쌍방협조적 동지시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즉 화자가 의도한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과나 배나 귤이나] 부분과 [과일] 부분이 상호 참조되어야 한다.

위의 체계 내에서 볼 때, 아우름 병렬의 경우 부분동격 유형에 해당하는 동격 구성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 부분동격의 선행요소는 병렬구성이고 후행요소는 아우름 표현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그 유형에는 다음과 같이 쌍방협조적 동지시 유형과 일방협조적 동지시 유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2) 부분동격의 아우름 병렬

ㄱ. 쌍방협조적 동지시: [사과나 배나 귤이나] [과일] 좀 사와.

ㄴ. 일방협조적 동지시: [사과나 배나 귤이나] [이런 것] 좀 사와.

쌍방협조적 동지시 유형에 해당하는 [사과나 배나 귤이나] [과일]의 경우, [사과

나 배나 귤이나]와 [과일] 은 서로 참조하면서 함께 고려될 때 화자가 의도한 대상을 정확히 지시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사과나 배나 귤이나][이런 것]과 같은 경우에는 이선웅(2007: 179)의 '나, 이승만'의 예와 같이 후자가 전자에 의존하여 동지시 해석이 보장되므로 일방협조적 동지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5.4. 유사 병렬구성(pseudo coordination)

병렬구성들 중에는 다음과 같이 일부 병렬항이 고정된 구성이 존재한다.

(33) ㄱ. [-co 부정(不定)표현 co] 구성: -고 뭐고, -ㄴ지 누군지, -ㄴ가 어딘가 …
ㄴ. [-co 부정(否定)표현 co] 구성:-든(지) 말든(지), -나 마나, -거나 말거나, -락 말락 …
ㄷ. [-co 비하표현 co] 구성: -이고 나발이고, -인지 개뿔인지, -고 자시고[6], -든 지랄이든 …

위와 같은 구성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첫째, 복수의 병렬항들 중 반드시 최종항이 고정된다. 선행 병렬항들이 고정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34) ㄱ. *뭐고 -고, *누군지-인지
ㄴ. *말든지 -든지

둘째, 병렬항이 2항 구성인 경우가 많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이 3

6) 조미희(2014)에서는 '-고 자시고' 구성을 '춥고 덥고', '오고 가고' 등과 같이 반대 극단값 표현과 관련된 구성인 것으로 다룬 바 있다. 척도상의 양 끝점을 나타내는 어휘가 병렬적으로 결합하여 그 척도 전체를 의미함으로써 전칭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춥고 덥고'나 '오고 가고'와 같은 유형으로 파악하기보다는 후행 병렬항이 특정한 비하어로 굳어져 사용되는 유사 병렬구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항 이상의 병렬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35) ㄱ. 가거나 오거나 말거나 니가 알아서 해.
ㄴ. 돈이고 명예고 뭐고 이제 다 필요 없다.

셋째, 비하나 하대의 의미가 쉽게 담긴다.

위의 모든 구성이 비하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비하의 의미가 쉽게 담긴다는 특성이 있다. 이는 [-co 부정사co] 구성과 [-co 말-co] 구성 모두 '논리적으로는' 전수(全數)를 의미하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예문들의 경우에도 실제 전달되는 의미와는 별개로 '논리적으로는' 결국 '웨딩드레스'를 포함한 모든 정해지지 않은 대상, 먹는 선택지와 먹지 않는 선택지가 더해진 모든 경우를 표상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웨딩드레스'를 가리키게 된다.

(36) ㄱ. 웨딩드레스인지 뭔지를 고른다고 벌써 두 시간째다.
ㄴ.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처럼 화자가 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간결하게 전달하지 않고 전수를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아무 정보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이는 언급 대상이 특정할 가치가 없다라거나 선택과 관련된 책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기 쉽다.

채현식(2013)에서는 아래와 같은 예들에 대하여 변항을 지닌 통사적 구성이면서 구성 전체가 관용표현처럼 굳어진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변항을 포함하면서 구성 전체가 특정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형식상 단어형성규칙과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37) ㄱ. N은 말할 것도 없이
ㄴ. N중의 N
ㄷ. V든지 말든지

ㄹ. V면 V을수록

또한 이와 관련하여 채현식(2014)에서는 변항을 구성 성분으로 포함하는 관습화된 통사 구성 역시 숙어, 연어와 마찬가지로 어휘부의 구성 요소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관습화된 통사 구성이 의미기억 속에 어휘항목으로 표상되어 있다는 근거로는 Pulvemuller(2013: 414)의 부정합 음극성(mismatch negativity) 실험을 들었는데, 이에 의하며 단어와 관습화된 통사적 구성의 신경과학적 반응이 동일하였다는 것이다. 요컨대 'V든지 말든지'와 같은 구성에서 '-든지 말든지' 구성은 논항으로 V를 취하는 구조를 가진다는 것인데[7] 이러한 논의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병렬구성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게 된다.

한편 이러한 종류의 구성들은 서형국(2005)에서 접속구성의 약화 현상으로 다룬 내용과도 관련이 된다. 서형국(2005: 258)에서는 (38)과 같은 현상이 접속 구성의 약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예로 '-락' 통합 접속 구성의 변화를 들고 있다.

(38) 접속구성의 약화(서형국 2005)

ㄱ. 다항접속구성>양항접속 구성

ㄴ. 이심 구조 유지

ㄷ. 구성의 화석화/어휘화

(39) '-락' 통합 접속 구성의 변화: 접속구성 약화 현상의 예(서형국 2005)

ㄱ. 구성의 화석화: A락 말락 하- (어기 고정)

ㄴ. 구성의 어휘화: A락 B락 하- (어기 순서 고정)

ㄷ. 표지 변화: -락>-ㄹ락

ㄹ. 양항접속화

---

7) 이와 관련하여 채현식(2014: 11)에서는 이는 동사나 조사가 통사정보인 논항 정보를 가지고 기억되어 있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동사 '먹-'이 'NP1가 NP2를 먹-'의 형식으로, 조사 '은'이 'NP-은'의 형식으로 기억되어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어휘화나 화석화 과정에 참여하는 접속구성은 2항 접속의 경우가 많고 3항 이상의 다항 접속의 경우에는 어휘화나 화석화에 참여하기 어려운 조건을 지니는 듯하다고 하였는데 위에서 살펴본 예문 (35)와 같이 부정사나 '말-'이 참여하는 유사 병렬의 경우 반드시 2항 접속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서형국(2005)의 접속구성의 약화 개념은 본고에서 다루는 유사 병렬과 관련하여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데 이들이 외형적으로는 병렬구성이나 통시적으로 그 내부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구성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채현식(2014)과 서형국(2005)의 논의를 참조하여 이 구성들을 분석하면 이 구성들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0) 유사 병렬구성의 형성

[X1 co] [X2 co] > X1 [co X2 co]

유사 병렬구성은 X2가 특정한 몇 요소(부정사, 말-)로 굳어지면서 [co X2 co]가 하나의 문법요소와 같이 X1을 취하는 구성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는 온전한 병렬구성으로 보기도 어려우나 [co X2 co]부분이 이미 하나의 문법요소로 굳어졌다고 보는 것도 지나치게 급진적인 면이 있다. 현재로서는 이들이 본디 병렬구성이었으나 구성의 내부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특수한 성격을 보여주는 유사 병렬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해 두기로 한다.

한편 본고에서 유사 병렬로 다룬 '-ㄹ락 말락' 구성의 경우에는 '-락 -락'과 구별하여 기술될 필요가 있음을 덧붙이고자 한다. 표지가 분화하면서 의미도 달리 기술할 필요가 생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락'은 '오르락 내리락', '붉으락 푸르락' 과 같이 교체 병렬구성의 어미로 볼 수 있으며, '-ㄹ락'은 '-ㄹ락 말락'의 구성, 즉 유사 병렬구성의 어미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락의 사전 기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락02

「어미」

(주로 '-락-락하다' 구성으로 쓰여) 뜻이 상대되는 두 동작이나 상태가 번갈아 되풀이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그러나 '-락'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42) ㄱ. -락 -락: 뜻이 상대되는 두 동작이나 상태가 번갈아 되풀이됨을 나타내는 교체 병렬구성의 연결어미
예) 오르락 내리락, 오락 가락, 붉으락 푸르락, 쥐락 펴락
ㄴ. -ㄹ락 말락: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이루어질 듯 이루어지지 않음을 나타내는 유사 병렬구성의 연결어미
예) 올락 말락, 죽을락 말락

5.5. 요약

• 병렬구성 중에는 의미, 구조적으로 특수한 성격을 보이는 것들이 있다. 이들 중 일부 눈에 잘 띄는 구성은 선행 연구에서 개별적으로 다루어진 바 있으나, 문법 체계 내에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임시적인 지위가 부여되었다.

• 본장에서 다룬 구성은 '교체 병렬구성', '되풀이 병렬구성', '아우름 병렬구성', '유사 병렬구성'이며 이들은 병렬구성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교체 병렬구성은 시간적으로 입체적으로 해석되는 유형의 병렬구성이다. 되풀이 병렬구성은 복수의 동일한 표현을 되풀이한 병렬구성이다. 아우름 병렬구성은 앞의 병렬항들을 모두 종합하는 아우름 표현이 맨 뒤에 등장하는 구성이다. 유사 병렬구성은 최종 병렬항이 고정되면서 내부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병렬구성이다.

• 본고는 이러한 구성들의 특수한 성격을 포착하되, 병렬구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특수한 병렬구성의 유형은 추가적으로 더 발견, 기술될

여지가 있다.

6. 결 론

6.1. 요약

언어 단위가 결합할 때 대등한 방식으로 결합하기도 하고, 하나가 다른 하나에 의존적인 방식으로 결합하기도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을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렬에 의해 형성된 구성에 대한 연구는 의존적인 관계로 형성된 구성에 대한 연구의 양에 비해 아주 적은 편이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복수의 언어 단위들이 대등한 관계로 결합하는 것보다는,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의존적인 관계로 2항 결합을 하는 것이 훨씬 빈번한 결합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병렬보다는 의존적인 구성에 관여하는 문법요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도 증명된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빈도 높게 사용되는 구성일수록 더 효율적인 구조화를 돕는 문법 장치가 복잡하게 발달하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결합하는 두 언어 단위가 대등한 것보다는 의존적인 것이 그 의존의 양상에 따른 의미 관계도 훨씬 다양하다.

이로 인해 언어 단위의 결합의 측면에서 볼 때 연구자들의 관심은 의존적인 결합 관계에 치우쳤으며, 생성문법에서도 모든 구성을 핵과 그것에 의존적인 요소로 구별하여 분석하는 것을 기본 틀로 삼았다. 이처럼 병렬에 의해 형성된 언어 구조는 대체로 예외적이고 주변적인 것으로 처리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병렬에 의해 형성된 구성도 주변적인 원리가 아니라 의존적 구성과 함께 언어 단위 결합 원리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언어 연구에 있어서 병렬에 의해 형성된 언어 구성들을 지나치게 홀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이 생길 만하다.

본고의 목표는 한국어 병렬구성의 구조와 의미, 병렬구성과 관련된 언어 전략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어 병렬구성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구명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한국어 병렬구성이 가지는 차별적 특성을 밝히는 한편, 병렬구성의 통사·

의미, 화용적 성격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고 2장에서는 '병렬', '병렬구성'이 무엇인가, 병렬구성의 범위와 구조는 어떠한가, 병렬구성의 의미 체계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병렬(coordination)은 복수의 언어 단위가 같은 자격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병렬에 의해 만들어진 병렬구성(coordinate construction)은 어느 한쪽이 다른 것에 의존적이지 않은 관계를 이루며 이 결합에 의해 만들어진 전체 구성은 그 구성 요소들과 같은 유형[1]에 속하는 통사적 구성이다. '병렬'은 의미, 통사적으로 구별되는 구성을 형성하는 원리로 '의존'과 함께 언어 단위 연결의 양대 원리에 해당한다. 병렬구성은 병렬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 병렬어(형태적 병렬), 병렬구성(통사적 병렬), 병렬적 텍스트(담화적 병렬) 중, 통사적 구성인 통사적 병렬에 해당하며, 병렬항과 병렬표지로 구성된다. 이때 병렬항은 병렬되는 언어 단위로 통사원자 이상, 절 이하의 단위에 해당한다. 병렬표지는 병렬구성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어 복수의 병렬항을 매개하는 문법적 표지이다. 한편 병렬구성의 의미에 대한 선행 연구의 기술은 크게 논리적 체계와 기술적 체계로 구별될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의 장단점을 지닌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의미 기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병렬구성의 의미 범위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역접을 병렬로 인정하지 않았다.

본고의 3장에서는 병렬구성의 통사적 성격을 다루었다. 한국어 병렬구성에는 병렬표지로써 병렬조사, 병렬어미, 무표지가 병렬항의 문법범주에 따라 구별되어 사용되며, 병렬항 간의 의미 관계가 병렬표지 종류의 선택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흔적을 찾을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병렬조사는 체언(구)와 명사구 상당어인 병렬항을 연결

---

1) 전체 구성과 그 구성 요소들이 동일한 유형에 속한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추후 보다 세밀한 논의가 이루어지 필요가 있다. Corbett(2000: 195-198)에서는 복수의 명사가 연결된 구성에서 일치의 문제에 대한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ㄱ. 가장 가까운 항목에 일치
ㄴ. 가장 먼, 처음의 항목에 일치
ㄷ. 연결된 모든 항목에 일치(resolution)

이러한 논의는 병렬에 의해 만들어진 전체 구성이 그 구성 요소의 유형과 완전히 같을 수 없다는 점과 관계되는 것이다. 병렬구성과 그 구성 요소인 병렬항의 관계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할 경우 '동일한 유형'과 관련된 정의가 수정될 여지가 있다.

하는 병렬표지로서 격조사, 보조사와는 구별되는 성격을 지닌다. 병렬조사는 그 분포에 따라, 최종항 무표지 구성에만 참여하는 병렬표지, 최종항 무표지 구성과 전항표지 구성에 모두 참여하는 병렬표지(이는 다시 두 구성의 의미가 동일한 경우와 다른 경우로 구분된다), 상관적 표지 구성에 참여하는 병렬표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한편 병렬어미는 용언(구)와 절을 연결하는 병렬표지로, 단어, 구, 절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의 언어단위를 연결한다. 또한 병렬어미의 판별조건으로는 대등적 다항 연결 가능성(필요충분조건), 자리바꾸기(충분조건), 시제의 독립적 작용(필요조건)을 제시하였다.

본고의 4장에서는 병렬구성의 의미를 다루었다. 기존의 병렬구성의 의미 기술과 관련하여 본고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첫째, 병렬구성의 의미기술은 표지 위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표지 외에, 전체 병렬구성의 구조, 병렬항의 의미, 병렬구성 사용의 화용적 조건 등이 협력적으로 병렬구성의 의미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둘째, 논리적 체계인 연접/이접의 구별만으로는 자연언어의 병렬구성의 다양한 의미를 기술하기 어렵다. 셋째, 기술적 체계의 경우에는 일관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와 같은 반성적 성찰에 근거하여 본고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표지 위주의 기술에서 벗어나, 병렬구성의 의미에 관여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 둘째, 기술적 의미 체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렬구성의 다양한 의미 양상을 일정한 자질로 포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다. 셋째, 그동안 병렬구성의 의미 기술에서 배제되어온 특수한 유형의 병렬구성도 관심을 가지고 관찰한다. 이와 같은 원칙에 기반한 논의의 결과, 병렬표지 외에도 전체 병렬구성의 구조, 병렬항의 의미, 병렬구성 사용의 화용적 조건 등이 협력적으로 병렬구성의 의미를 구성함을 보이고 병렬구성의 의미기술을 위한 의미자질로 본고는 망라성, 적시성, 배타성, 선택지향성을 제시하였다. 망라성은 문맥이나 상황상 주어진 가능한 집합의 개체들을 모두 포괄하여 언급하는 성질이다. 적시성은 바로 그것인가 아니면 그것과 유사한 종류의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된 성질이다. 배타성은 병렬항 간의 배타적 선택과 관련된 성질이다. 선택지향성은 청자에게 병렬항들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 선택 해석의 자유를 부여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와 관련된 자질이다. '망라성', '적시성', '배타성', '선택지향성'의 높고 낮은 정도는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수단에 의해 병렬구성에 반영된

다. 표지위주의 접근 방식에 의해 예외적인 현상으로 처리되던 많은 사례들이 이러한 의미자질을 사용한 기술에서는 설명이 가능한 대상이 된다.

본고의 5장에서는 병렬구성 중 의미, 구조적으로 특수한 성격을 보이는 구성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들 중 일부 눈에 잘 띄는 구성은 선행 연구에서 개별적으로 다루어진 바 있으나, 문법 체계 내에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임시적인 지위가 부여되었다. 본고에서 다룬 이들 유형은 '교체 병렬구성', '되풀이 병렬구성', '아우름 병렬구성', '유사 병렬구성'이다. 교체 병렬구성은 시간적으로 입체적으로 해석되는 유형의 병렬구성이다. 되풀이 병렬구성은 복수의 동일한 표현을 되풀이한 병렬구성이다. 아우름 병렬구성은 앞의 병렬항들을 모두 종합하는 아우름 표현이 맨 뒤에 등장하는 구성이다. 유사 병렬구성은 최종 병렬항이 고정되면서 내부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병렬구성이다. 본고는 이러한 구성들의 특수한 성격을 포착하되, 병렬구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6.2. 남은 문제

첫째, 방언에 나타나는 병렬구성의 양상을 살펴보지 못하였다. 방언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병렬구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같은 기원의 병렬표지라 할지라도, 그 분포나 의미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둘째, 개별 병렬표지에 대한 더 심도 있는 기술은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셋째, 통사적인 병렬 외에 형태적 병렬, 담화적 병렬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변형된 병렬구성, 실제 발화 상황에서 성분의 생략 등이 일어난 구성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고광주(1999), 대등 접속문에 대한 재검토, 《한국어학》 9, 49-8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 편(2009),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고영근(1987),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탑출판사.

고영근(1989), 《국어 형태론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권재일(1985), 《국어의 복합문 구성 연구》, 집문당.

권재일(1994), 《한국어 문법의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김광섭(2005), 부정어의 작용역, 《부정과 부정어》, 한국문화사, 225-260.

김민수(1981), 《국어의미론》, 일조각.

김병일(2001), 《국어 명사구의 내적 구조》, 세종출판사.

김상대(1981), 중세어 공동격 구성의 연구, 《국어학》 10, 81-104.

김석득(1992), 《우리말 형태론: 말본론》, 탑출판사.

김선영(2003), 현대국어의 접속부사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성용(2002), 명사의 접속사화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승곤(1978), 한국어 조사의 통시적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승곤(1992), 《국어 토씨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김승곤(1996), 《현대 나라 말본》, 박이정.

김연희(2007), 어미의 반복 사용에 의한 복합구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영희(1974), 대칭 관계와 접속조사 '와', 《한글》 154, 39-61.

김영희(1975), 이접화(disjunction)의 구조, 《언어와 문학》 3, 한국어문학연구회.

김영희(1984), 《한국어 셈숱화 구문의 통사론》, 탑출판사.

김영희(1987ㄱ), 국어의 접속문, 《국어생활》 11, 56-66.

김영희(1987ㄴ), 셈숱말의 영역과 셈숱말 올리기, 《동서문화》 19, 265-286.

김영희(1988), 등위 접속문의 통사 특성, 《한글》 201, 83-117.

김영희(1991ㄱ), 셈숱말 '각각'의 문법, 《동박학지》 71·72,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 259-282.

김영희(1991ㄴ), 종속 접속문의 통사적 양상, 《들메 서재극 박사 환갑기념 논문집》, 계명대학교 출판부, 165-188.
김영희(2001), 이른바 대립접속문의 구조적 유형, 《한글》 253, 195-233.
김완진(1970), 문접속의 '과'와 구접속의 '과', 《어학연구》 VI -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10.
김의수(2007), 우언적 부정(不定) 표현의 통사 연구: '의문사+(이-)+-s가' 구성을 중심으로, 《어문론총》 46, 1-28.
김인균(2002), 국어 명사 연결 구성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일환(2003), 국어의 어근과 어근적 단어, 《형태론》 5-1.
김정대(2004), 한국어 접속문의 구조, 《국어국문학》 138, 121-152.
김진수(1987), 《국어 접속조사와 어미 연구》, 탑출판사.
김진형(2000), 조사연속구성과 합성조사에 대하여, 《형태론》 2-1, 52-79.
김차균 외(2005), 《허웅 선생의 우리말 연구》, 태학사.
김창섭(1994),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 구조》, 태학사.
남기심(1996), 《국어 문법의 탐구 I》, 태학사.
남기심(2001), 《현대국어 통사론》, 태학사.
남기심(1993), 《국어 조사의 용법》, 서광학술자료사.
남기심·고영근(1993), 《표준국어문법론》 개정판, 탑출판사.
남윤진(1989), 15세기 국어의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남윤진(1997), 현대국어의 조사에 대한 계량언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류병율(2009a), 한국어 접속조사 '-이나 (-(이)나)', 《한국어 의미학》 29, 29-56.
목정수(2003), 한정조사 {(이)나}의 통사론과 서법 제약, 《한글》 260, 113-148.
목정수(2003), 《한국어 문법론》, 월인.
문숙영(2009), 《한국어의 시제범주》, 태학사.
민현식(1999), 《국어문법연구》, 역락.
박소영(2002), 한국어 부사절과 접속문 체계 다시 보기, 《언어학》 34, 49-73.
박재연(1999), 국어 양태 범주의 확립과 어미의 의미 기술: 인식 양태를 중심으로, 《국어학》 34, 199-225.
박재연(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태학사.
박진호(1994), 통사적 결합 관계와 논항구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진호(2009), 동시성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면서'의 비대칭적 용법, 《한국언어문화》 38, 173-187.
박철우(1998), 한국어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박철우(2010), '들'-표지 명사구의 구조와 의미, 《한국어 의미학》 31, 51-75.
박형진(2008), 한국어 접속문의 시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서정목(1985), 접속문의 의문사와 의문보문자 《국어학》 14, 383-416.
서정수(1985), 국어의 접속어미 연구(1), 《한글》 189, 51-86.
서정수(1990), 《국어문법의 연구》, 한국문화사.
서정수(1994), 《국어문법》, 집문당.
서정수(1996), 《국어문법》 (수정증보판), 한양대학교 출판원.
서정수(2005), 《한국어의 부사》, 서울대학교출판부.
서태룡(1979), 내포와 접속, 《국어학》 8, 109-135.
서태룡(1988), 접속어미의 형태, 《문법 연구와 자료》, 태학사.
서태룡(1988), 《국어 활용 어미의 형태와 의미》, 탑출판사.
서태룡(2005ㄱ), 국어 사전의 조사 '-도', 《한국어문학연구》 44, 125-150.
서태룡(2005ㄴ), 국어의 어미 '-도', 《국어학》 45, 91-117.
서형국(2005), 국어 접속 구성의 문법사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서형국(2009), 국어 접속 구성의 의미론, 《언어학연구》 14, 69-84.
성광수(1999), 《격표현과 조사의 의미》, 월인.
안명철(1995), '이'의 문법적 성격 재고찰, 《국어학》 25, 29-49.
안효경(2001), 《현대국어의 의존명사 연구》, 역락.
양인석(1973), Semantics of Delimiters, 《어학연구》 9-2, 서울대 어학연구소, 84-122.
엄정호(1991), '-고' 등위 접속문의 구조, 《언어와 언어교육》 6, 동아대학교어학연구소, 123-135.
엄정호(1997), 조사에 대하여(1) : 조사 목록을 중심으로, 《언어와 언어교육》 12, 73-103.
엄정호(2000), 조사의 범주 특성, 《형태론》 2-1, 43-58.
우형식(1996), 접속 기능의 명사구, 남기심 엮음, 《국어문법의 탐구》 III, 태학사, 475-506.
유목상(1970), 접속어에 대한 고찰, 《한글》 146, 477-490. /남기심, 고영근, 이익섭 편

(1975), 현대국어문법, 계명대학교출판부, 54-66에 재수록.
유현경(1986), 국어 접속문의 통사적 특질에 대하여, 《한글》 191, 77-104.
유현경(2001a), 간접인용절에 대한 연구, 《국어문법의 탐구》 V, 태학사, 77-92.
유현경(2001b), 조사 '하고'의 의미와 기능 : '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글》 251, 205-231.
유현경(2002), 부사형 어미와 접속어미, 《한국어학》 16, 333-352.
윤재학(2000), 연접적 '이나', 《언어와 정보》 4-2, 41-54.
윤평현(1989), 국어의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윤평현(2005), 《현대국어 접속어미 연구》, 박이정.
이계병(1989), 영어 등위 접속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관규(1990), '과'의 연결과 '공동', 《한국어학 신연구》, 한신문화사.
이관규(1992), 《국어 대등구성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이관규(1999ㄱ), 《학교문법론》, 월인.
이관규(1999ㄴ), 조사의 통사론적 연구, 한국어학회 편, 《국어의 격과 조사》, 월인, 289-317.
이관규(2003), 국어의 문장 구성에 대한 연구와 전망, 홍종선 외 7인, 《한국어 문법론의 연구 현황과 과제》, 박이정, 205-246.
이관규(2005), 《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법론》, 집문당.
이광정(2003), 《국어문법연구I : 품사》, 역락.
이규호(2001), 한국어 복합조사의 판별기준과 구성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규호(2003), 계사 활용형 복합조사의 판별기준,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문법론》, 한국문화사, 199-233.
이규호(2006), 접속조사의 분류와 목록, 《우리말글》 37, 171-195.
이기동(1993), 《A Korean Grammar on Semantic-Pragmatic Principles》, 한국 출판사.
이남순(1996), 특수조사의 통사기능, 《진단학보》 82, 217-235 /이남순(1998), 《격과 격표지》, 월인, 269-295에 재수록.
이선웅(2000), '의문사+-(이)-+-ㄴ가' 구성의 부정(不定) 표현에 대하여, 《국어학》 36, 191-219.
이선웅(2001), 국어의 양태 체계 확립을 위한 시론, 《관악어문연구》 26, 서울대학교 국

어국문학과, 317-339.
이선웅(2005), 《국어 명사의 논항구조 연구》, 월인.
이선웅(2007), 국어 동격 명사구의 개념과 유형, 《어문학》 89, 159-185.
이선웅(2012),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월인.
이성우(2014), 조사 '-하고'의 문법화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성하(1998),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이은경(1995), 접속문의 대등성과 종속성에 대하여, 《텍스트언어학》 3, 237-262.
이은경(2000), 《국어의 연결어미 연구》, 태학사.
이익섭(2003), 《국어 부사절의 성립》, 태학사
이익섭(2005), 《한국어 문법》, 서울대출판부
이익섭·채완(1999), 《국어 문법론 강의》, 학연사.
이정화(1998), 현대국어의 접속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정훈(2005), 조사 활용형의 범주 통용 : '이'계 형식을 대상으로, 《국어학》 45, 145-175.
이정훈(2006), 'V-어V' 합성동사 형성 규칙과 범주통용, 《어문학》 91, 129-161.
이정훈(2008), 한국어 접속문의 구조, 《생성문법연구》 18, 115-135.
이필영(1989), '과'의 접속 기능과 격표시 기능에 관하여, 《수련어문논집》 16, 부산여자대학교.
이필영(1994), 대등절과 종속절에 관하여, 《선청어문》 22, 서울대학교국어교육과, 645-669.
이현우(1986) 현대 국어의 접속 양상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70.
이현우(1995), 현대 국어의 명사구의 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현희(1991), 중세국어 명사문의 성격,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이현희(1994), 《중세국어 구문 연구》, 신구문화사.
이호영(1997), 《국어운율론》. 한국연구원.
이희자·이종희(1998), 《사전식 텍스트분석적 국어 조사의 연구》, 한국문화사.
임동훈(1995), 통사론과 통사 단위, 《어학연구》 31-1, 87-138.
임동훈(2003), 한국어 조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홍종선 외 7인, 《한국어 문법론의 연구 현황과 과제》, 171-203.
임동훈(2004), 한국어 조사의 하위 분류와 결합 유형, 《국어학》 43, 119-154.

임동훈(2005), ‘이다’ 구문의 제시문적 성격, 《국어학》 45, 119-144.
임동훈(2007), 한국어 조사 ‘만’과 ‘도’의 의미론, 《조선학보》 125, 1-20.
임동훈(2008),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 《한국어 의미학》 26, 211-249.
임동훈(2009), 한국어 병렬문의 문법적 위상, 《국어학》 56, 87-130.
임동훈(2014), 한국어의 수와 의미적 효과: ‘우리’를 중심으로, 2014년 여름 형태론집담회 발표문.
임홍빈(1985), 국어의 ‘통사적인’ 공범주에 대하여, 《어학연구》 21-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331-384.
임홍빈(1987), 國語의 名詞句 확장 규칙에 대하여, 《국어학》 16, 국어학회, 379-430.
임홍빈(1989), 統辭的 派生에 대하여, 《어학연구》 25-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167-196. /임홍빈(1998), 《국어 문법의 심층》 2 : 명사구와 조사구의 문법, 33-64에 재수록.
임홍빈(1997), 국어 굴절의 원리적 성격과 재구조화, 《관악어문연구》 22, 93-163.
임홍빈(1998), 《국어 문법의 심층》, 태학사.
임홍빈·장소원(1995), 《국어문법론Ⅰ》,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임홍빈 외(2002), 접속조사 ‘와/과’와 부사격조사 ‘와/과’의 분포, 《국어 문법 현상의 계량적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79-90.
장 미(2000), ‘이’계 보조조사 목록 선정의 기준, 《동남어문논집》 10, 165-182.
장경희(1995), 국어의 양태 범주의 설정과 그 체계, 《언어》, 20-3, 191-205.
전영철(2002), 한정성 효과: 한정성 제약과 비한정성 제약. 《언어와 정보》 6-2, 83-104.
전영철(2007), 한국어 복수 표현의 의미론: “들”의 통합적 해석. 《언어학》 49, 325-347.
정동환(1993), 《국어 복합어의 의미연구》, 서광학술자료사.
정승철(2013),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 태학사.
정연희(2001), 한국어 연결어미의 문법화,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조미희(2014), 어미반복 구문의 구조와 의미: ‘-고 자시고’와 그 연관 구성을 중심으로, 2014년 여름 형태론 집담회 발표문.
조항범(1998), 《주해 순천김씨묘출토간찰》, 태학사.
조향숙(2002), 현대국어의 선택 표현에 대한 고찰,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채　완(1993), 특수조사 목록의 재검토, 《국어학》 23, 69-92.
채　완(1998), 특수조사, 서태룡 외 5인 공편, 《이익섭 선생 회갑 기념 논총 문법 연구와 자료》, 태학사, 115-138.
채현식(2013), 어휘부란 무엇인가-인접학문분야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어학》 66, 307-333.
채현식(2014), 기억에서의 어휘 지식 표상, 2014 하계 국어연구회 발표문.
최규수(1991), '시점'으로 본 '와'의 기능, 《국어국문학》 28, 부산대학교, 7-30.
최동주(1994), 국어 접속문에서의 시제현상 《국어학》 24, 45-86.
최동주(1997), 현대국어 특수조사에 대한 통사적 고찰, 《국어학》 30, 201-224.
최동주(1999), '이'계 특수조사의 문법화, 《형태론》 1-1, 43-60.
최운호(2005), '관형절+일반명사' 구성의 접속 기능에 대한 계량적 연구 : '가운데' 와 '경우'를 중심으로, 《한글》 269, 135-160.
최웅환(2005), 한국어 조사의 분류와 기능에 대하여, 《언어과학연구》 33, 331-348.
최윤지(2011), 이접과 양태의 상관관계 고찰: '-인가'를 중심으로, 《국어학》 69, 146-181.
최재웅(1996), '-만'의 작용역 중의성, 《언어》 21, 673-692.
최재희(1985ㄱ), '-고' 접속문의 양상 《국어국문학》 94, 139-165.
최재희(1985ㄴ), 국어 명사구 접속의 연구, 《한글》 188, 91-115.
최재희(1991), 《국어의 접속문구성 연구》, 탑출판사.
최재희(2004), 《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최전승(1995), 《한국어 방언사 연구》, 태학사.
최정진(2004), 연결어미 '-어다가'와 '-어다'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최현배(1934), 《중등조선말본재판》, 동광당서림, 김민수·고영근(2008), 《역대한국문법대계》, 박이정.
최현배(1937), 《우리말본》, 연희전문학교출판부, 김민수·고영근(2008), 《역대한국문법대계》, 박이정.
최형용(2005), 《국어 단어의 형태와 통사》, 태학사.
한재영(1996), 《십육세기 국어 구문의 연구》, 신구문화사.
한재영(1996), 조사 중첩의 원리 모색, 《이기문 교수 정년 퇴임 기념 논총》, 신구문화사, 774-801.

허　웅(1963/73) 《언어학개론》, 정음사.
허　웅(1975), 《우리 옛말본 : 15세기 국어 형태론》, 샘 문화사.
허　웅(1991), 《15, 16세기 우리 옛말본의 역사》, 탑 출판사.
허　웅(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 문화사.
허경행(2005), 한국어 복합종결어미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허철구(2005), 대등 접속문의 통사구조, 《배달말》 36, 55-87.
허철구(2006), 접속과 부가, 《시학과언어학》 12, 191-221.
홍사만(1987), 《국어 특수조사론》 (개정판), 학문사.
홍사만(1998), 특수조사 의미론, 이승명 엮음, 《의미론 연구의 새 방향》, 박이정, 223-251.
홍사만(2002), 《한국어 특수조사 신연구》, 역락.
홍종선(1998), 《근대국어문법의 이해》, 박이정.
황병순(2008), 조사의 문법화 양상과 결합 원리, 《배달말》 43, 97-119.
황화상(2003), 조사의 작용역과 조사 중첩, 《국어학》 42, 115-140.
Bayer, S.(1996), The coordination of unlike categories, *Language* 72, 579-616.
Corbett, G. G. (2000). *Number. Cambridge textbooks in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roft, William(2001), *Radical Construction Gramm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ulicover, P. W. & R. Jackendoff(1997), Semantic subordination despite syntactic coordination, *Linguistic Inquiry* 28, 196-217.
Culicover, P. W. & R. Jackendoff(2005), *Simpler Syntax*,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Daniel, M & E. Moravicsik(2005), The associative plural,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50-153.
Dik, S. C.(1968), *Coordination: its implications for the theory of general linguistics*, Amsterdam: North Holland Publishing Co.
Ernst Tugendhat & Ursula Wolf(1983)/하병학 옮김(1999), 《논리의미론적 예비학》 (Logisch-semantische Propädeutik), 철학과 현실사.
Foley, W. A. & R. D. Van Valin, Jr.(1984), *Functional syntax and universal*

gramm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Gazdar, G.(1979), *Pragmatics*, New York: Academic Press.

Grice, H. Paul(1975), Logic and conversation, *Syntax and Semantics, vol. 3: Speech Acts*, New York: Academic Press, 41−58.

Grice, H. Paul.(1989), Indicative conditionals, *Studies in the Way of Word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58−85.

Haiman, J., & Thompson, S. A. (2011), "Subordination" in universal grammar, *Proceedings of the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Vol. 10.

Haspelmath, M.(1995), The converb as a cross−linguistically valid category, Martin Haspelmath & Ekkehard König(eds.), *Converbs in Cross−Linguistic Perspective: Sturucture and Meaning of Adverbial Verb Forms*, Berlin: Mouton de Gruyter, 1−55.

Haspelmath, M.(2004), Coordinating constructions: An overview, *Coordinating constructions*, Amsterdam: Benjamins, 3−40.

Haspelmath, M.(2007), Coordination. T. Shopen(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 2: Complex Construc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51.

Hopper, P. J., & Thompson, S. A.(1984), The discourse basis for lexical categories in universal grammar, *Language* 60−4, 703−752.

Hopper, P. J. & E. C. Traugott(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orn, L. R.(1976), *On the semantic properties of logical operators in English*,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4

Huddleston, R.(1984), *Introduction to the Grammar of Englis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uddleston, R. & G. K. Pullum(2002),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szczolt, K. M.(2002), *Semantics and Pragmatics: Meaning in Language and Discourse*, London: Longman.

Huddleston, R. D. and Pullum, K.(2006). Coordination and subordination. B. Aarts and A. McMahon(Ed.), The Handbook of English Linguistics, USA: Blackwell Publishing, 198−219.

Jackendoff, R.(1977). *X−bar Syntax: A Study of Phrase Structure,* Cambridge, MA: MIT Press

Kamp, H.(1973), Free choice permission,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74, 57−74.

Kuno, S.(1987), Functional Syntax: Anaphora, Discourse and Empath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koff, R.(1973), Hedges: A study in meaning criteria and logic of fuzzy concepts, *Journal of philosophical logic 2,* 906−925.

Lambrecht, K.(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Topic,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s of discourse referen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e, Yae−Sheik(1995), Scalar Implicature on Multiple Disjunctions: Generalization of Horn's Scale <and, or>, *Linguistic journal of Korea* 21−4, 1159−1179.

Lehmann, C.(1988), Towards a typology of clause linkage, J. Haiman & S. A. Thompson(eds.), *Clause Combining in Grammar and Discourse*, Amsterdam: John Benjamins, 181−225.

Levinson, S. C.(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vinson, S. C.(2000) Presumptive Meanings: The Theory of General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 Cambridge, MA: MIT Press.

Longacre, R. E.(1985), Sentences as combinations of clauses, Shopen, T.(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 2: Complex construc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35−286.

Longacre, R. E.(2007), Sentences as combinations of clauses, Shopen, T(ed.), *Complex Constructions, Vol. 2: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72-420.

Lyons, J.(1977), *Semantics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tthews, P. H.(1981), *Syntax*,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tthews, P. H.(1997), *The Concise Oxford Dictionary of Linguis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Matthiessen, C. & S. A. Thompson(1988), The structure of discourse and 'subordination', Haiman, John & Sandra A. Thompson (eds.), *Clause combining in grammar and discourse*,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75-329.

Ohori, Toshio(2004), Coordination in Mentalese, Martin Haspelmath(ed.), *Coordinating constructions, Coordinating constructions*,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41-66

Payne, J. R.(1985), Complex Phrases and Complex Sentences, T. Shopen(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 2: Complex Constructions* 3-4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rince, E. F., Frader, J., & Bosk, C.(1982), On hedging in physician-physician discourse, R. J. Di Pietro(ed.), *Linguistics and the professions*, Norwood, NJ: Ablex, 83-97.

Pulvemuller, F.(2013), Brain basis of meaning, words, constructions, and grammar, *Oxford Handbook of Construction Gramm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396-416.

Quirk, R. & Greenbaum, S. & Leech, G. & Svartvik, J.(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Ross, John R.(1967), Constraints on variables in syntax, Ph. D. Dissertation, MIT.

Sauerland(2004), Scalar Implicatures in Complex Sentences, *Linguistics and Philosophy* 27(3), 367-391.

Sag, I. A., Gazdar, G., Wasow, T., & Weisler, S.(1985), Coordination and how to distinguish categories, *Natural Language & Linguistic Theory* 3(2), 117-171.

Sohn, Ho-Min(1994), Korean, London: Routledge.

Stassen, L.(1985), *Comparison and universal grammar*, Oxford: Blackwell.

Stassen, L.(2000), AND-languages and WITH-languages, *Linguistic Typology* 4(1), 1-54.

Thomson, S. and R. E. Longacre(1985), Adverbial Clauses, Shopen, T.(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71−234.

Vendler, Z.(1967), *Linguistics in Philosoph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Van Valin, R. D., Jr. & R. J. LaPolla(1987), *Syntax: Structure, meaning and fun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älchli, B.(2005), *Co−compounds and natural coordin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Weber, David John(1989), *A Grammar of Huallaga (Hu´anuco) Quechua*,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Wilkins, David(1994ms), Semantic structuring of syntax or syntactic reflections of semantics: a semantics priot approach to noun phrase 'coordination' in Mparntwe Arrente(Arranda: Central Australia), SUNY Buffalo.

Yang, In−Seok(1972), *Korean Syntax : Case Markers, Delimiters, Complementation, and Relativization*, 백합출판사.

Yuasa, E. & J. M. Sadock(2002), Pseudo−subordination: a mismatch between syntax and semantics, *Journal of Linguistics* 38, 87−111.

Zhang, Niina Ning(2010), *Coordination in Syntax*,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Zimmermann, Thomas E.(2001), Free choice disjunction and epistemic possibility, *Natural Language Semantics* 8, 255−290.

<부 록>

아래의 표는 우리가 본 논의에서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번호	질문	반성적 성찰/ 구체적 쟁점	주장/해결	본문 참조 위치
01	병렬이란 무 엇 인가?	병렬은 어떤 면에서 다른 언어 단위 연결의 원리와 구별되는가?	병렬(coordination)은 복수의 언어 단위가 같은 자격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병렬에 의해 만들어진 병렬구성(coordinate construction)은 어느 한 쪽이 다른 것에 의존적이지 않은 관계를 이루며 이 결합에 의해 만들어진 전체 구성은 그 구성 요소들과 같은 유형에 속하는 통사적 구성이다. 복수의 언어 단위가 연결된 구성의 내부 구조는 병렬과 의존의 관계로 파악될 수 있다. 병렬은 통사·의미적으로 등위적인 항목들이 나열되고, 이들에 대한 다항 연결이 가능하며 무핵 구성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독자적이고 차별적인 언어 단위의 연결 원리이다. 또한 병렬은 언어단위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연결 원리로 '의존'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2.1.
02	병렬구성에는 정말 핵이 없는가?	병렬표지나, 병렬항 하나를 핵으로 처리할 수 는 없는가?	병렬구성에는 핵을 상정할 수 없다. 병렬구성에 대하여 핵을 상정하는 주요 논의들의 핵심 근거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병렬표지가 핵이라는 주장에 대해: 병렬표지는 상위 구조의 통사 단위의 성격을 결정하지 않는다. ② 병렬항 중 하나가 핵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병렬	2.1

			구성의 경우 '하늘과 사람과 별과 땅'과 같은 다항 구성이 가능하고 이를 쉽게 2항으로 분절하거나 치환할 수 없다.	
03	한국어에는 절 병렬이 존재하지 않는가?	한국어에서 연결된 절은 필연적으로 선행절이 후행절의 어미를 일정 부분 공유할 수밖에 없으므로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한국어는 영어와는 달리 선행절이 필연적으로 후행절의 문법 요소를 공유하게 된다. 그러나 선·후행절의 문법요소 공유와 관련된 기준은 인구어의 절 구조에 적합한 것이다. 이러한 인구어적 기준을 적용하여 한국어에 절 병렬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게 될 경우, 한국어에는 다른 모든 언어 단위에는 병렬이 있지만 유독 절 병렬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본고는 이러한 처리를 지양하고 한국어의 경우에도 절 병렬이 존재한다고 본다.	2.1
04	병렬구성이란 무엇인가?	병렬구성의 범위는 어떠한가?	병렬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 언어 단위는 단어부터 담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따라서 형태적 병렬에 의한 병렬어/병렬어근, 통사적 병렬에 의한 병렬구성, 담화적 병렬에 의한 병렬적 텍스트가 모두 존재할 수 있다. 본고에서 관심을 가지는 '병렬구성'은 병렬적인 통사 구성에 해당한다.	2.2
05	병렬구성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병렬항과 병렬표지는 어떻게 정의되는가?	병렬구성의 구성 요소로는 병렬항과 병렬표지가 있다. ㄱ. 병렬항: 병렬되는 언어 단위. 통사 원자 이상, 절 이하의 단위에 해당한다. ㄴ. 병렬표지: 병렬구성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어 복수의 병렬항을 매개하는 문법적 표지	2.2.
06	한국어의 병렬구성의	한국어에서 가능한 병렬구성의 구조에는 어떤 것들이 있	한국어에서 가능한 병렬구성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ㄱ. [X1 co X2 co... Xn co]	2.2.

	구조는 어떠한가?	는가?	예) 먹고 놀고 자고/ 떡이며 술이며 과일이며 ㄴ. [X1 co X2 (co... Xn)] 예) 착하며 예쁘다/ 책과 공책과 연필 ㄷ. [X1, X2...Xn] 예) 사과, 배, 감, 딸기/ 사과 또는 배 또는 감 또는 딸기 ㄹ. [X1X2...Xn] 예) 시어머니시아버지, 바보멍청이똥개, 눈코입	
07	한국어 병렬구성 분류 체계는 어떠한가?	병렬구성의 구조적 분류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가?	ㄱ. 유표지 병렬구성 (일부 명사구 병렬, 모든 동사구 병렬과 절 병렬) ① 전항 표지 구성: [X1 co X2 co... Xn co] 예) 먹고 놀고 자고/ 떡이며 술이며 과일이며 ② 최종항 무표지 구성: [X1 co X2 (co... Xn)] 예) 착하며 예쁘다/ 책과 공책과 연필 ㄴ. 무표지 병렬구성 (일부 명사구 병렬) ① 분리 구성: [X1, X2...Xn] - 병렬표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병렬표지의 자리에 휴지나 부사 등 다른 요소가 개재됨. 예)사과, 배, 감, 딸기/ 사과 또는 배 또는 감 또는 딸기 ② 비분리 구성: [X1X2...Xn] - 형태적 구성과 경계적인 영역에 있음. 예) 어머니아버지, 형제자매, 바보멍청이	2.2.
08	병렬구성의 의미 범위는 어떠한가?	역접도 병렬구성으로 볼 수 있는가?	역접은 구조적으로 병렬구성으로 파악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접은 다항 구성이 불가능하며 2항 구성만이 가능하다. 둘째, 연접과 이접과는 달리 역접의 모든 구성에서	2.3.

			병렬성이 형식으로 드러난 [Xco Yco] 구문이 완전히 불가능하다. 셋째, 의미적으로도 역접은 연접과 이접과는 달리 연결된 항목들의 위상이 같지 않다.	
09	병렬구성과 관련된 용어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나?	-	ㄱ. 병렬구성: 병렬에 의해 형성된 통사적 구성 ㄴ. 병렬항: 병렬되는 언어 단위. 통사 원자 이상, 절 이하의 단위. 상대적으로 앞서는 항을 '선행항(선행 병렬항)', 상대적으로 뒤에 오는 것을 '후행항(후행 병렬항)', 맨 처음 항을 '최초항(최초 병렬항)', 마지막으로 나열된 병렬항을 '최종항(최종 병렬항)'으로 부르기로 한다. ㄷ. 병렬표지: 병렬구성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어 복수의 병렬항을 매개하는 문법적 표지	2.4.
10	한국어에서 병렬표지와 병렬항의 관계는 어떠한가?	병렬항의 통사와 의미가 병렬표지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가?	한국어 병렬표지는 병렬항의 범주에 민감하다. ㄱ. 병렬조사 : 체언, 명사구 상당어인 병렬항을 연결하는 병렬표지 ㄴ. 병렬어미 : 용언(구)과 절을 연결하는 병렬표지 한국어 병렬구성에는 병렬표지로서 병렬조사, 병렬어미, 무표지가 병렬항의 문법범주에 따라 구별되어 사용되며, 병렬항 간의 의미 관계가 병렬표지 종류의 선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3.1
11	병렬조사는 보조사와 어	병렬조사는 보조사와 같은 형태를 공유하는 것이 많을	① 병렬조사는 명사(구) 뿐 아니라 부사(구)에도 결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조사와 유사하다. ② 병렬조사는 중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조사	3.2.

	떤 면에 서 같고 다른가?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와 차이가 있다. ③ 보조사는 잠재적인 자매항을 배경으로 선행어를 한정하므로 그 자매항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병렬조사는 자매항을 명시해야 한다. 단, 병렬조사 중에는 보조사이기도 한 것들도 있다. 병렬조사는 명시적 자매항을 가져야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명시적 자매항 없이 하나의 병렬항과만 결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용법이 발달하여 일정한 차별적 의미를 획득하게 되면 본디 병렬조사였던 것이 보조사적인 용법을 가지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2	병렬조사는 격조사와 어떤 면에서 같고 다른가?	격조사'-와'와 병렬조사 '-와'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첫째, 공동격의 '-와'는 후행 서술어에 의해 요구되나 병렬의 '-와'는 그렇지 않다. 둘째, 한 문장에 병렬조사와 공동격조사가 모두 나타날 때는 반드시 같은 표지를 쓰지 않더라도 자연스러운 반면 병렬조사끼리는 같은 표지를 써야 한다. 셋째, 공동격조사는 다른 병렬조사와 중복 출현이 가능한 반면 병렬조사끼리는 중복 출현이 불가능하다 넷째, 공동격조사가 붙은 명사(구)와 병렬조사에 의해 연결된 명사(구)는 복수 의미를 나타내는 '-들'과의 공기에 있어서 다른 성격을 보인다.	3.2.
13	병렬조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	용언 활용형과 병렬조사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ㄱ. 형태적 기준: 계사 활용형의 경우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아래에서 '-이' 탈락이 필수적인가? ㄴ. 기능적 기준: 활용형이 본래 가지고 있는 종결 및 연결의 의미와 역할에 변화가 있는가?	3.2.

	가?		ㄷ. (보조적 기준으로써) 음운적 기준: 의문이나 평서의 억양과 같이 활용형에서 동반되는 음운적 특징이 더이상 나타나지 않는가?	
14	병렬조사의 분포에 따라 병렬조사를 분류할 수 있는가?	최종 병렬항 표지의 필수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ㄱ. 최종항 무표지 구성에만 참여하는 병렬표지 ㄴ. 최종항 무표지 구성과 전항 표지 구성 모두에 참여하는 병렬표지 ㄴ-1: 두 구성의 의미가 동일한 병렬표지 ㄴ-2 : 두 구성의 의미가 다른 병렬표지 ㄷ. 전항 표지 구성에만 참여하는 병렬표지 ㄹ. 상관적 표지 구성에 참여하는 병렬표지	3.2.
15	병렬어미에 의해 연결되는 단위는 어떻게 설정되는가?	병렬어미를 포함한 연결어미가 절만을 연결하는가? 아니면 단어, 구, 절에 걸쳐 다양한 단위를 연결하는가?	병렬어미는 단어~구~절에 걸쳐 다양한 층위를 연결하며 병렬구성과 관련하여서 축소, 변형에 의한 구성은 인정될 수 없다.	3.2.
16	병렬어미의 범위는 어떠한가?	병렬어미는 다른 연결어미와 어떻게 구별되며 그 범위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 확정할 수 있을 것인가?	본고에서 사용하는 병렬어미 판별 조건은 다음과 같다. ㄱ. 필요충분조건: 대등적 다항 연결 ㄴ. 충분조건: 자리바꾸기 ㄷ. 필요조건: 시제의 독립적 작용(단, 어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제 결합의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	3.2.

17	무 표 지 병렬	무표지 병렬의 특성과 범위는 어떠한가?	병렬구성은 병렬표지의 존재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 병렬표지가 없이도, 병렬항이 말그대로 '병렬'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일부 유표지 병렬구성과 크게 다름이 없는 의미해석을 입는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사과, 배, 감, 귤'과 같은 구성이 정말 '무표지'이냐는 것이다. 음운론적 휴지 역시 음운론적 표지에 해당하며 이는 일종의 언어 표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무표지 구성에 대하여 통사론적으로 명시적인 표지가 나타나지 않는 구성인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과, 배, 감, 귤'과 같은 구성은 '(통사론적) 무표지 병렬구성'에 해당한다. 둘째, '바보멍청이'나 '눈코입' 같은 구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들 구성은 음운론적으로 비분리적으로 나타나 형태적 구성인 병렬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나 그렇다고 단어로 보기는 어렵다. 이들은 병렬어와 통사적 병렬구성의 경계적 구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들을 병렬어로 처리하지 않고 병렬구성의 특수한 종류로 보기로 한다.	3.2.3.
18	기존 연구에서 병렬구성의 의미 체계는 어떻게	–	선행 연구들의 병렬구성의 의미 체계 경향을 크게 둘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ㄱ. 논리적 의미 체계: 논리학에서 이루어진 연접/이접의 대분류 체계를 차용한 병렬구성의 의미 체계	2.3.

	기술되어 왔나?		ㄴ. 기술적 의미 체계: 개개의 병렬표지의 의미 기능에 따라 세분화한 병렬구성의 의미 체계	
19	병렬구성 의미 기술의 방향	기존의 의미기술에 대한 반성에 근거한 방향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병렬구성의 의미 양상에 사용된 양 극단의 두 체계는 각각의 장단점을 지닌다. 우리는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반성적 성찰에 도달하였다. 첫째, 병렬구성의 의미기술은 표지 위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표지 외에, 전체 병렬구성의 구조, 병렬항의 의미, 병렬구성 사용의 화용적 조건 등이 협력적으로 병렬구성의 의미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둘째, 논리적 체계인 연접/이접의 구별만으로는 자연언어의 병렬구성의 다양한 의미를 기술하기 어렵다. 셋째, 기술적 체계의 경우에는 일관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본고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논리적 체계의 연접/이접의 구별을 받아들이되 자연언어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을 도모한다. 둘째, 기술적 의미 체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렬구성의 다양한 의미 양상을 일정한 자질로 포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다. 셋째, 그동안 병렬구성의 의미 기술에서 배제되어 온 특수한 유형의 병렬구성도 관심을 가지고 관찰한다.	4.1.
20	병렬구성의 의미	병렬표지 외에 다른 요소들이 병렬	병렬구성의 의미는 병렬표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병렬구성의 해석 양상에 관여하는 요소들은	4.2.

	는 병렬 표지에 의해 결정되는가?	구성의 의미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의미가 결정되나?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ㄱ. 구조 및 표지의 차원 ㄴ. 의미적 차원 ㄷ. 어휘적 차원 ㄹ. 화용적 차원	
21	병렬구성의 의미를 기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자질에는 어떤 것이 있나?	1) 망라성	망라성은 문맥이나 상황상 주어진 가능한 집합의 개체들을 모두 포괄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한국어 병렬구성의 망라성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가? 첫째, 문법적 수단에 의해 망라성이 표시되는 경우이다. '-이며, -하며' 와 같은 병렬표지가 사용될 경우 해당 병렬구성은 망라성이 낮은 목록으로 여겨진다. 이는 병렬표지 '-와'와 비교할 때 더욱 명백하다. 둘째, 망라성이 구조적 수단에 의해 표현되는 경우이다. 병렬구성에서 최종 병렬항 표지 구성은 최종 병렬항 비표지 구성보다 망라성이 낮다. 셋째, 망라성이 어휘적 수단에 의해 표현되는 경우이다. 낮은 망라성 정도를 표시하는 대표적 어휘적 수단으로는 '-등등'과 같은 표현이 있다.	4.3.
22	병렬구성의 의미를 기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2) 적시성	적시성은 바로 그것인가 아니면 그것과 유사한 종류의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된 성격이다. 예를 들어서 'A나 B'는 적시성이 높지만 'A라든지 B라든지'라고 했을 때는 적시성이 떨어진다. 즉 'A나 B'에서는 A와 B를 직접 가리키지만 'A라든지 B라든지'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A나 B일 필요는 없고 그러한 따	4.4.

	자질에는 어떤 것이 있나?		위의 것들을 가리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어에서 적시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표시되는가? 첫째로 문법적 수단에 의해 표시가 된다. 특정한 병렬표지에 의해 적시성이 표시되기도 하는데 '-인가, -인지, -라든가, -라든지' 등이 그러한 것이다. 둘째로 구조적 수단에 의해 표시되기도 한다. 후행항이 '-부정사+병렬표지'인 구성은 낮은 적시성을 표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셋째로 어휘적 수단에 의해 표시되기도 한다. '류'는 낮은 적시성을 표시하는 대표적인 어휘 표현이다.	
23	병렬구성의 의미를 기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자질에는 어떤 것이 있나?	3) 배타성	배타성은 연접에서는 배타성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접에서는 발생한다. 한국어 병렬구성에서 배타성은 어떤 방식으로 표시되는가? 첫째로 병렬표지에 의해 표시되는 경우가 있다. 병렬표지 중, 해당 병렬구성을 필수적으로 배타적으로 해석하게 하는 것과 배타성을 중화시키는 표지가 있다. ㄱ. 배타성 확인 표지: -인가, -인지 … ㄴ. 배타성 배제 표지: -와, -이랑, -하고, -에 … ㄷ. 배타성 중립 표지: -나, -이나, -거나, -든, -이든 … 둘째로 구조적 수단에 의해 표시되는 경우이다. '-나' 와 같은 배타성 중립 표지가 사용되었더라도 최종 병렬항에까지 병렬표지가 붙은 구조일 경우에	4.5.

			는 배타성이 배제된다. 셋째로, 배타성 중화 표현에 의해 배타성이 취소되는 경우이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도', '모두', '다' '전부' '–같은'과 같은 표현이다. 넷째로, 화용적 수단에 의해 반영되는 경우이다. 화용론적으로 대체 가능하며, 특별히 구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복수의 선택지가 병렬항으로 제시될 경우 배타성이 배제된다.	
24	병렬구성의 의미를 기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자질에는 어떤 것이 있나?	4) 선택지향성	선택지향성은 청자에게 병렬항들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 선택 해석의 자유를 부여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와 관련된 자질이다. 한국어 병렬구성에서 선택지향성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된다. 첫째, 문법적 수단에 의해 표시되는 경우이다. 연접 표지로 논의되어 온 병렬표지들은 선택지향성이 배제된 표지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접 표지로 알려져 온 표지들 중에서도 낮은 선택지향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건', '–이건'은 낮은 선택지향성을 나타내는 병렬표지이다. 둘째, 의미적 수단에 의해 반영될 수 있다. 병렬항의 의미와 관련하여 선택지향성이 낮아지는 것은 이미 지정된 대상이 존재하는 경우와 전체가 해당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나머지 하나의 병렬항을 ① 지나치게 열등한 것 ② 지나치게 우월한 것 ③ 세상에 없거나 기괴한 것 ④ 부정(不定) 표현으로 제시함으로써 만들어지며, 후자의 경우 ① 어휘적/화용적 반의 표현 ② 부정(否定) 표현을 통해 전칭 해석을 유도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셋째로 어휘적 수단에 의해 표시되는 경우이다. '–간에' 는 선택지향성이 낮은 문장을 만드는 표현으	

			로, 병렬구성 뒤에 '-간에'가 사용될 경우, 선택의 가능성이 박탈된다. 이 경우에도 선택지향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25	병렬구성 기술에 의미자질을 사용할 경우 장점은 무엇인가?	기존에 잘 설명되지 않았거나 예외로 처리되던 것들이 체계내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망라성, 적시성, 배타성, 선택지향성과 같은 의미자질에 의해 병렬구성의 의미를 분석할 때 기술이 좀더 정확하고 명료해질 수 있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표지 위주로만 접근하면 '이접'표지 '-이나'가 사용된 '녹차나 커피나 카페인이 많다'와 같은 문장이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현상인 것으로 처리되지만, 의미자질을 사용하면, 배타성 중립 표지 '-이나'가 사용되었고, 구조상 최종항까지 병렬표지가 표시되어서 배타성이 배제된 구성이 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 '사과며 배며 감 등등'과 같은 표현도 '예시'와 같은 자의적인 의미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망라성 자질을 사용해 망라성 저하 표지가 사용되었고, '등등'과 같은 낮은 망라성을 나타내는 어휘 표현이 더해지면서 망라성이 매우 낮은 구성이 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4.5.
26	한국어에 특수한 병렬구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1)교체 병렬	교체 병렬구성은 어느 한 시점을 잘라놓고 보면 하나의 병렬항만이 참이지만 좀더 넓은 시구간에서 파악하면 모든 병렬항이 참이 되는 입체적인 의미의 병렬구성이다. ㄱ. 교실이 조용하다가 시끄럽다가 하였다. (임동훈 2009: 103) ㄴ. 철수는 오늘 엄마를 기다리는 1시간 동안 휴대폰 게임에 열중하거나 운동장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지루함을 달랬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간적으로 평면적인 논리적	5.1.

			연접과 이접 구성과는 달리 자연언어의 병렬구성은 시간적으로 입체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자연언어 병렬구성이 논리적 복합 명제와는 달리 시간적으로 입체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본질적인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체 해석은 반복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병렬구성과는 구별될 수 있다. 반드시 규칙적으로 반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정한 반복의 패턴이 암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체 해석을 입기 어렵다.	
27	한국어에 특수한 병렬구성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2)되풀이 병렬	다음은 같은 병렬항이 반복되는 되풀이 병렬구성이다. 이는 언어 경제적으로 볼 때 특수한 병렬구성에 해당된다. ㄱ. 넓고 넓은 바닷가 ㄴ. 넓디 넓은 바닷가 ㄷ. 고르고 골라서 산 옷 ㄹ. 울다가 울다가 지쳐 잠든 아기 같은 병렬항을 더 나열하여 다항병렬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 때는 강조의 표현적 효과가 더해진다. 이러한 특수한 유형의 병렬은 범언어적으로 여러 언어에 존재하는데 Haspelmath(2007:25)에서는 이를 '확대연접(augmentative conjunction)'으로 보고 행위의 강력함이나 높은 속성 수준을 표현하기 위해 언어적으로 여러 개의 같은 요소를 조합한 구성을 사용한다고	5.2.

			하였다. 그런데 Haspelmath(2007)는 이러한 종류의 병렬구성을 위한 독자적 장치를 쓰는 언어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한국어 '-디'가 반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는 넓은 범위의 병렬에 관여하는 병렬표지로 부가적으로 이러한 연접에도 관여하는 반면, '-디'의 경우 다른 유형의 병렬표지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오직 되풀이 병렬만을 위한 병렬표지로만 사용되기 때문이다. 한국어는 이러한 유형의 연접을 위한 독자적 장치가 있는 언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8	한국어에 특수한 병렬구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3)아우름 병렬	병렬구성들 중에는 선행 병렬항들을 아울러 표상하는 아우름 표현을 가지는 병렬구성이 존재한다. ㄱ. 소파에서 뛰고 바닥을 구르고 난리굿을 벌였다. ㄴ.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천둥번개가 치고 날씨가 영 좋지 않았다. ㄷ. 도배를 하고 청소를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 두었다. ㄹ. 사과나 배나 과일 좀 사와. ㅁ. 쌀이랑 세제랑 휴지랑 생필품을 사러 갔다. 이는 화자가 자신이 발화한 병렬구성의 낮은 망라성이나 적시성을 보완하여 의도한 대상의 범위를 확인하고 확정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한국어의 아우름 병렬구성은 일종의 부분동격 구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5.3.
29	한국어에	4)유사 병렬	병렬구성들 중에는 다음과 같이 일부 병렬항이 고	5.4.

	특 수 한 병렬구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정된 구성이 존재한다. 이들 구성에서는 최종 병렬항이 고정되어 사용되면서 내부구조적으로 병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향으로 변화를 겪는다. ㄱ. [-co 부정(不定)표현 co] 구성: -고 뭐고, -ㄴ지 누군지, -ㄴ가 어딘가… ㄴ. [-co 부정(否定)표현 co] 구성:-든(지) 말든(지), -나 마나, -거나 말거나, -락 말락… ㄷ. [-co 비하표현 co] 구성: -이고 나발이고, -인지 개뿔인지, -고 자시고, -든 지랄이든… * 유사 병렬구성의 형성 [X1 co] [X2 co] > X1 [co X2 co]	

ABSTRACT

Coordination constructions in Korean Language

Ju Ji you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lies in elucidating the syntactic, semantic, and pragmatic characteristics of coordination constructions in Korean. More specifically, it is: first, to clarify the points at which Korean coordination constructions are distinguished from other syntactic constructions and to elucidate their structures; second, to present a new direction for the semantic description of coordination constructions; and, third, to examine diverse types of coordination constructions, which hitherto have received little attention.

Coordination signifies the combination of plural linguistic units with the same status. Created through coordination, coordinated constructions form equal relationships where one part does not depend on another and are syntactic constructions where the overall constructions created through such combinations belong to the same typologies as do the constituents. What has been traditionally treated as a concept relative to that of coordination has been intension, which is distinguished from the former in that the two combining linguistic units are unequal, with one dependent on the other. Korean language researchers' interest hitherto has tended to focus on dependent constructions that exhibit diverse patterns of semantic relationships, and coordination constructions have receive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Consequently, comprehensive studies that encompass all coordination constructions have been

few, and studies on individual word endings (verb endings) or postpositions (particles) related to coordination constructions have been conducted sporadically. The present study therefore has endeavored to examine and to explicate comprehensively the syntactic, semantic, and pragmatic characteristics of coordination constructions.

Chapter 1 addresses the objects and methodologies of research and trends in earlier studies.

Chapter 2 engages in the following discussions in relation to the scope and constituents of coordination constructions. Coordination is a principle of the connection of independent and differential linguistic units in that syntactically and semantically coordinate categories are enumerated, their multi-term connection is possible, and constructions without nuclei are created. Out of morphological coordination (coordination words), syntactic coordination (coordination constructions), and discursive coordination (coordination texts), all of which can be created through coordination, coordination constructions correspond to syntactic constructions and consist of coordination terms and coordination markers. Here, coordination terms are coordination linguistic units and correspond to units above syntactic atoms and below clauses. Coordination markers are grammatical markers that are used to form coordination constructions and that mediate plural coordination terms. In relation to the semantic scope of coordination constructions, the present study does not acknowledge adversatives as coordination.

Addressing the syntactic nature of coordination constructions, Chapter 3 presents the standards for distinguishing between coordination postpositions and coordination word endings. In Korean coordination constructions, coordination postpositions, coordination word endings, and unmarkedness as coordination markers are used disparately according to the grammatical categories of coordination terms.

Chapter 4 presents a new direction for the semantic description of coordination constructions and, for this, presents four semantic properties (exhaustiveness, indicativeness, exclusiveness, and choice orientation). Exhaustiveness is the property of encompassing and alluding to individuals in all possible sets given in the context or the situation. Indicativeness is the property related to whether an object is the one indicated or is one similar to it. Exclusiveness is the property related to exclusive choices from among coordination terms. Choice orientation is the property related to the speaker's will to grant to the listener a choice over coordination terms. The degree of exhaustiveness, indicativeness, exclusiveness, and choice orientation is reflected in coordination constructions through syntactic, semantic, and pragmatic means. Many cases that have been treated as exceptional phenomena from marker-centered approaches become explicable objects in descriptions that use such semantic properties.

Chapter 5 addresses constructions possessing semantically and structurally special nature out of coordination constructions. They are shift coordination constructions, reduplicative coordination constructions, inclusive coordination constructions, and pseudo-coordination constructions. While some of the more noticeable constructions out of them have been individually addressed in earlier studies, they have not been systematically addressed within grammar systems and granted temporary status only. The present study grasps the special nature of such constructions but seeks to explain it within the larger framework of coordination constructions.

As the conclusion, Chapter 6 summarizes the discussions and presents the remaining problems. The results of discussions in the present study are distinguished from earlier discussions and therefore significant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amidst the paucity of comprehensive discussions on coordination constructions to date, the present study engages in comprehensive discussions

on the nature of coordination constructions on various levels. Secon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coordination constructions in world languages addressed in recent typological discussions, it describes the structures and meanings of coordination constructions in Korean. Third, it discusses the ways in which language strategies related to the use of coordination constructions are reflected in language structures.

Keywords: Coordination, coordination constructions, coordination markers, pseudo-coordination constructions, inclusive coordination constructions, reduplicative coordination constructions, shift coordination constructions, exhaustiveness, indicativeness, exclusiveness, choice orientation.

Student identification number: 2008-30746